



서른살 여행기

발행 | 2017년 00월 00일

저자 | 김유민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춘의테크노파크2단지 202동 1306호

전화 | (070) 4085-7599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5811-000-0

www.bookk.co.kr

© 김유민 2017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서른살 여행기

김유민 지음

차례

들어가는 말	준비	7
1장	출발 이유들 전일 기점	11
2장	가장 가까운 낯섬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블라디보스토크	19
3장	열차에서 일주일 -시베리아 횡단 철도 1 첫날 내부 사람들 음식들 위층 사람 나와 같은 사람들 스케치 1 헤어짐 만남 동행 사과 소년 나눔 선입견 마지막날	25
4장	지구에 육박하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2 승차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닥터 지바고」 시베리아와 그리스 1 노력과 우연 시차 귀납 나태 부단 하차	51
5장	묘한 빛나감 -모스크바 지하철 성 바실리 성당 스케치 2 레닌 묘 크렘린 프레스코화 국립 역사 박물관 굼(국영 백화점) 이별 1	67

6장	길을 잃음 -이스탄불 첫인상 유류물 복귀	81
7장	관광의 전형 -아테네·나폴리·로마 1 낮섭 스케치 3 실수 1 고대 아테네 아고라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이별 2 나폴리 가는 길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나폴리 피자 관광지 폼페이 음료 바티칸 미술관 성 베드로 성당 주말 이별 3	85
8장	철학과 졸업생의 로망 -아테네·나폴리·로마 2 철학의 도시 고정된 시간 시베리아와 그리스 2 취향 벽화와 실상 「아테네 학당」 규모 갑을 관계	109
9장	건축공학과와의 기억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구엘공원 스케치 4 실수 2 라 페데라 까사 바뜨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별 4	125
10장	스킵 -마드리드 차이	137
11장	오로라를 마주하다 -트롬쇠 오로라 스케치 5 숙소 미련	139

12장	익숙함 -런던 히드로 공항 지하철 영국 박물관 실수 3 자연사 박물관 스케치 6	151
13장	악!!! -뉴델리 과실 뉴델리 결별	161
14장	도착 마지막 비행 목적	167
맺는 말	반성	171

들어가는 말

준비

이 글은 해외 여행기를 빙자한 내 안으로 여행기다. 한편으론 무슨 여행기를 쓰나 싶었다. 기록과 보관이 쉬운 시대다. 차라리 사방에 카메라를 달고 모든 걸 보여주는 편이 현명하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 직접 다녀온 나보다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은 모든 걸 경험하는 게 아니다. 기계가 전체를 기록하는 동안 내 눈은 내가 선택한 아주 좁은 곳밖에 보지 못한다. 평소 관심 있는 곳에 먼저 시선이 가고 더 길게 머문다. 기계와 같은 곳을 볼 순 있어도 시선이 머문 순서와 시간은 날 반영한다. 나만의 독특한 시선을 정리하고 의미 지어 보고 싶었다.

나로의 여행기를 모두 정리했지만 여전히 나를 설명하거나 내 방향을 결정할 확실한 근거는 없다. 불완전하고 미약한 토대를 만들었을 뿐이다. 다녀오기 전과 다녀온 뒤가 변한 것도 없다. 출발할 때부터 그런 기대는 없었다. 얼마간의 시간과 돈 몇 푼으로 자야를 찾거나 미래가 변한다면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거다. 하루에 조금씩이지만 매일 꾸준히 나를 돌아보았다는 점과 규모가 있는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내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업은 나에게 의미 있다.

혼자 써서 혼자 보면 될 걸 책으로 묶은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남이 볼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좀 더 고민하며 설명하게 되고 하루라도 빼먹지 않으려 노력하게 된다. 모르는 거 투성이지만 단정적인 어미를 사용한 건 나중에 내가 틀린 말을 한 걸 알았을 때 모호한 표현에서 변명을 찾고 싶지 않아서다. 이렇게 보니 순전히 날 위해 적고 묶은 글이다. 그러니 누군가 이 책을 본다면 그 사람은 한 젊은이의 인생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다고 읽을 가치 없는 글은 아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비교할 대상을 아는 건 좋은 일이다. 삶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니 비교 대상을 하나라도 더 얻는 건 더 좋은 일이다. 물론 같은 고민을 답습하길 기대하고 쓰는 글은 아니다. 이렇게 고민한 사람도 있다는 걸 전하고 싶다. 아무리 친해도 속은 잘 알 수 없는데 되려 누가 읽을지 모르니 더 진솔하게 말할 수 있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 서른 먹은 한 사람의 고민을 숨김없이 알 수 있는 글이다. 내 속마음을 듣고 응용하기는 읽는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 지적하고 싶은 거나 의문스러운 거 혹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내 전자우편(daseoh@gmail.com)으로 개의치 말고 연락하면 된다.



<그림 1> 여행 가방



1장

출발

이유들

철학과를 졸업했다. 정말 가고 싶었던 철학과다. 나는 잘 다니던 건축공학과를 4학기째에 그만두고 잠시 여행을 다녀온 뒤 수능을 다시 보았다. 학교에 새로 입학하니 어색했다. 나이 차이가 나서이기도 하지만 나와 동기가 된 이들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했다. 나는 뭐 했냐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시간이 지나고 철학과가 익숙해졌다. 마지막 학기는 읽어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도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다. 관성대로 학교에 다니다 보니 졸업 사정에 문제없이 마지막 학기가 끝났다.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어디든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어렵게 했다. 전에 다니던 학교를 관두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었던 일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여행 덕분에 나는 학교를 그만두어 싱송송한 마음을 정리하고 철학과 입학 준비에 몰입할 수 있었다. 졸업도 하고 서른이 되는 마당이니 잠깐 끊어갈 필요가 있었다. 학교에 다니며 반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지난 학부 시절도 반성하고 앞으로를 생각하고 싶었다.

여행 갈 생각은 있었다만 이렇게 준비 없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학부 동안 짬짬이 답사한 서울을 정리하자는 제안을 2016년 12월 25일에 받았다.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도움이 될 거 같았고 3월이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에 여행을 서둘렀다. 서울 답사기는 흐지부지되었지만 이때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무기력에 더 휘말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겨울을 보냈을 거다.

내가 왜 오로라를 보고 싶어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모든 일에 늘 명확

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시규어 로스라는 밴드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배경인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위도인 아이슬란드 하면 또 오로라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추정할 뿐이다. 오로라 여행지를 검색하니 캐나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나왔다. 캐나다는 너무 비쌌고 아이슬란드는 왠지 판타지로 남겨두고 싶었다. 노르웨이 트롬쇠는 관광 안내도 잘 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찾아보지 않고 노르웨이에 가기로 했다.

노르웨이로 가는 항공권을 검색하니 직항이 꽤 비쌌다. 여정을 끊어 가면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볼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 책장에 꽂혀있던 여행안내서인 『론리 플래닛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눈에 들어왔다. 막연히 론리 플래닛 한 권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베를린에서 평양에 가는 기차표를 끊는 영화 장면 본 기억이 남아있어서 산 거다. 그 뒤로 가끔 보면서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 타고 돌아오는 낮 뜨거운 상상도 했다. 오로라 말고는 목적이 없었고 그냥 밖을 돌아다녀 보고 싶었기에 숙박비가 들지 않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비용도 저렴하고 목적에도 부합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스크바에서 노르웨이 직항은 가격이 살인적이었다. 값싼 항공권을 연결하다 보니 아테네와 로마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가 중간 경유지로 선택되었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도 싸게싸게 하다 보니 런던과 인도가 여정에 추가되었다.

2016년 12월 30일 저녁에 나는 다음 해 1월 7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열차를 예매하기 위해 카드번호를 입력

했다. 별생각이 없이 멍했다. 침대 2층보다 1층이 편하다는 말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시간부터 찾아보니 7일에 그나마 자리가 있었다. 자리를 고르고 결제 창에서 한참을 있다가 결제를 했는데 마침 오류가 났다.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오류지만 나는 나약한 사람인지라 가지 말라는 게시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머뭇머뭇 망설이다 결국 결제했다. 여행의 설렘도 긴장도 없었다. 결제를 완료하고도 긴가민가했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도 중간 여정도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뭘 타고 갈지 어디서 잘지도 아직 몰랐다. 열차 취소 비용 몇 폰이 아까워서 여행이 시작되었다.

전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샀으니 일단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야 한다. 배 편보다 싼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고 기차 출발 전 도착하는 가장 싼 항공권을 골랐다. 오로라는 단기에보뿐이고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이 주 전에 알 수 있는 건 아니니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은 주기가 일정한 달뿐이다. 어두우면 오로라가 더 잘 보일 거란 생각에 달이 얇게 뜨는 날을 전후로 해서 트롬쇠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예매했다. 확정되는 일정이 점점 많아질수록 선택은 줄어들더니 나머지 일정 선택은 점점 더 수월해졌고 출발 전날인 1월 5일에 나는 로마와 나폴리 사이 열차 편을 빼고 모든 이동 편을 결정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동 편만 결정한 거다. 인도 전자 비자를 위한 사진

도 아직 찍지 않았고 숙소도 아직 모른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숙소만 예약하고 나머지는 여행 중에 하기로 했다. 정신이 빠져있었지만 그래도 비수기니 잘 곳 없겠냐고 생각했다. 숙소도 문제지만 도착하는 도시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뭘 할지 생각해 놓은 것도 없다. 지금 생각하면 환장할 노릇이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으니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해서 어디를 가든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 사는 곳이 똑같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다.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놓을 정도로 순박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상인의 마음은 사람 사는 곳이라면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돈 쓰러 온 무던한 여행자를 굳이 내쫓겠냐는 생각에서다.

기점

나를 위해 남이 죽어줬다는 모티프는 강렬하다. 희생 모티프는 간혹 미담으로 뉴스에 나타나기도 한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혹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뿐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이야기도 간혹 들을 수 있다. 특히나 이득이 없으면 남에게는 십 원짜리 한 장도 쓰지 않는 사회란 걸 체감할 때 남이 날 위해 희생한다는 이야기는 가슴 절절히 다가온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누가 나한테 밥을 산다고 하면 손사래 쳤을 텐데 지금은 참 고맙게 생각

하고 얻어먹는다. 내 돈 몇 푼 아껴서 고마운 게 아니다. 십 원도 남에게 쓰기 꺼리는 시대에 날 위해 무언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좋고 고맙기 때문이다.

공항으로 가는 그날에도 우리 집은 썩 편안하지 않았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 경비로 들어간 돈이 절실하게 생각날 때도 있었다. 마음이 편할 리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내미 여행 간다는데 별말 없이 다녀오라고 하시고 용돈도 챙겨주신 내 부모님도 참 어지간하시다. 여행 가니 같이 가자는 철없는 말에 집을 봐야 한다고 말한 나보다 더 어른스런 동생도 있다. 아랫집 집사님은 윗집 청년이 여행을 간다고 하니 “좋은 추억 마니마니 담아오”라고 적힌 흰 봉투를 주셨다. 내 주변에는 늘 고마운 사람 투성이다.

범죄인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처벌받지만 가족을 숨겨주는 건 일정 부분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아무리 사람 새끼가 아닌 짓을 해도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이니 감싸 줄 건데 이를 처벌하지 않는 거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남보다 못한 가족을 난 생각하지 못하겠다. 서로 감시하는 가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진 않다.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리는 영화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 거면 굳이 가족이란 관계가 필요 있을까?

나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신뢰 깊은 친구나 선생과 이렇게 든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큰 실패를 해도 나를 믿어주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실제로 실패를 하던지와 상관없이 중요하다. 사실 실패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누군가에게는 실패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두가 실패라고 여기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희망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는 건 쉽지 않다.

선택은 내가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데 기초한다. 의미는 믿음과 큰 관련 있다. 믿음의 종류는 많다. 근거 있는 믿음도 있고 터무니없는 믿음도 있다. 근거가 있으면 더 든든한 믿음이 된다. 그렇지만 터무니없는 믿음이 무의미한 건 아니다. 그냥 사본 과자가 맛있을 때도 있다. 또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고 엄청 굳건한 건 아니다. 여러 숫자와 실험을 통해 안전하다고 믿은 물질들이 사람 죽이고 환경 파괴한 일이 한두 가지인가.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앞으로 계속해야 할 거라고 말해주는 건 아니다. 매장하던 나라에서 화장을 이렇게 많이 할지 누가 알았을까. 법률도 늘 다시 쓰인다. 사회적으로 정말 사악한 놈이어서 최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정말 억울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국민 다수가 동의한 법률이 나쁜 놈으로 낙인찍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온전히 한 개인으로 저 사람을 받아줄까. 긴 판결문과 많은 증거들을 직접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한 개인의 첫 만남을 준비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 심지어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애초에 법이 잘못된 거면 어떻게 달리 봐줄 방법이 없다. 되려 모두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꼴이니 선고받은 사람이 스스로 나쁘다고 믿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억울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엄청난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모두가 날 해로운 사람으로

보고 손가락질하면 내가 뭐라고 말한들 공염불이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날 진실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억울함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억울함을 들은 사람이 믿어주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일이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건 전혀 바뀔 수 없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끝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희망이 있으니 살 수 있다.

여행도 돌아올 곳이 있으니 하는 거다. 여행에서 낯섬은 부차적인 거고 방점은 돌아온 뒤에 찍혀 있다. 여행은 도피가 아니다. 잠시 현실에서 멀어지는 건 단지 너무 짝 막혀서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게 한숨 트는 행동이다. 내가 돌아올 곳은 가끔은 남이 날 위해 뭔가 해주기도 하는 우리 사회이고 그 안에서든 굳건한 믿음으로 얽혀있는 우리 집과 같은 곳이다. 집을 나섰다. 동생이 시외버스 타는 곳에 내려줬다. 가방은 학교 갈 때 맨 그 가방이다. 떠나는 길도 얼마간은 학교 가는 길이다. 중간에 공항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여행을 가는지 학교에 가는지 잘 구분되지 않는다.

2장

가장 가까운 낯섬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다. 러시아 비행기는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비행기보다 빠르게 도착한다. 새벽 비행기가 빨리 도착한다고 별다른 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난방도 빵빵하지 못하면서 단열에 좋지 못한 유리를 쳐바른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건물을 원망할 시간만 늘 뿐이다.

공항에 도착하니 곤봉을 뱅뱅 돌리며 건들거리는 경찰들이 보였다. 입국 심사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꽉 막혀있고 문이 달려있어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다. 약간 높은 심사대에 유리문을 달거나 심지어 문이 없는 곳과 비교하면 고압적이다. 안내도 살갑지 않다. 심사대 위에 등이 켜지면 그걸 보고 심사관에게 다가가는 방식이다. 심사관 역시 냉랭하고 뻗뻗하다.

면세구역의 문이 열리니 옹기종기 모여 보드카 병나발을 불던 아재 너댓 명이 보였다. 보드카 병나발이라니. 러시아에 온 거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니 택시 예약 창구가 보였다. 뻘히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뼈끼가 붙어오는 걸 보니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생각에 낯선 곳에 있다는 불안함이 가셨다.

좀 다른 점이라면 화장실이다. 일단 문이 다른 문이랑 똑같아서 처음에는 화장실인 걸 알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세면대가 나온다. 그리고 또 한 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변기가 나온다. 화장실이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밖에서 소변기가 보일 일이 없다.

오로라를 보고 싶다는 헛바람이 들어서 시작한 여행이다. 오로라를 보

는 일 말고는 보너스 여정이라 생각해서 특별히 욕심이 없었다.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던 것도 아니다. 폭 쉬고 아침부터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닐 생각도 없었기에 공항에서 날이 뜨기를 기다렸다.

러시아는 땅이 커서 그런지 공간 인심이 좋다. 화장실도 그렇지만 의자 좌판도 다른 나라보다 좀 크고 공항 안도 답답하지 않다. 의자가 널찍하니 팔걸이만 없었다면 하룻밤 보내는 데 더 좋았을 거다. 대충 자리를 잡으니 여러 사람이 여기저기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긋나긋하게 들렸다. 외할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 무릎에 기대 졸면 어른들의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곤 했는데 여기서도 그랬다.

날이 밝으니 공항이 분주해졌다. 수화물에 랩을 씌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찌찌직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승객들이 공항 수화물 처리를 썩 믿지 않나 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붉은빛 도는 브로치를 가슴에 꽂고 어색한 우리말을 쓰는 무리도 래핑을 했다. 이들을 보았을 때 북한 영공이 별 느낌 안 들었던 것처럼 무덤덤했는데 할매 할배들에게는 좀 다른 느낌일 거다.

아직 통신사 창구가 문을 열 때가 아니라 공항에 좀 더 머물렀다. 해가 떠서 공항 밖이 보였다. 도착했을 때는 단열에 좋지 않은 유리를 불평했는데 바람이라도 막아주는 저 한 장의 유리가 고마웠다. 밖은 너무 매서운데 안은 햇살에 평온했기 때문이다. 통신사 창구가 문을 열어서 유심을 사고 공항 철도역으로 향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동네는 전철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실 시골이니까 우리 동네라고 하는 거다. 차로 20분 걸리는 장소를 서울에서는 우리 동네라고 하진 않는다. 하여튼 일제 때 수원에서 여주까지 이어지는 협궤가 있었지만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얼마 있지 않아 없어졌다. 그리고 작년부터 표준궤 전철이 다니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몇 주가 지난 뒤 동네에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인천으로 간다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한 무리의 중년을 보았다. 결국 길을 물어본 사람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돌아갔는데 이유는 전철은 복잡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을 잘 맞추고 어디든 같은 디자인을 지닌 안내 표지와 심지어 4개 언어로 방송까지 하는 수도권 전철이 타기 불편하다는 소리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간혹 정류장도 지나치고 안내 방송도 짹 짹 먹는 버스와 전철은 초행길에서 헤맬 확률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블라디보스토크 버스는 우리나라 버스보다 더 혼탁하다. 서울 버스가 노선 번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기도 하고 그레이스나 봉고 같은 승합차가 버스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공항버스 정류장에 서는 버스로도 21인승 리무진 이런 게 아니라 승합차이고 짐을 실으면 돈을 더 내는 구조다. 환율이 반 토막이 난 러시아에서 혼란스러운 버스보다 비싸지만 편한 공항 철도를 타는 게 무슨 큰 사치로 보이지는 않았다.

러시아 열차는 우리나라가 쓰는 표준궤 보다 약간 넓은 광궤다. 그래서 인지 객차 내부가 좀 넓다. 객실에 앉은 뒤에 한 무리가 내 옆에 앉았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마냥 자리를 훌 떴다. 그리고 나는 역까지 주욱 혼

자 앉아갔다. 내가 눈 색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 외국에 온 거다.

반나절 돌아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뭘 할 말이 있겠냐만 언 바다에 차를 세워놓고 낚시하던 많은 사람과 우측통행인데 우핸들인 자동차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동상들이 많다는 점과 그 앞에는 꼭 꽃이 놓여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독수리 전망대에 오르면 긴 다리와 정박해 놓은 옛 전함이 보인다. 전망대 난간에는 어디나 그렇듯 사랑의 징표로 걸어 놓은 자물쇠가 많은데 엄청 큰 자물쇠로는 모자랐는지 엔진 피스톤도 걸어 놓았다. 보드카 병나발도 그렇지만 러시아는 뭔가 다르다. 아르세니 예프 박물관도 들렀다. 국사 시간에 우리 민족으로 놓는 세력의 유물도 전시되어 있다.

러시아 열차는 모스크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2시에 출발하는 기차라면 7시간 시차를 더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시에 출발하는 꼴이다. 숙소에 누워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예컨대 모스크바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출발하는 기차라면 7시간을 더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다음날 새벽 1시가 출발시각인데 나는 12진법이 아니라 10진법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시간으로 3시에 출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1시에 출발하는 열차였다. 급히 숙소를 나왔다.



<그림 2> 독수리 전망대 난간에 걸린 자물쇠들과 피스톤



3장

열차에서

일주일

시베리아 횡단 철도 1

첫날

모스크바행 열차를 예매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역에서 체크인하고 열차표를 받는 방법과 열차표를 인쇄해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내가 인쇄해간 열차표를 보더니 차장이 날 들여보내 주지 않고 러시아어로 주저리주저리 말했다. 러시아어를 못 한다고 하니 러시아어로 더 뭐라고 했는데 대충 눈치로 너는 외국인니까 내가 해준다는 말 같았다. 내가 자리를 잡으니 다른 직원이 내 열차표를 가지고 역으로 가서 뭔가 해왔다.

그 사이에 차장은 베갯잇과 요를 감쌀 하얀 천 두 장 그리고 수건 한 장을 줬다. 답습한 모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반에서 베개를 꺼내서 베갯잇을 씌우고 요를 깔아 천 두 장을 감싸고는 이불을 꺼내 덮고 하나둘 잠들었다. 나도 눈치껏 그렇게 했다. 아무 설명도 없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마련하는 게 이상했다. 초등학교에서 기차 타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공영방송에서 캠페인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

좌석 번호를 보고 자리를 잘 찾는 것도 신기했다. 나는 2층 침대가 놓인 칸에 탔다. 아래 칸을 예매해서 아래 자리 잡았지만 열차에 표시된 좌석 번호를 가지고는 어디가 1층인지 알기 힘들다. 2층 침대 좌석 번호가 1층 침대 좌석 번호 밑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난 사실 아직도 내가 내 자리를 잘 찾았는지 모르겠다. 예매할 때 실수했을 수도 있고 내 위 칸에 탄 사람들은 외국 사람인 날 낯설어했기 때문이다.

열차가 출발하고 내 위에 아무도 타지 않은 게 살짝 불안했다. 내 자리는 분명 위 칸과 아래 칸 둘 중 하나이니 그중 한 자리가 차 있으면 내 자

리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그런데 나는 내 자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위 칸이 비어있으니 혹시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았을 가능성 때문에 신경 쓰였다. 반대로 아래 칸이 원래 내 자리이지만 누군가 누워있었으면 난 한 두 번 내 자리 아니냐고 해보고 상대가 비키지 않으면 예매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위 칸에 눕고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거다.

비어있다는 건 여지가 있다거나 모르는 게 있다거나 틈이 있다는 말이다. 내가 알 수 없는 틈이 있다는 건 불안한 일이다. 담장에 내가 모르는 구멍이 있어서 누군가 오간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 그런데 틈이 하나도 없어서 밖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곧 질식하고 만다. 뻑뻑하지 않고 빈 곳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 안에서 볼 걸 하나하나 빈틈없이 안다면 굳이 열차를 탈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면 열차를 탈 수도 없다. 무엇을 하든 미리 완전히 알 수 없으니 적당히 알고 불안하게 뭔가 해보고 실수하면 고쳐나갈 수밖에 없다.

잡생각을 하다 보니 위에 사람이 뒹다. 많아 봐야 1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능숙하게 침대를 만들고 곧 누웠다. 나도 쓸데없는 고민을 끄고 잠들었다.

내부

나는 모스크바행 99번 열차를 탔다. 99번 열차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행이 되면 100번이 된다. 러시아의 철도 시스템에서

는 번호가 작을수록 좋은 열차라고 한다. 한 자리 대 열차도 있는데 빠르고 시설도 좋다. 나는 너무 급하게 출발하느라 표를 구하지 못했다.

99번 열차 삼등 칸에는 두 명의 차장이 교대로 근무한다. 상냥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할 때 무심하지는 않다. 차장은 내려야 할 곳이 다가오면 미리 알려주고 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고 작은 매점도 운영한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차장은 매점을 보면서 주석 손잡이가 달린 유리 컵을 빌려주거나 침구를 싼 천과 베갯잇을 되돌려 받는다. 또 정차할 때 차량을 살피고 얼음을 제거하기도 한다.

두 명의 차장이 담당하는 한 칸은 앞뒤로 화장실이 있다. 앞 화장실은 뜨거운 물이 나올 때도 있었다. 뒤쪽은 온수 꼭지가 있기는 한데 나오지는 않았다. 수도꼭지는 온수와 냉수 밸브가 있고 물이 나오는 곳은 막대로 막혀있는데 이를 밀어 올리면 물이 줄줄 흘러나온다. 처음에는 손도 씻기 어려웠는데 나중에 가니까 샤워도 할 수 있을 거 같았다. 변기는 좌변기인데 물을 내리면 철로가 보인다. 정말 추울 때는 그 잠깐 사이에 한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철로에 오물을 바로 뿌리는 구조이기에 역이나 큰 도시 주변에서는 차장이 화장실을 잠근다.

러시아도 사람 사는 곳이라 스마트폰도 꽤 보인다. 그런데 콘센트는 네 개뿐이다. 사실상 두 개는 화장실 안에 있어서 쓸모없고 뒤 화장실 밖에 있는 콘센트와 앞 화장실 밖 온수기 옆에 있는 두 개의 콘센트가 전부다. 이 두 개도 늘 작동하는 게 아니고 되었다 안 되었다 한다. 또 꼽아 놓는다고 해도 누가 뽑고 자기 걸 충전하기도 한다. 모스크바 가는 동안 콘센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삼등석 열차 안은 침대 여섯 개를 한 조로 해서 아홉 조가 채워져 있다. 승객이 꽉 차면 오십 사명이 한 칸에 타게 된다. 두 개의 이 층 침대는 열차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서로 평행하게 놓여있고 그 가운데에는 창문과 작은 탁자가 있다. 서로 평행한 일 층 침대 두 개는 상부가 들리고 아래 칸에 짐을 넣을 수 있다. 이 층 침대 위는 이불이 놓여있는 선반이 있다. 나머지 층 침대 하나는 평행한 두 이층 침대와 복도를 두고 열차 진행 방향으로 놓여있다. 여기에 놓인 일층 침대는 세 부분으로 분리되고 가운데 부분을 들어 올린 뒤돌려서 고정하면 탁자가 된다. 그럼 움직이지 않은 양쪽은 자연스레 의자가 되고 그 아래는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 나는 자리가 없어서 진행 방향으로 놓인 일층 침대를 잡았는데 낮에는 위 칸 사람이 아래 앉아있기 때문에 침구를 정리하고 탁자를 만드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앞쪽 화장실과 뒤쪽 화장실은 따로 객실과 문으로 분리되어 있고 여기서 문을 하나 더 열고 나가면 문이 세 개가 나온다. 열차 진행 방향으로 있는 문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문이고 양옆으로 있는 문은 열차를 타고 내릴 때 쓰는 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열차 안을 순찰하는 경찰을 피해서 몰래 담배를 피운다.

쓰레기를 든 사람들이 뒤쪽 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오면 빈손이 되었다. 나도 쓰레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쓰레기통이 없었다. 그래서 화장실처럼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게 로씨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차마 창밖으로 버리지는 못하고 휴대전화 신호가 잡힐 때 쓰레기 버리는 법을 검색해 보았다. 객실에서 뒤쪽 화장실로 넘어가는 문을 열면 창가 아래

의자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상판을 위로 들어 올려보면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기호도 없고 붉은 글씨로 뭐라 쓰여있길래 비상용품을 보관해 놓은 함인 줄 알았다.

열차 내부에 설명할 건 이 정도다. 굳이 더 적는다면 창과 문에 대한 이야기다. 열차 유리창은 아주 두껍다. 그냥 두꺼운 게 아니라 두 겹으로 만 들고 그사이에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을 채워 봉인한 창이다. 그리고 문은 무게감 있고 딱 맞물린다. 평소대로 가볍게 문을 열면 꼭 잠긴 거 같은데 포기하지 말고 힘을 더 줘서 밀어야 한다.

사람들

모스크바에 도착할 즈음까지 눈에 익지 않던 장면이 하나 있다. 1층 침대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2층에 자리 잡은 사람이 특 내려와서 탁자를 이용하는 모습은 정말 볼 때마다 식겁 놀랐다. 열차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평행하게 놓인 두 침대는 창가 쪽에 탁자 하나가 있다. 머리를 복도로 하고 자지 않으니 탁자 쪽에 머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데 침대는 무척이나 좁아서 사람이 똑바로 누워있으면 편하게 엉덩이 놓을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1층 사람이 옆으로 누워주면 그때야 좀 편하게 걸쳐 앉을 수 있다.

이들은 1층 사람이 옆으로 누워있던 똑바로 누워있던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1층 침대를 의자처럼 쓴다. 실례한다거나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하지 않다. 하긴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비슷하다. 화장실 앞

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침대에서 보이니 내가 방금 들어온 걸 알 텐데도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급하면 밖에서 노크 세례를 하거나 헛기침을 엄청 해댔다. 더 생각해보니 건널목 차단기도 참 배려가 없다. 땅에서 차단기가 올라오는데 다 올라오면 직각 삼각형이 튀어나온 형태인데 문제는 사선 방향이 철로를 봐서 도로 쪽으로는 벽이 생긴다. 만약 실수라도 하면 차가 박살 나는 형태다.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들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틀렸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로씨아 사람들은 마음이 시베리아만큼 넓어서 모르는 사람이 자는데 엉덩이를 얼굴에 들이밀거나 화장실 앞에서 채근을 해도 별 신경 안 쓰일 수 있다. 실수해서 열차에 탄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그냥 운전자 혼자 다치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무례한 짓을 하면 칼부림도 나니 서로 해 끼치지 않고 잘 살기 위해 여러 예절을 만들기도 한다. 자신들에게 해가 될 일이 없는데 예절을 만들어서 지키는 건 쓸모없는 짓이다.

그렇다고 내가 본 러시아 사람들이 인정이 없는 건 아니다. 잘 자고 있는데 경찰이 깨워서 순간 겁먹은 적이 있었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건가 생각하고 주섬주섬 여권을 꺼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러시아 말로 격하게 뭐라고 한다. 잘 못 알아듣는 눈치이니 더 심각하게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다가 끝내 경찰이 답답했는지 침대에 떨어진 휴대폰을 손에 쥐여준 기억이 있다. 그 뒤로도 복도 건너편 사람은 러시아어로 끊임없이 뭐라고 했다.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것처럼 쿨하게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열차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면 나는 알아듣든 말든 러시아어로

말하면서 무시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 성격 같으면 열차 안이 견딜 수 없으면 진작 뛰쳐나왔을 텐데 시베리아 위에서 뛰쳐나와 봐야 할 수 있는 건 운이 좋아 공항이 있는 역에서 내린 게 아니라면 다시 기차를 타는 방법뿐이다. 나는 러시아의 정말 작은 부분을 경험한 거니 다른 열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으면 내 여행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대안 없는 상황에서 별일 없을 수 있던 건 관찮은 사람들이 스쳐 갔기 때문이다. 나를 잠시나마 지나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음식들

열차가 출발하고 이틀 정도는 나랑 비슷한 생김새를 한 사람을 보기 힘들다. 열차의 출발지인 블라디보스토크는 바로 북한과 중국 위인데 온통 백인만 보이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 온통 백인인 열차 안에서 우리나라 컵라면인 “도시락”이 흥하고 있는 건 더 이상한 일이다.

“도시락”은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 맛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내가 본 것만 여섯 가지 맛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 게 해외에서 흥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홍보 문구로 받아들였다. 아프리카에 자전거 바퀴 수출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자동차 타이어라던가 뉴욕에 억지로 분점 하나 차려놓고 뉴욕커도 즐기는 커피라고 하는 광고하는 느낌? 그런데 “도시락”은 내가 탄 칸에서는 정말 쉽게 볼 수 있었다.

나도 열차에 타기 전에 검색을 해보았고 열차 안에 온수기가 있다는 사

실과 먹을 게 마땅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여섯 개 샀다. “도시락” 안에는 포크가 들어있어서 식기를 씻어야 하는 귀찮음도 덜 수 있다. 열차에 탄 사람들은 “도시락” 용기와 비슷한 뚜껑 있는 용기를 가지고 타곤 했다. 그러면 “도시락”의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챙기면 되기에 부피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 온수기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뜨거운 물을 흘릴 위험도 덜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도시락” 말고 놀라운 음식이 하나 더 있다. 컵라면처럼 용기에 담긴 감자 튀레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맛이 있다. 은박지로 된 뚜껑을 열면 가루만 들어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르면 찢 감자 하나를 으깨서 양념을 곁들인 것처럼 된다. 맛도 적당히 있고 식감도 정말 감자를 간 거 같다. “도시락”만 먹었으면 얼마 안 가 열차에서 뛰어내렸을 텐데 이 감자 튀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물론 식당 칸도 있고 아침저녁으로 빵을 파는 아주머니도 다니고 역마다 매점도 있다. 중간중간 음식을 사 먹거나 얻어먹기도 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주식은 인스턴트였다. 하루에 반년씩 수명이 준 느낌이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다음에 간다면 좀 제대로 먹어야겠다.

위층 사람

나는 예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 때에 맞춰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테이블을 만들어 곳곳이 앉아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잠자리를 만들었다. 어차피 위에 사람이 있으면 낮에 내 침대를 의자로 쓰니 만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누워서 세 끼를 먹었다. 침대 방향이 열차 진행 방향과 같으니 편안하게 누워서 바깥 풍경을 보며 졸리면 자고 대충 밥때가 되었다고 느껴지면 먹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좁은 공간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여간 힘든 일 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이 빨라지니 밥을 먹었는데 또 밥때가 오는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먹고 자기만 한 건 아니다. 책도 읽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전자책으로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쓴 『상대성이론』을 종이책으로 챙겼다. 이북은 배터리가 부족해서 조금씩밖에 볼 수 없었으니 결국 『상대성이론』을 여러 번 읽었다.

처음 위층에 탄 사람이 내리고 아직 내가 세 끼를 누워서 먹지 않을 때 위에 사람이 탔다. 그는 10대나 되어 보였는데 처음 날 본 얼굴에는 낭패감이 보였다. 그는 다른 승객이라면 타자마자 했을 잠자리 만들기도 잊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가 이불을 개 놓은 맞은편 자리에 걸터앉았다. 내가 이불을 위 칸으로 올리고 자리를 넓게 마련해줬지만 얼굴은 퍼지지 않았다. 하긴 이 열차에서 내가 제일 생경스러운 사람일 텐데 아무 것도 모르고 내 위층 침대를 선택했으니…….

그는 얼마 지나 정신을 차리고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다. 그리곤 정말 단 한 번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반나절을 누워있어서 죽었나 확인하고 싶었을 정도다. 복도 건너 마주 보는 두 개의 침대에는 모두 러시아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일 층에는 러시아 아짐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한 끼는 “도시락”을 까서 그 아짐 옆 테이블에서 먹

었다.

복도 건너 아짐도 그와는 생판 모르는 사이일 텐데 나와 그의 거리보다는 그와 그 아짐의 거리가 마치 모자 관계처럼 가까워 보였다. 같은 피부색을 지나고 같은 나라 안에 살아도 이해하지 못할 신기한 사람 천지인데 다른 문화라면 오죽할까. 그러니 다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거나 신기하게 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다 덮어두고 우린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쉽게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이상하거나 열등하게 보이는 걸 애써 이성으로 억압하는 건 병적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나와 같은 사람들

모스크바 시간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지 3일이 지났다. 몽골 국경과 가까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나와 비슷해서 생김새지만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였다. 중국에서도 입 다물고 있으면 중국 사람이 말을 걸기도 했지만 동양의 범주에 넣어보지 않은 러시아에서 이런 경험을 하니 정말 이상했다. 생김새가 같다고 한국어를 하고 한국인일 거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국적과 언어와 유전적 유사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한 나라에서 여러 국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 혈통이 같은 나라에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단일 민족 국가에 집착한 교육을 받았는지 실감했다.

해가 지고 열차는 울란우데우 역에 도착했다. 정말 생김새로는 한국인

같은 연인이 열차에 올랐다. 둘은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도 덜 긴장한 연인에게 다른 연인이 기뻐다. 다른 연인에게 버팀이 되어 주던 사람은 자리를 찾고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열차에 있는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내 둘은 잠이 들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지금도 그들은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다. 이 열차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마음 쓰이지 않았는데 여행 다녀온 지 4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왜 이들이 생각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비슷한 생김새여서 눈이 더 가고 마음 쓰였던 점도 작용한 건 분명하다.

열차 안에서 본 연인이 이들만 있는 건 아니다. 어디를 가는지 앞서 연인처럼 긴장해 있는 이들도 있었고 여유롭게 한 침대에 꼭 붙어있는 이들도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탄 이들도 있었다. 어렸을 때 애도 낳고 그럴 수도 있다만 어린 연인이 많다는 건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이 십 대 초반에 결혼한다면 몹시 이상한 일인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 보인다. 스물이면 성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대학생이 자신과 상대를 책임질 어른 취급 받던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삼일이면 여정의 중반이고 열차가 익숙해질 시간이다. 그런데 돌연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해가 저서 보이지 않았지만 열차는 바이칼 호를 지나가며 이르쿠츠크로 향하던 밤이다.

스케치 1

아침 창밖은 나무 종류가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늘 같은 풍

경이 지나간다. 보이는 건물들도 소련의 영향인지 모두 비슷비슷하다. 밖과 다르게 열차 안은 따듯하다. 옆자리에서는 할배가 허리 아픈 할매를 눕혀놓고 고쳐보겠다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먹을 걸 가득 싣 봉지도 가벼워졌고 알파벳을 잘못 읽고 산 탄산수는 이제 어느 정도 맹물이 되었다. 여전히 말은 안 통하지만 이제 이 공간이 낯설지 않다.

낮에 콘센트 때문에 승객들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갔다. 전기 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나는 눈치껏 충전기를 꼽았는데 누군가 내 충전기를 빼고 자기 충전기를 꼽아놔서 많이 충전할 수 없었다. 또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올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마냥 꼽아논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콘센트만 쳐다보고 있다가 점심 때가 되서야 휴대전화를 어느정도 충전하곤 충전에 신경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저녁에 열차는 이란스카야 역에서 22분 동안 멈췄다. 정말 짧게는 1분만 멈추고 길어야 5분이니 22분이면 정말 오래 서 있는 거다.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먹을 걸 사온다. 차장은 흔히 말하는 빠루, 그러니까 노루발을 들고 열차 차륜을 툭툭 쳐서 점검하고 도끼로 얼음을 제거한다.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나가기에 나도 따라나섰다.

열차가 길어서인지 승차장에서는 중간중간 여러 개의 매점이 있다. 매점은 물건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고 점원에게 원하는 물건을 말해주면 점원이 가져주는 방식이다. 나는 스프라이트와 건너 보이는 고로케 같은 빵을 샀다. 빵을 전자렌지에 돌려주는 친절까지 경험했다. 소는 고로케와 비슷했는데 고기가 생선이어서 비린내가 났다. 그래도 따듯한

빵이니 만족했다. 사실 아침저녁으로 열차 안에서도 빵을 파는 사람이 후덕한 몸집에 손 토시를 하고 모자 달린 두겹고 긴 스웨터를 입은 모습으로 돌아다니지만 아무도 사먹지 않았기에 도전하지 않았다.

따뜻한 빵뿐 아니라 오랜만에 서울에서도 파는 음료를 맛본 괜찮은 식사다. 저녁 시간이 되니 사람들은 “도시락”이나 차에 물을 붓기 위해 분주해졌다. 열차 앞쪽에는 온수기가 있는데 생긴 것도 마치 증기기관처럼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 물 역시 엄청 뜨겁게 나온다. 사람들은 주석 손잡이가 달린 유리잔을 차장에게 빌려 차를 마시는데 보온병에 담아 놓으면 식지 않아서 마실 수 없기 때문인 거 같다. 문제는 뚜껑이 없어서 그걸 들고 자리로 갈 때마다 불안하단 점이다. 만약 쏟으면 1층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바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고 내가 차를 만들다 손을 디고 말았다.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지 왓지자껄하다. 추운 시베리아 위를 달리는 따뜻한 열차 안에서 시끄러운 수다를 듣는 건 불쾌하기보단 평화롭다. 나이든 양반들의 조곤조곤한 대화 뿐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 다니기도 한다. 그래도 얼마나 평화로운가, 밖은 살벌한데. 그렇다고 아이들과 놀아 준다고 뛰어다니는 어른들까지 보기 좋은 건 아니지만 말이다.

헤어짐

노보시비리스크라는 큰 도시를 지나는 날이어서인지 많은 사람이 내리고 탔다. 내가 탄 칸에서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까지 쉬

지 않고 간 사람은 나와 두 차장뿐이다. 중간에 많은 사람이 타고 내렸다. 그래도 한두 명이 내리고 또 자리가 채워지고 하는 식이었기에 늘 눈에 익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날은 눈에 익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열차를 바꿔탄 기분이다.

내 자리에서 복도 넘어 대각선 자리에 앉은 인상 선한 사람도 노보시 비리스크 전에 있는 어떤 역에서 내렸다. 사실 인상만 선한 건 아니고 나를 도와주기도 했다. 열차에 탄 지 3일이 지났을 때 열차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서 내 침대를 적셨다. 이제 하다못해 열차 천장이 빵구가 났다고 황당해하던 때에 내 자리에서 대각선에 있던 사람이 차장을 불러줬다. 차장은 2층 침대에 골판지를 고정하고 수건을 놓아 떨어지는 물방울을 막아줬다. 임시방편이었지만 그 뒤로 별문제는 없었다.

열차가 역에 도착하기 전에 차장은 돌아다니며 내려야 할 사람들에게 도착지가 다 왔음을 알려준다. 인상 선한 사람은 열차가 역에 도착하기 전에 1층 침대 상판을 들어 짐을 꺼내고 두꺼운 모피를 입고 테이블에 놓았던 먹을 것들을 정리했다. 차장에게 받은 침구는 반납하고 까는 이불과 덮는 이불을 접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본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짐 싸는 것도 도와주고 배웅도 해줬다.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한 명은 짐을 밖으로 들어줬다.

창밖으로 보면 탑승구 위치도 표시되지 않은 승차장에 많은 사람이 서 있다. 많은 짐을 열차에서 내린 뒤 밖이 춥지도 않은지 멈춰서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쿨하게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국제공항 입국장이나 출국장처럼 격하게 반기거나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열차가 노보시비리스크를 지나고 어떤 역에 멈추기 전에 많은 사람이 떠날 채비로 분주했다. 많은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사람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다. 그리고 여행의 목적이 새로움을 겪는 데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이 오가는 건 괜찮은 일이다. 그런데 이날은 유독 헤어짐이 아쉬웠다.

만남

많은 사람이 떠난 자리는 곧 다시 채워졌다. 내 윗자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침구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윗자리 사람이 온 걸 보고 나서 테이블을 만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여튼 새로 온 위층 사람은 내 앞에 안긴 했지만 나를 향하진 않았다. 복도를 향해 앉아서 손을 밖으로 펼쳐 보이거나 머리를 감싸는 쥐곤 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늘 이랬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바로바로 자리를 정리하지 않았고 나를 향해 앉지도 않았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은 고생한 티가 났다. 옷도 해져있었고 이도 잘 관리되지 않았다. 피부도 좋지 않았고 손도 크고 거칠었다. 그는 일어나서 잠자리를 만들고 등산화같이 두꺼운 신발을 대충 벗더니 갑자기 바지를 훌렁 벗었다. 바지 속에 열차에서 편하게 입을 바지를 하나 더 입고 있었다. 그리곤 잤다.

나는 아래 누워서 위에 사람과 어떻게 지낼지 말 그대로 계산하고 있었다. 내 또래 같아 보이는데 인사는 하고 지낼지 아니면 금방 내릴지 모르

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을지 고민했다. 조용히 있으면 지난번에 탔던 사람처럼 내가 있는 아래 칸에 안 내려올 거라는 계산을 했다. 아래 안 내려오면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 나는 계속 편하게 누워갈 수 있다.

머릿속으로 이거저거 생각하는데 위에 사람이 내려왔다. 그리고 내 이 부자리를 위로 올리라는 시늉을 했다. 별수 없었다. 조용히 누워갈 생각을 포기하고 인사라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람은 앉은 뒤 가방에서 먹을 걸 꺼냈다. 당근이 주로 들어간 요리와 훈제한 거 같은 돼지고기와 소시지 그리고 빵과 삶은 계란이었다. 컵도 식기도 가방에서 나왔다. 나에게 먹을 거냐고 권한 걸 한 번 사양했는데 그 뒤로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야생적으로 먹었다. 인스턴트만 먹고 있었기에 엄청 맛있어 보였다.

인사도 하고 대충 의사소통을 했다. 나와 같이 모스크바까지 간다고 한다. 혼자 조용히 누워가긴 글렀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에게 차를 권했다. 물론 한 번 사양했는데 재차 권하지 않아서 마시는 것만 쳐다보았다. 차까지 마시니 이제 자기는 올라가서 잔다는 몸짓을 한다. 나도 다시 이 불을 깔고 누웠다.

동행

내일이면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드디어 거지꼴을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면도하고 머리를 감았다. 웬지 쓸모가 있을 거라는 축이 와서 다 먹고 버리지 않은 견과류 캔이 있었다. 축 대로 이날 머리를 감기 위한

바가지로 잘 씻기에 꽤 뿌듯했다. 그리고 별 준비 없이 사 온 음식인데 얼추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은 점도 마음에 들었다. 한 생명으로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능숙하게 생명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흡족함이다.

1층에 누워있으면 복도로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호그와트 마냥 컵만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 그렇게 누워있다가 낮이 되면 이 층에 있는 사람이 아주 살포시 발끝으로 바닥을 감지하며 내려온다. 어제 새로 탄 사람이 내려왔다.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서로 마주 보고 앉았다. 그는 위 칸에서 자기 짐을 꺼내는데 한쪽 신발을 벗고 1층 자리를 밟고 올랐는데 당연한 이 모습이 여기서는 그렇게 사려 깊어 보였다. 심지어 금연도 지켜서 역에 정차할 때만 담배를 피웠고 손톱도 잘 정돈되어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려와서 밥 먹고 황급히 올라가서 누운 게 아니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학부 시절 교양으로 러시아어를 아주 조금 배워서 쉬운 단어 몇 가지를 알아먹을 수 있었고 뭘 욕심에서인지 러시아어 교제를 가지고 왔기에 책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구글 번역기도 꽤 훌륭한 방법이었다.

허름하고 순박해 보이는 그는 지금 일자리를 향해 모스크바로 가고 있었다. 군대에 몸담았고 트랙터도 몰며 용접 자격증도 있었다. 지난번에 내 위에 있던 어린아이와 다르게 몸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 몸을 곧추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몸을 늘 긴장에 두고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게 습관 들어서 말이다. 이런 것에 비하면 나는 참 유약한 사람이다. 사실 몸 쓰지 않는 일이 없다. 하다못해 책 읽기도 몸이 튼튼해야 더 오래 많이

읽는다. 학부를 졸업하기까지 나는 몸이 힘든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부끄러운 일이다.

간절한 눈빛을 보내 그에게 밥을 얻어먹었다. 인스턴트만 먹다가는 죽을 거 같았기 때문이다. 비계를 때지 않고 긴 막대 모양으로 자른 훈제 돼지고기는 짜고 씹다 보면 엄청 질겨졌다. 다른 요리들도 엄청 짜서 빵으로 짠맛을 씻었다. 빵은 유치원에 있던 플라스틱 빵 장난감처럼 생겼는데 분명히 맛도 둘이 비슷할 거다. 그는 손에 묻은 기름도 빵에 씻어 먹고 독일산이라고 나에게 캔디를 권했다. 어제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넌름 받아먹었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셨는데 봉투를 젓개로 썼다. 종이컵에 맥심을 넣고 껌질로 휘휘 젓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닌가 보다.

사과 소년

모스크바 시간대에 들어왔다. 얼어 있는 강이 낯설지 않다. 낮에 잠을 안 자니 시간이 참 안 갔다. 여행이 끝나면 이 지루한 시간이 생각날 건 분명했다. 그러나 금세 아쉬워했던걸 까먹어 다시 여행을 가면 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거다. 졸업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철학과에 다닌 시간들이 흐릿하다. 철학과에 오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 오게 되었는지도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 그때 얻고 싶은 걸 난 얻었나? 가고 싶던 곳에 가까워졌을까?

복도 건너편에 앉은 20살 남짓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사과를 주고는 갑자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열차가 출발했는데 사과를 준 사람이 없으

니 차장이 찾았다. 사과 소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곧 사과 소년이 돌아왔다. 그와 있을 때는 메모를 하지 못해서 기억에 의존해 말할 수밖에 없다. 사과 소년은 내가 열차에서 만난 사람 중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과 소년도 내가 흥미로웠던지 내 앞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둘이 자리를 바꿨다. 유치원 수준이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즐거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사람은 소통하고 살아야 한다.

사과 소년은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있다고 했다. 지리학을 전공한다고 한다. 아까 사라진 건 다른 칸의 친구들과 식사를 해서란다. 삼촌이 영국에 살고 자신도 영국에서 유학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했다. 그나마 카자흐스탄보다야 러시아가 공부하기 괜찮고 소련으로 묶여있던 시간도 있으니 인적 교류도 어느 정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러시아로 왔다고 했다. 그리고 김기덕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 외에 몇 가지 영화를 보았다고 말했다. 특히 6.25 전쟁을 다룬 영화가 흥미로웠다고 했다. 나는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복도 건너편에는 내 위층 사람과 그의 친구가 앉아있었다. 그들은 앞에 사람이 읽다 놓은 책을 집었고는 글을 손으로 집어가며 읽었다. 그러고는 재미없는 책이라는 듯 책 표지에 대해 뭐라고 했다. 그의 친구는 내 신발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는데 사과 소년의 말로는 신발 끈이 좌우 비대칭인 내 신발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한 말이란다. 사과 소년은 불편한 눈

치로 그들이 덜 배웠다고 했다. 나는 잘 배운 너가 그러러니 하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뒤로도 사과 소년은 은연중에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란 생각을 드러냈다. 사실 사과 소년이 나에게 사과를 주고 나에게 메신저 아이디를 물어본 것도 사실 외국인 하나와 이야기해보았고 연락처도 안다는 사실이 좀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서일지도 모르겠다. 여튼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 소년은 카자흐스탄 전통 털모자를 쓰고 떠났다. 시덥잖은 말을 많이 해서 끝 맛이 좋지 않다.

나눔

사과 소년이 떠난 뒤 위층 사람은 누워있었고 나는 마지막 남은 “도시락”을 먹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인스턴트 감자 튀레를 먹고 나면 음식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설국 열차에서 양갱 같은 음식을 먹는 것에 비하겠느냐마는 정말 인스턴트로 보낸 지난 시간과 좁은 3등 객실 거기에 추운 눈발 위의 철도라는 점은 설국 열차를 떠올리게 했다.

내가 열차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조심스럽게 바닥을 찾는 위 칸 사람의 발이 보였다. 나도 재빠르게 잠자리를 돌돌 말아 위의 침대에 엎고 일층 침대의 가운데 부분을 들어 돌려서 탁자를 만들었다. 위층 사람은 자신의 더플백에서 먹을 것들을 꺼냈다. 빵은 지난 역에 정차할 때 새로 산 건데 역시나 소꿉놀이에 있는 플라스틱 빵 맛이 날 게 분명했다. 문제는 그가 통에 담아온 요리가 상했다는 거다.

이미 언어먹은 게 있기는 하다만 꼭 그래서 내 감자 튀레를 나눈 건 아니다. 사과 소년도 위층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음식을 나에게 나눴는데, 사과 소년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내 음식을 나누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사과 소년은 자신을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도움을 꺼리거나 도움받은 사실을 좋게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나에게 변명하면서 아침에 먹을 감자 튀레를 아꼈을 거다.

사과 소년과 위 칸 사람을 보며 소통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덜 배웠다고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사과 소년은 어느 정도 배워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고 내가 사는 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있었던 것에 반해 위층 사람은 말이 통하기는커녕 음식도 재차 권하지 않고 쿨하게 먹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음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각을 더 명확하게 소통할 가능성이 높은 사과 소년이 아니라 원시적인 의사소통밖에 할 수 없는 위층 사람이었다는 점을 보며 나는 언어나 매너 같은 소통의 도구가 아무리 잘 갖춰있어도 소통할 수 없을지 모르고 또 말과 문화가 아무리 달라도 공감할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선입견

예비군 훈련에 가면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다. 나보다 어린데 결혼한 사람이 한둘은 꼭 있는 것도 좀 어색한 일이지만 신기하게 어디서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만 골라 온 거 같다. 어칠어칠하며 동네에서 껌 좀 씹는 형님의 느낌을 풍기는 사람도 참 많다.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 치면 더워죽겠는데 거추장스럽게 보호장구도 차고 하니 정말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제대로 하라는 교관 아재의 외침은 뒤로 하고 몇 걸음 걷고 총알을 다 소진하고 죽었다고 내려온다. 아 물론 개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시베리아 횡단 철도 안에서도 어칠어칠하는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꽤 있었다. 예비군에서 본 아재들 같은 느낌? 다르게 표현하면 뉴욕의 마피아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상한 색 튜리링을 입고 낮에 거리를 배회하는 직원들 있잖나? 카페에 앉아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지들끼리 히히닥거리거나 결국 강도질인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마냥 쑥덕거리거나 그런 사람들. 물론 열차 안에는 눈에 띄이지 않는 사람이 많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버스라도 탄 것마냥 한 무리의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서로 눈짓하며 담배 피로 가는 일들이 이상하게 많았다.

예비군이 마피아 같다는 말도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 여행 버스가 마피아 버스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어떤 느낌을 전달해 보려고 한 거다. 뭔가 규율 잡히지 않고 험령한 느낌? 드라마나 영화에서 괜찮게 그려지는 사람에게서 잘 느껴지지 않는 성품을 설명하고 싶었다. 물론 여기에는 마피아나 고등학생이나 예비군에 대한 내 잘못된 시선이 들어있다. 나는 그렇게 공명정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내 느낌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면서 그런 편견들을 알아차린 게 다행일 뿐이다.

내 편견이겠지만 먹을 것도 나누고 배터리 충전도 도와준 내 위층 사람에게도 이런 묘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살짝 불안하기도 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종착역의 지리를 잘 알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내가 먼저 내려서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닌지 혹은 이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뒤늦게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같은 걱정을 했다. 이 사람의 친구가 근처에 있을 때는 더 신경 쓰였는데 가끔은 무슨 작당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는 나를 해칠 생각을 지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문제에 빠지고 싶지 않은 욕구가 너무 커서 남에게 상처 줬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 되었든 내일은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위 칸 아재는 더플백을 꺼내서 짐을 정리했다. 일을 찾으러 먼 거리를 가는 중이어서인지 그의 가방에는 포크에서 세계까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었다. 그 가방을 보며 난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거의 망가졌기에 인천에 도착하면 하나 살 생각을 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많은 걸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여행의 느낌을 내볼까 하고 등산 가방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사기로 마음먹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 튼튼하고 맬 수 있는 끈도 많이 달려 어디든 떠날 때 좋은 가방을 사면 꽤 의미 있는 일 아닌가. 비싼 돈 들여 여행하며 생각한다는 게 가방 산다는 거다. 내가 생각해도 참 철이 없다. 자연농원 가서 기념품만 생각하는 꼬맹이에서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예비군 아재들이 이상하다고 뭐라고 할 내가 아니다.

마지막날

서울에는 서울역이 있는 것과 다르게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

역이 없다. 모스크바에서 역 이름은 그 철도의 종착지 이름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처음에는 야로슬로블까지 갔기에 나는 모스크바에 있는 야로슬로블 역에서 내린다. 그런데 야로슬로블에도 야로슬로블역이 있다. 내가 탄 열차는 야로슬로블역에서 마지막으로 5분간 정차하고 4시간 동안 종착역까지 쉬지 않고 간다.

야로슬로블 역에 도착하기 전에 화장실도 가고 내복도 껴입었다. 짐도 다 정리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지금까지 봐왔던 늘 같은 풍경을 보면 된다. 하지만 해가 뜨는 시간이니 해의 위치에 따라 풍경들도 미묘하게 변화하니 지루한 일은 아니다. 일주일을 살 부대끼 열차인데 웅하니 내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헤어지는 것도 좋다.

미리 작별 인사를 한 위 층 사람도 짐 정리를 하고 내 앞에 댄스 음악을 틀고 어색하게 앉아있다. 그는 그냥 쿨하게 떠날 거 같았다. 무언가에 의미를 두고 마음 쓸 사람이 아니다. 그때그때 앞에 놓인 상황에 맞춰 사는 사람. 어떻게 말하면 계획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쿨한 사람일 수도 있다. 사실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소중히 하고 기억하는 게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거다. 집에 있는데 까마귀가 울었다면 흥조라고 생각하고 마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자연이 그런 데에는 별 이유가 없다. 그냥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게 무병장수하는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모스크바까지 86km 남았다. 차장은 사람들에게 차표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30분이 남으니 이제 제법 도시 외곽 느낌이 난다. 조그마한 역을 지날 때마다 꼭 한두 명씩은 철로를 건너 승강장에 기어올라가는 게 보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것도 보이고 정차 중인 전철도 많이 보인다.

분주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과 건물이 서서히 높아지는 게 보인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내가 탄 열차는 도착해야 할 시간에 정확히 멈췄다. 위층 사람은 작별 인사를 건네고 먼저 내렸다. 나도 외투를 입고 가방을 메고 열차에서 내렸다. 물론 승강장을 디뎠을 때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다. 모스크바의 공기는 블라디보스토크보다는 덜하지만 매캐했다. 차장이 나와서 사람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차장이 이렇게 따듯한 미소를 짓는 건 처음이다. 그리고 끝이다. 열차 앞에 갈 수 있는 철로는 더 이상 없다.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혼자 짐을 들고 역에서 멀어지거나 마중 나온 사람들과 깊은 포옹을 한다. 연고도 없는 땅에 날 마중할 사람은 없으니 일단 사람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걸었다.

4장

지구에 육박하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2

승차

나는 “정말로 끝인” 역이 익숙하지 않다. 전철의 종착역뿐 아니라 서울역이나 용산역, 청량리역은 선로가 끝나지 않는다. 끝이란 의미를 지닌 터미널을 생각하면 도로 끝이 보이는 버스 터미널이 생각날 뿐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종착 역은 모두 터미널 형태다. 심지어 두 역은 디자인도 같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지구 둘레의 사분의 일. 지구 규모를 체험할 수 있는 열차에 탔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닥터 지바고」

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지닌 문화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영화 「닥터 지바고」를 본 정도다. 이 영화를 보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보지 않아서 그 거리감을 모르고 한 소리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멀다고 하는데 체험할 수 없으니 감이 잘 안 온다. 내가 도시에 살 때는 버스 몇 정류장 혹은 지하철 몇 개 역 정도가 감이 오는 거리였다. 좀 외진 곳에 살고 이동 거리가 늘어나니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보다 긴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기준으로 한 거리감이 생겼다. 버스 정류장 3개라고 말하듯이 중간에 진출입로가 3개 있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거리감은 직접 몸으로 디벼봐야 느껴진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내가 직접 걷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열차가 주기적으로 덜컹거리는 소리와 진동 그리고 눈높이에서 지가는 풍경들

을 통해 거리감을 체감했다. 정말 엄청난 규모다. 단순히 지평선이 보여서 하는 말이 아니다. 열차는 침엽수림을 지나가니 탁 트인 풍경을 볼 기회는 적다. 하루 정도는 같은 풍경에 지루해지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계속 같은 풍경이 지나간다는 사실에 두렵다. 나는 평소에 이렇게 넓은 규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두 연인은 모스크바에서 처음 만나고 대륙을 관통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두 사람의 사랑이 흠뻑러지는 매체가 바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인천과 뉴욕을 오가는 연애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한 시베리아 위에서라면 좀 다른 느낌이다.

좀 다른 느낌이 드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의 차이인 면이 크다. 한두 사람한테 일이백 사기 치면 잡범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슈킹하면 위대해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평온한 환경에서 큰 규모가 아니라 정말 사람 살기 힘든 곳에서 큰 규모다. 얼고 녹으면서 꿀렁이는 땅 위에 억지로 올려놓고 관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 위에 두 발 딛고 사랑하는 건 비행기의 카펫이나 휴게소의 아스팔트와는 애절함도 위태로움도 다르다.

부설하는 건 뒤로하고 전철화하는 데 7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건 이 철도의 규모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 규모답게 지금도 철도 위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곳이 잘 없다. 평소라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겠지만 이 철도 위에서는 그럴 수 없다. 생각나는 말들과 궁금한 것들

을 한자 한자 적어놓고 휴대전화 신호가 잡힐 때 짹짹 보내고 이전에 보냈던 메일의 답장을 읽었을 즈음 신호가 끊겨 다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시간을 두고 여러 말을 쏟아내니 서로 이야기가 엇갈리기도 한다. 만약 오해라도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베리아만 보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닥터 지바고」의 두 연인이 느낀 애끓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

시베리아와 그리스 1

『방법서설』 3부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이 모든 걸 의심하고 있지만 따라야 할 건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온건한 의견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부분을 읽고 데카르트가 유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방법서설』을 읽기 전에 읽은 『만화 데카르트 방법서설』에서 데카르트가 병약하게 그려진 기억이 남아서이기도 하다.

나는 난방 잘 되는 열차 안에서 시베리아를 바라보았다. 기껏해야 역에서 정차할 때 잠깐 밖에 나가거나 두꺼운 창에 맺히는 결로나 번기 물 내릴 때 아래로 보이는 철로를 보면서 시베리아를 겪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역에 도착하기 전에 열차가 멈추면 얼마 못 살 거 같았다. 그리고 창밖에 보이는 저 들판 위에 내가 록 하고 떨어진다면 시베리아에 사는 다람쥐 밥이 될 거라고 보았다. 그만큼 이곳은 혹독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존재는 강력해 보인다.

매서운 자연을 몰아내고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건 굳이 시베리아

별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살기 어렵다는 건 문만 열어봐도 알 수 있다.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걸 의식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는 집 같은 공간이다. 공간은 사방이 막히면 별 의미가 없으니 문이 꼭 필요하다. 이곳의 문은 추운 외기를 막기 위해 무겁기도 하거니와 문 끝에 날개를 돌려서 한쪽으로만 열린다. 문 여는데 힘들 뿐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하다. 이곳은 살면서 꼭 필요하고 빈번히 해야 하는 문 여는 일조차 녹록하지 않은 동네다.

나는 좀 아쉽지만 지금까지 사는데 문제없는 것들을 개선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았다. 문 열기 귀찮으니 자동문이 생긴 건 참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이런 살벌한 동네에서 이미 살고 있는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방법이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지만 까딱 잘못해서 실수했다가는 어느새 시베리아 일부가 되어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자동문이 편하다고 설치했는데 고장 나서 안 닫히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팔자 좋게 열차 안에 있으면서 다음 목적지인 그리스를 생각했다. 날 좋은 그리스에서 모든 걸 의심하는 행동이 혹독한 시베리아에서 의심 없이 관습을 따르는 일보다 어렵거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좋아 보이는 새로운 해결책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기존 방법을 고수하는 거의 원인이 덜 배웠다거나 유약하거나 개을러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력과 우연

새벽에 열차가 이르쿠츠크 역에 멈췄다. 나는 이르쿠츠크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추운 장소로 소개되었고 가장 춥다는 대표 성질 덕분에 시험에도 자주 등장했다. 세계지리 선생은 수업에서 이르쿠츠크가 나올 때면 오줌 싸면 얼어서 기둥이 된다는 소리를 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르쿠츠크를 지나간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러시아의 독특한 거소 신고 제도 때문에 이르쿠츠크를 상기했다. 러시아는 비자만 받았다고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행 중 거소를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출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열차 안에서는 당연히 거소가 없으니 문제가 생길 거 같았다. 러시아 대사관이나 외교부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서 중간에 하루 머물 호텔을 찾다 이르쿠츠크가 눈에 걸렸다.

이르쿠츠크가 눈에 걸릴 때부터 이번 여행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어찌면 세계지리 덕후라면 한 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이르쿠츠크 아닐까? 정말 세계지리 환자라면 이르쿠츠크에 가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햄버거 포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그렇다. 철도 덕후라면 이 기차 여행을 죽기 전에 한 번 해보고 싶을 거다. 그런데 나에게 이르쿠츠크는 출국할 때 귀찮은 일을 면할 곳일 뿐이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오로라를 보러 가면서 값싸고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계지리 덕후나 철도 덕후에게 꿈

같은 일을 한 건 아니다. 하다못해 뭐라도 조금 배우고 경험했으니 트롬쇠 가는 길에 기차 탈 생각도 하고 여정도 꾸릴 수 있던 거다. 그렇지만 내가 이 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건 없다. 노르웨이를 직항으로 가는 거나 여기저기 끊어서 가는 거나 가격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을 때 나에게 갖춰진 것들이 이번 여행을 위해 조합된 것뿐이다.

나는 목적인 게 얼마나 이루어지나 싶다. 유치원 때는 다 대통령 된다고 했고 드라마 「카이스트」가 유행하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모두 카이스트에 간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모두 스카이에 가고 싶어 했고 학부 졸업할 즈음에는 모두 돈 많이 주고 제때 쉬는 회사에 가기 원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잖나. 그럼 그 사람들은 노력을 덜 한 걸까? 노력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그럼 그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동화 같은 세상이 아니다. 노력했다고 일등 하는 건 아니고 일등했다고 노력한 것도 아니다. 운도 노력이라고? 그건 맞다. 열심히 노력하며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안 군과 책가방도 없이 탕자탕자 학교 다니는 김 군이 같이 걸어가다 하늘에서 돈 비가 내리면 노력하는 안 군이 가방에 더 많은 돈을 담는 건 분명하다.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내가 노력한다고 꼭 이뤄지지 않는 목표를 향하고 결과가 내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 큼 허무한 일도 없다.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노력 하나하나가 나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지금 인내하고 노력하는 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은 그

과정을 긍정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시차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양 끝인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시차는 7시간이다. 열차를 타면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이 바뀌는 걸 체험할 수 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시계가 느려지는 건 황당한 경험이다. 하루에 한 번만 들어도 짜증 나는 아침 알람이 두 번 울릴 수도 있고 밥을 먹었는데 또 밥때가 온다. 그러니 시계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 처음에는 시차가 조금씩 바뀌는 게 좋을 거 같았는데 시간이 바뀌는 건 1시간이나 9시간이나 똑같이 피곤하다.

어렸을 때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각색한 만화를 읽었다. 주인공이 친구들과 80일간 세계일 주를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이야기다. 물론 주인공은 가능하다고 하고 지구 한 바퀴는 돌았지만 81일째에 도착했다. 주인공은 망연자실했는데 사실 시차 덕분에 하루를 벌어서 내기에서 이긴다. 이 만화를 볼 때는 이 시차가 그렇게 궁금했다. 궁금했으나 저 소설의 주인공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시차를 체험하겠다는 포부는 갖진 못했다.

사실 시차가 궁금했던 건 휴일을 더 오래 겪고 싶은 놀부 심보 때문이다. 해가 더 빨리 뜨는 서울에서 12시면 베이징은 11시니 휴일이 끝나기 전에 베이징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베이징의 휴일이 끝나기 전에 또 서쪽으로 가는 거다. 날짜 경계선을 몰라서 이러면 영영 실 줄 알았다.

달콤한 건 또 먹고 싶고 재미있는 거나 흥미로운 건 또 보고 싶다. 시차는 어렸을 적 나에게 늘 쉬고 싶은 동화적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준 아주 흥미로운 대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난 이 흥미로운 시차를 아주 물리도록 경험했다. 어렸을 때는 초콜릿을 하나씩밖에 먹지 못했는데 어른이 돼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예비씨 초콜릿 한 봉지를 물리도록 먹는 경험과 비슷하다.

예비씨 초콜릿 한 봉지와 시차를 한 번 경험하는 걸 비교하면 규모의 차이가 너무 난다. 규모가 더 큰 시차가 좀 아깝다. 그러니까 시차를 이렇게 물리도록 경험한 건 그냥 적당히 숨 붙이면서 나이 먹어서 된 일 아니다. 그런데 나는 적당히 숨 붙이고 살기만 했다. 내가 신나는 경험을 물리게 할 수 있는 데에는 부모를 포함해서 참 많은 조력자들 덕분이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한편으로 아무리 도움을 주고 등 떠밀어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만들 순 없다. 그러니 이 여행에서 내 지분을 아주 조금은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적당히 숨 붙이고 살았다고 평가한 내 과거도 그렇게 허접한 것만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허접하다고 생각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했다. 여기에는 맥빠지는 가로 풍경이나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끈대질이나 하는 아재와 이상한 투표를 하는 까스통 할배 같은 부류가 포함된다.

귀납

삼일 정도 있으니 열차 생활이 꽤 몸에 익었다. 낯선 것들이 익숙해질 때쯤이 되면 이제 변하는 건 없고 모든 건 이대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음에 할 일을 걱정하게 된다. 나는 모스크바에 내려서 뭐 할지를 고민했다. 오로라 보는 것의 보너스 격이니 테트리스에 나온 궁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모스크바가 가까워 오니 욕심이 난다.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역에 정차하는 오분에서 십분 남짓한 사이에 열심히 정보를 갈무리하고 열차가 출발하면 읽었다.

당연히 배터리가 남아날 리가 없다.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배터리가 없으면 숙소도 찾아갈 수 없고 추운 환경에서 효율이 더 떨어지니 배터리를 잘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이 열차 안에서 충전하기는 녹록하지 않다. 콘센트 때문에 열차 안에서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나도 반나절은 충전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날 내가 가장 신경 쓴 건 배터리 충전한 일뿐이다.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잊고 하루 종일 콘센트만 훑고거리고 있었다. 문득 썬들 들어서 시베리아까지 왔는데 배터리 충전에 마음 쓰고 있는 내가 안쓰러웠다. 그래서 가진 배터리를 계산해 봤다. 노트북의 배터리와 외장 배터리 하나가 있으니 이걸 조금씩 아껴 쓰면 도착 전에 휴대폰을 절반 넘게 충전할 수 있는 계산이 섰다. 충전은 이제 그만 신경 쓰기로 했다.

난 배터리나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도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알고 있었다. 딱 한 달만 지나면 충전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지나간 열차의 소리나 냄새, 사람들의 온기, 창밖 풍경들이 엄청 그리울 걸 알았다.

한편으로는 여행 와서 배터리 충전에 한눈판 걸 당장은 후회해도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 어려서 그랬다며 추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까운 시간을 부여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다. 내가 목적 없이 아무거나 해도 열차는 모스크바를 향하고 있다. 뭐하나 똑 부러지게 못 해도 결국 나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니 뭔가 하나라도 더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을 열차가 나를 대신해서 지어준다.

고작 삼일 반복된 환경에 익숙해졌다고 어찌할 바 모르던 나는 곧 창밖을 낮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시베리아 위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 쌓인 눈이야 널렸지만 눈 내리고 있으니 또 다른 세상이다. 늘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나는 또 익숙한 지금이 계속될 거라고 속단하고 말았다.

나태

열차로 시베리아는 건너는 건 다시 못 할 짓은 아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어 중간중간 눈치를 보며 조용히 내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조금 귀찮을 뿐이다. 도착 하루 전이 되니 『론리 플래닛 시베리아 횡단 철도』 표지에서 본 풍경이 창밖에 나타난다. 모스크바에 가까워서인지 철도와 관련된 디자인이 회색 바탕에 빨간색 기호나 선으로 통일되는 것도 보인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스크바 향한다는 마음에 걱정이 덜했고 그래서인지 시간이 잘 가지 않았다.

아직 여행이 한참이나 남았다.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진 엄청 긴 거리를 거의 다 이동했다는 생각을 하니 여행이 하나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나는 끝난다는 생각이 들면 그간 있던 일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곤 하는데 지금 당장을 보지 못하고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습관이다. 내가 보낸 시간들이 늘 좋지는 않을 텐데 본전 생각에 어떻게든 지난 시간에서 의미를 짜내서 박제하려는 점에서도 그렇다.

어렸을 때 우리 집 안방에는 삼성 텔레비전이 있었다. 브라운관 하단 중앙에는 “SAMSUNG”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영어를 배우지 못한 어린이집 다니는 꼬맹이였고 추측건대 저 영어는 분명 삼성이라고 읽는 거 같았다. 영어와 한글의 음소가 각각 7개와 6개로 다른데 왜 똑같이 “삼성”으로 읽는지 궁금했다. 이런 꼬맹이가 어설피게 영어도 배우고 러시아 알파벳도 읽을 줄 알며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다는 건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철학과를 졸업하고 정신이 빠진 건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못 할 거 같은 과제도 기한이 닳치면 해결되거나 정말 못 건딜 거 같은 상황도 실상 처하면 어떻게든 살게 된다는 걸 그 조금을 살면서 경험하고 은연중에 기억하는 게 원인이다. 결국 어떻게든 된다는 생각은 쓸모없는 걱정할 필요 없는 생각으로도 이어진다. 그러니 뭐라도 하고 끝나면 잊지 말고 내 말로 짧게라도 정리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을 처했을 때 되돌아볼 수 있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부단

난 살면서 기차를 탄 기억이 별로 없다. 세 번 타봤다. 그렇다고 기차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승강장이 밖으로 노출된 역에서 전철을 탄다 치면 제일 끝 쪽으로 가서 다가오는 열차 보는 걸 좋아하고 혹여 통과하는 기차가 있을 때면 즐겁다. 수원역에서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전철 말고 기차 타고 갈 생각을 하기도 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위에서 마지막 날이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주변 풍경은 한결같이 눈과 나무고 휴대전화 신호는 여전히 역 근처가 아니면 안 터진다. 종착역에 도착하면 기차를 161시간 11분 동안 탄 거다. 이제 어디 가서 기차 못 타보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철도 위에 있었던 시간만큼 이 철도를 가까이에서 생각할 시간도 많았다.

열차 안에서 만났던 사람이나 사건들 혹은 화장실이나 온수기 같은 열차 일부는 철도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그냥 길다. 길이만 생각하면 비교할 인공물이 없다. 시베리아 철도 위에서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많은 것들은 길다는 속성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같이 놓고 보면 보이지도 않는다.

이 긴 길이 동안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늘 같다. 간격을 늘 유지하는 두 레일이 시베리아 철도 안에 한 군대도 빠지지 않고 있다. 만약 어딘가 빠져있거나 레일이 같은 간격을 유지하지 못했으면 열차는 탈선했을 거다. 그리고 열차는 철로를 따라 항상 덜컹거리면서 나아간다. 철도 위에서 나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철도가 만드는 주기적인 진동을 몸으로 느낀다.

나는 늘 꾸준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책상에 앉는 일

도 하루 종일 앉아있지 못한다. 노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스노보드 타는 게 좋아도 계속 내려오기만 할 수 없다. 아무리 긴 슬로프도 끝나기 마련이고 체력도 버티지 못한다. 그나마 마음가짐은 꾸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책상에 앉던 슬로프를 내려오던 마음속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생각은 늘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위에서 일주일 동안 연속된 경험을 하니 내가 부단한 자세를 지니지 못한 건 그냥 내가 나약해서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슬로프는 끝이 나니 길게 오래 보드 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체력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내려올 수 있는 슬로프가 있다는 사실을 안 거다.

늘 이런 정리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내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는 사람 혹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지러운 세상은 놓아두고 그나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신만 들여다보며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 같다. 힘들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점과 아무리 완벽한 사회라 해도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져있기 마련이니 실패는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긍정적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들과 구분하지 못하겠는 것도 사실이다.

하차

남은 거리는 107km, 시간으로는 1시간 30분이다. 철도가 기

니 헤어지는 시간도 길다. 헤어지기 싫은 것과 더 있고 싶은 건 다르다. 헤어지기 싫은 건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거고 더 있고 싶은 건 건설적인 거다.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아쉬웠던 건 헤어지기 싫기 때문이다. 꽤 긴 거리를 쉬지 않고 움직이니 관성이 생겼다. 시간으론 길지 않지만 계속했던 거니 그냥 이대로 변화 없이 쪽 가고 싶었다. 새로운 곳에 가면 또 긴장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니까 말이다. 오로라를 보기 위한 여행이 어느새 시베리아 철도 위에 끈끈하게 적체되었다.

규모가 크면 빈틈이 있을 법도 한데 열차는 조금도 늦지 않고 종착역에 멈췄다. 철도의 끝은 삭막하게 잘려있다. 내가 오른 철도는 엄청 기니 좀 다르면 좋겠다는 건 내 생각일 뿐이다. 내가 떼 쓴다고 이 긴 철도가 눈곱만큼도 길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 긴 구간 동안 끊임없었던 철도는 끝나야 할 곳에 와서는 디지털 신호처럼 잔영도 없이 사라진다. 승강장에 내렸다. 지금까지 긴 거리를 그래왔듯이 움직였다.



<그림 3> 시베리아 횡단 열차 내부



5장

묘한 빛나감

모스크바

지하철

횡단 열차에서 내려 사람들 무리에 휩쓸려 가는데 기름지게 생긴 경찰이 나를 잡으며 “빠스쁘르뜨”라고 말했다. 아마 러시아어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러시아에서 경찰이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꼭 두 손으로 여권을 잡고 보이라고 했다, 아니면 여권을 채가서 귀찮게 군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다시 길을 나섰다.

종착역에서 지하철로 가는 지하보도는 좁진 않지만 낮다. 조금 더 걸어가니 개찰구가 보인다. 표 사는 곳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자동 발권기가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 걸로 보인다. 모스크바의 버스크드 이름은 “뜨로이까”다. 뜻은 삼두마차. 우리나라로 치면 “티머니”가 “마차”나 “가마”인 꼴이다. 내가 가본 모든 지하철역에는 공항에서나 보던 금속탐지기와 가방 안을 살필 수 있는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었다. 하긴 블라디보스토크도 공항이나 역에 들어갈 때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해야 했다. 아마 테러에 대한 반응일 거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계단을 올라가서 마주친 생각하지 못한 실내 규모에 폭행당했다. 높은 돔 형태의 흰 천장과 장식 그리고 거대한 조명은 지금까지 삼등 열차에서 느꼈던 러시아의 느낌이 아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얇게 저민 나무를 발라놓았다. 승강장도 잘 꾸며져 있다. 여러 장식이 있는 승강장은 크고 넓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공중에 전선이 있는 전철이 아니어서 터널이 작은 게 역을 더 높게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러시아의 지하철은 정말 크고 아름답다. 단점도 있다. 열차가 시끄럽고 천장에 구멍이 여러 개 있어서 터널의 공기와 소음이 그대로 들어온다. 열차 안에

서 지금 정착한 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환승역 이름이 노선 따라 다른 건 불편하다.

성 바실리 성당

입실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붉은 광장에 갔다. 광장에 들어가는 길에 국립 역사 박물관을 지난다. 광장 중앙에는 임시로 만든 회전목마와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아직 연말 느낌이 난다. 회전목마와 스케이트 장을 두르는 벽에는 소련을 선전하는 전단에서 볼 수 있는 그림체로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을 그려 놓았다. 광장에 들어서면 맞은편으로 성 바실리 성당이 보이고 왼편으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인 굼, 오른쪽으로는 레닌 묘와 크렘린이 보인다.

다른 것들은 내일 둘러 보기로 하고 오늘은 짤막하게 성 바실리 성당만 둘러보고 여독을 풀기로 했다. 그러나 역시 본전 생각에 꼼꼼하게 둘러보느라 시간을 꽤 보냈다. 그리고도 시내를 좀 걸었다. 욕심을 버렸어야 다음날 허리가 안 아팠을 거다. 애초에 오로라 보는 거 외에는 보너스 일정이다. 모스크바에서도 그냥 푹 쉬다 떠나려고 했는데 나도 욕심이 참 많다. 이럴 거면 차라리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고 여행을 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성 바실리 성당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 보이는 것도 없다. 테트리스 속 그 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당 안은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성당에 관한 것뿐 아니라 러시아의 역사나 문화에 관한 내용도 엿볼

수 있다. 열차에서 생활하면서도 생각했지만 러시아를 설명한 글을 보니 참 나는 러시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냥 하얀 피부에 푸른 눈이니 교과서에 나오는 서양 사람과 같은 족속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다. 성당 내부에는 눈에 익지 않은 모양과 색이 많다. 그리고 모자이크나 조각보다는 나무에든 벽에든 단순한 무늬에서부터 사람까지 뭔가 그려놓은 게 많고 눈에 잘 띈다.

스케치 2

바실리 성당을 나와서 아르바트 거리로 향해 걸었다. 모스크바 거리도 바실리 성당 안처럼 칠로 마감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띈다. 상아색이나 옥색으로 마감한 건물들은 자동차가 눈 녹은 더러운 물을 튀기면 그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감한 건물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가 보다. 차라리 돌로 마감했으면 흙탕물 튀 정도는 비 한번 오면 깔끔해질 텐데 그렇지 않은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차가 엄청 막힌다. 여기서 버스를 타는 건 정신 건강에 썩 좋지 못하다. 몇 가지 더 말하면 우리나라는 도로에 가설 매장을 만들면 전선을 그냥 널브러뜨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데 이 곳은 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선을 정리하는 게 관찮아 보이고 옛 소련의 심장부인데 스타벅스가 보이니 어색했다.

체크인하고 간단히 먹을거리를 샀다. 마트는 소련 시절 배급이 빵꾸 난 것마냥 매대가 드문드문 비어있어 허전했다. 감자 과자를 찾아 헤맸는데

술 코너 옆에서 찾을 수 있었다. 감자 과자를 안주 코너에 분류하는 것과 과자 코너에 넣는 게 무슨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러시아는 다르다. 즉석식품은 무게를 측정해서 가격을 붙여주는데 계산대에서 음식의 무게를 다시 잰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레닌 묘

모스크바에서는 분명 오랜 기차 여행의 여독을 풀려고 했는데 도착한 저녁에 크렘린 입장권을 예약했다. 크렘린 입장권은 종류가 많다. 일단 크렘린 안의 전시와 성당을 볼 수 있는 권종이 있다. 크렘린 안의 무기고를 개조해 보물을 전시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종이 별도로 있고 이 공간 안에 보석을 모아놓은 제한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권종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성당의 종루에 올라가 볼 수 있는 권종이 있다. 올라가 볼 수 있는 종루는 수리 중이었고 보석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에 무기고와 크렘린 내부만 들어가는 권종을 예약했다.

무기고는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다. 오전에 시간이 남아서 짐을 맡기고 레닌 묘에 들렀다. 레닌 묘는 붉은 광장에서 보면 크렘린 앞에 있는데 도로 마감한 건물에 단순하게 레닌이라고 새겨 있다. 간단한 검문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다. 레닌 묘 근처에 가면 늘 시끄럽게만 보이던 중국인들의 조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에는 방부 처리된 레닌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역 앞에 있는 레닌의 동상과는 다르게 참 작다. 어찌 되었든 본인

의 의사와 다르게 레닌의 시체가 관광 상품이 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같은 인간으로서 씁쓸하다. 관광 상품이 아니라 처도 레닌을 보러 오는 이유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나 혁명, 소련 같은 단어로 대표할 수 있는 사상의 아이콘으로써 레닌이라는 점에서 측은하기는 마찬가지다.

레닌 묘를 나오면 크렘린 성벽을 따라 다시 붉은 광장으로 나오게 된다. 성벽 앞에는 스탈린같이 이름 알 법한 사람들의 묘가 있다. 꽃이 빠지지 않고 놓여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니 스탈린 앞에 꽃이 놓여있는 것에 별 할 말은 없다. 크렘린 성벽은 멀리서 보면 적벽돌을 쌓고 흰색 매지를 넣은 거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적색으로 벽을 칠하고 흰 줄을 그린 거다. 이 모습이 처음에는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백악관에 대비되는 장소인데 얇은 벽돌을 붙이기라도 하지 없어 보이게 벽돌 모양을 그려 놓았기 때문이다. 바실리 성당 내부도 그렇다. 그리지 않고 모자이크로 안을 꾸미는 게 좋다고 보았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보이는 건물 외관도 색칠하지 말고 다른 마감을 하는 게 좋아 보였다. 그려 놓은 건 아주 얇은 면이고 금세 더러워질 뿐 아니라 누가 긁기라도 하면 사라져버리는 거다. 벽난로 놓는 게 비싸니 모니터에 벽난로 영상을 켜놓은 것처럼 저렴해 보였다.

바실리 성당 내부나 크렘린의 성벽과 모스크바 건물 외관을 보며 들었던 생각은 모스크바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여행 내내 가지고 있던 화두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더 나온다. 일단 나는 레닌 묘를 나와서 크렘린 안으로 들어갔다.

크렘린

간단한 검문을 받고 크렘린 안으로 들어가서 무기고 전시실로 가면 외투와 가방을 맡겨야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도 그랬지만 이 동네는 외투를 참 잘 받아준다. 추운 동네다 보니 두꺼운 외투를 입고 실내에 있기 불편하기 때문일 거다. 그렇다고 외투를 훌랑 다 맡기면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난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열판 몇 개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건물은 바람만 막아주고 안에 사람들의 열기만 모아주는 정도다.

무기고 전시실로 들어가려면 신발 싸개를 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상한 곳에서 유난스럽다. 모스크바에서 나는 뭔가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았다. 밖의 건물 아랫부분은 눈 녹은 흙탕물로 얼룩덜룩한데도 오염에 강한 소재를 쓰지 않는다. 그런데 밟으라고 있는 바닥에 유난히 신경 쓴다. 물론 건물 안에 카펫도 깔려있고 해서 신경 써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이상하다. 다른 사건도 하나 들어 보자. 이 건물도 그렇고 역사 박물관 건물도 그렇고 안에서 소화기 찾는 게 정말 힘들다. 보통 소화기는 밖에 놓고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서 알아차리기 쉽게 한다. 그런데 소화기를 건물 인테리어에 맞췄다. 실내 디자인과 어긋나지 않는 손바닥보다 작은 소화기 스티커가 붙여진 나무 장을 만들고 그 안에 소화기를 넣었다. 모스크바는 나와 다른 관점으로 아름다움에 신경 쓴다.

무기고 안에 꾸러놓은 전시실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어있다. 공간은 높고 넓어서 답답하지 않고 그에 맞게 잘 만들어진 것들을 엄청나게 채워놨다. 어느 나라 대사가 왔다는 설명이 많은데 러시아 역사 박물관에

서는 노태우가 준 자개함이란 설명이 있는 걸 보면 굳이 옛날일 뿐 아니라 요즘 받은 것도 저렇게 전시한다. 그리고 천으로 만들어진 의복이나 커트, 깃발 같은 것이 생각보다 꽤 많다. 색은 좀 바랬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아름답게 여겼는지 상상하기에는 충분하다. 잘 만들어진 마차들도 기억에 남는다. 크기도 클 뿐 아니라 세부 장식이나 창으로 쓰인 유리의 질이 좋았다. 실제로 굴러다니던 시대에 길에서 마주쳤다면 지금 비싼 외제 차 뒤를 피하듯이 멀리했을 거다.

프레스코화

무기고를 나와 크렘린 안에 있는 성당을 둘러보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닿고 싶어서인지 성당은 대개 높다. 그래서 나는 성당을 볼 때면 높게 지은 것과 관련된 구조에 눈이 간다. 기둥이나 보의 형태나 천장 혹은 아치 같은 것들 말이다. 구조는 처음 만들 때 그대로다. 만약 비틀어지거나 어디 하나가 빠지면 성당은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좀 중요한 부분이 빠지면 성당이 무너지기도 한다.

성당 안을 장식하는 모자이크는 성당의 구조 못지않게 오래간다. 유리나 돌 같은 모자이크 재료는 겉과 속이 같다. 잘 마감된 검은색 돌의 표면에 상처가 나면 처음과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은색이다. 그러니 모자이크는 바닥에 깔아 놓기도 한다. 그런데 그림의 칠은 두께가 거의 없다. 상처라도 난다 치면 사라져 버린다. 여태껏 성당에서 본 벽화는 대부분 색이 변하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심지어 고의로 덧칠되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벽화는 눈에 잘 안 들어왔다.

건물 외벽도 그렇고 러시아에 있을 때는 유독 칠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성당도 마찬가지다. 크렘린 안의 성당들을 둘러볼 때는 뭔가 칠해 놓은 면들을 예전과 다르게 유심히 보았다. 성당 내부는 규모가 큰 프레스코화로 채워져 있고 비가 들이치지 않는 외벽이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내가 여태껏 보았던 벽화와 비슷하게 여기서 본 프레스코화도 시간의 흔적이 많다. 여행을 하며 칠한 걸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다.

프레스코화는 큰 규모를 이루기에 좋다. 모자이크는 프레스코화처럼 세부 묘사나 다양한 색을 보여주긴 어렵다. 이 큰 성당 안을 아주 작고 많은 종류의 돌로 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규모가 있는 건 눈에 잘 보이고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쉽다. 그림의 붓 터치니 색감이니 구도니 하는 것들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크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드물다. 물론 규모가 있어서 눈에 띄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의 입방에 올라 금세 철거되어버리는 큰 조형물도 있다. 그러나 너무 규모가 있으면 쉽게 철거하지 못하기도 한다.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되기까지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아주 세세하고 잘 만들어진 손바닥만 한 모자이크는 어디 부잣집 방구석에 귀중히 보관되다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규모가 있으면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

어차피 모든 건 끝이 있고 모자이크도 마찬가지다. 한 번 만들어 놓고 영원하길 바라는 건 아이가 사탕을 영원히 빨아먹고 싶어 하는 꿀과 꼭 같다. 모자이크든 프레스코화든 시간이 흐르면 흐려지고 불행한 사고로

소실되기도 한다. 심지어 이상한 방향으로 복원되기도 한다. 처음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마멸을 못 견뎌 하는 건 꼭 죽어야 하는 내 분수도 모르는 행태다. 그리고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나는 순수하게 그 대상만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시간 동안 쌓인 비평이나 현재 영향력 있는 주장을 안경으로 끼고 바라본다. 그 작품과 내가 독대한다 쳐도 나는 이미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다.

국립 역사 박물관

모스크바 크렘린은 경복궁 같은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기능한다. 안에는 대통령 관저가 있다. 그래서 다닐 수 있는 동선이 제한되어 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으면 경비가 와서 더 이상 진입하지 말라고 막아선다. 무기고 전시 구역과 크렘린 안의 성당 구역을 둘러보면 남은 건 몇몇 조형물과 전시들이다. 눈에 익지 않은 가구나 그릇들을 볼 수 있다. 또 전시실의 위치는 성당 지하나 크렘린 내부 건물 안이어서 전시물 뒤로 원래 있던 넓은 공간을 엿볼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크렘린을 나와서 다시 붉은 광장으로 가서 국립 역사 박물관에 들렀다. 늦게까지 문을 여는 날이어서 오후에 입장했지만 충분히 돌아볼 수 있었다. 크렘린 내부 전시도 그렇지만 박물관 안도 참 뭐가 많다. 아쉬운 점은 크렘린 안 성당은 북쪽의 느낌이 나는 글자체로 만들어진 한글 설명서가 있었는데 이 박물관 안에서는 영어 설명도 찾기 어려웠다.

영국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는 눈에 익은 전시물도 많았고 교과

서에서 나오는 좋은 그림과 조각도 많았다. 그러니까 귀중하고 비싸다고 이야기되는 게 많았다. 러시아에서 영국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비교되는 건 에르미타지 미술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역사 박물관에 눈에 익은 전시물이 없는 이유도 있다. 그렇지만 전시물은 엄청 많은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내가 러시아를 지금껏 익숙한 서양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다. 더 자세히는 푸른 눈에 하얀 피부 하면 으레 미국이 생각 나는데 러시아를 보면서 미국의 기대를 품은 거다. 뭔가 실용적일 거 같고 불필요한 예절은 삼갈 거 같은 기대가 있는데 러시아는 다른 나라다. 사람이 손수 외투와 가방을 받아서 보관해주기도 하고 소화기를 눈에 거슬리지 않게 나무함에 넣어 놓는 나라다. 하긴 건물 외부나 내부의 색부터 미묘하게 어색한 느낌이 난다. 러시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옥색 건물을 잘 보지 못했다.

기념품들은 박물관에서 전시물 못지않게 흥미롭다. 전시물은 굳이 내 마음에 들 필요가 없으나 팔려야 하는 기념품들은 내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다. 잘 정돈된 점포에서 적당한 가격이 매겨진 물건을 파는 모습이 편하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정신없는 바닥에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는 상인의 모습도 매력 있다.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없는 걸 보면 나는 신경 써야 할 범주에 드는 손님은 아닌가 보다. 선물하기 위한 기념품을 하나 사서 나왔다.

굶(국영 백화점)

역사 박물관을 나와서 붉은 광장으로 들어가 굶이라고 불리는

백화점에 들렀다. 나같은 가난뱅이 여행자가 살 물건이라고는 매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정도가 있다. 천장은 유리로 되어서 밖이 보이고 빈 공간을 중앙에 두고 복도가 둘러있고 그사이에는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레닌 묘도 그렇지만 사치품을 파는 백화점이 옛 소련의 중심부에 있는 걸 보니 역시 돈은 매력적인 거다.

이별 1

굳 백화점을 나와 붉은 광장을 조금 더 서성였다. 생각지도 못하게 온 모스크바와 이제 작별해야 한다. 여기에 별개 있는 건 아니다. 출고 시끄럽고 그렇다. 붉은 광장에서 벗어나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목에도 사람이 참 많았다. 그래도 이 동네는 지하철 통로가 모두 일방통행이어서 발만 맞춰 걸으면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할 일은 없다.

공항까지는 전철과 버스를 타고 갔다. 공항 철도가 있지만 공항에 빨리 가서 할 게 없고 가격도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낮에 너무 돌아다녀서 허리 아픈 걸 투덜거리며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위와 교통 체증을 경험하면서 공항으로 갔다.

브누코보 공항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못지않게 추웠다. 출발층에는 의자 하나 없었다. 음식점이 있는 위층에 가면 의자가 조금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보다 공간 인심이 야박한데 카페나 음식점의 공간 인심은 똑같다. 돈 없으면 서러운 거다. 화장실도 이 1시간 느리게 표시되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광절약시간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계를 살펴

본 건 제대로 도착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환승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놓치는 경험도 재미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내심 설마 환승 못할 거란 생각은 안 했다. 좀 늦으면 항공사에서 마중이라도 나와줄지 알았다. 아! 러시아 사람들은 착륙하면 박수를 보낸다.



<그림 4> 국립 역사 박물관 천장



6장

길을 읽음

이stanbul

첫인상

마중 나오는 건 개뿔. 비행기는 연착했고 탑승교에 댄 게 아니라 버스 타고 터미널로 오느라 생각보다 늦었다. 환승 수속하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비행기는 이미 문 닫고 갔다. 솔직히 환승 수속할 때만 해도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타튀르크 공항은 너무 복잡하고 불친절하다. 탑승구에 도착하니 이미 문은 닫혔다. 이런 공항은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정말 신청사 공사가 완료되면 이 공항은 폐쇄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다.

생각대로 비행기 놓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름 이름 있는 항공사니 알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항공사를 찾아갔다. 다음 항공권을 받고 숙소도 안내받았다. 숙소는 환승 구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탄불 시내에 있다. 한국 여권은 터키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데 나랑 비슷한 처지의 미국인 노부부가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가 없어서 입국하지 못하고 비자 자판기로 가는 걸 보았다. 비자 비용을 아껴준 나라가 고마운 순간이었다.

항공사가 제공한 버스에 올랐다. 개문발차 참 오랜만에 생각한 단어다. 어렸을 땐 저게 뭘 소리가 했다. 문 열고 차 출발하지 말란 소리다. 공항을 나와서 버스를 타자마자 터키는 우리나라와 묘하게 비슷하던 생각을 했다. 라디오에서는 이슬람 사원에 어울릴 법한 경건한 노래가 나오는데 버스 기사는 문을 열고 출발한다. 양보 없는 도로 사정이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그리고 주차된 차량이 한데 섞여 있는 골목도 비슷했다.

유류물

일단 이렇게 된 거 하기가 소피아가 보고 싶었다. 뭘 알고 가고 싶은 건 아니고 피렌체 대성당 이전에 꽤 오랫동안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돔이라는 소리를 강의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나서 나서다. 그런데 마침 얼마 전 큰 테러가 있었다는 걱정스런 소리를 들었다. 버스를 타고 가자니 도로가 막혀 비행기 시간이 간당간당하기도 했고 허리도 아프고 유심도 없고 환전도 안 했고 카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여러 변명을 만들면서 욕조에 몸 담그고 쉬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기가 소피아가 참 마음에 걸렸다. 괜히 갔다가 여차여차 일이 꼬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는 욕심 안 부리길 잘했지만 또 언제 터키 오냐는 생각하니 아쉬웠다. 그런데 아쉬움과 다행스러운 느낌이 동시에 드는 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아쉬움만 있었으면 내가 너무 잃은 거고 다행이란 생각만 들면 내가 전부 가져온 거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스탄불에 왔으니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또 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공항으로 들어섰다.

복귀

다시 출국 수속을 했다. 공항 보안 검색에 잡혀서 줄자를 뺏겼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들고 다닌 게 이스탄불에서도 문제없을 걸 보장하진 않지만 비행기를 놓치기 전 환승 수속에서 문제 되지 않았는데 뺏기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낯선 곳에서 투닥투닥해 보았자 좋을

거 없고 줄자 비싼 것도 아니니 잊었다. 두꺼운 다운 점퍼까지 꾸겨 넣은 30리터도 안되는 가방을 열어 해치고 다시 짐을 꾸겨 넣는 게 짜증 났을 뿐이다.

공항 안에서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잔돈이 없었다. 그런데 자판기에 카드 결제가 된다. 비자와 마스터 그리고 아멕스 카드가 있었는데 한 회사는 안 되고 두 회사는 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결제가 안 된다. 카페에서도 콜라를 팔았는데 자판기보다 비싸니 웬지 공항한테 지는 기분이 났다. 비행기에 타서 마시기로 했다. 이상하게 몇 푼 안되는 돈이 걸릴 때가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기미가 보였지만 열차에서 계속 누워 있느라 몰랐다가 모스크바에서 확실히 알게 된 허리 통증이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있었다. 배낭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몸이 그렇게 못한 현실을 보니 울적했다. 이제 몸도 신경 써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신경 쓸 건 많아지니 노력해봐야 현상 유지도 힘들어지는 삶이 점점 다가올 거다.

허리 아픈 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그렇고 모스크바에서도 그렇고 널널하게 구경하지 않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서 그렇다. 비행기 안에서 반성했다. 애초에 오로라 말곤 특별한 자극을 얻고 싶지 않았던 여행이다. 그래서 숙소도 늘 혼자 묵었다. 이렇게 돌아다닐 줄 알았으면 출발을 좀 미루고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야 한다. 후회해서 뭐하나, 이미 비행기는 아테네에 다 왔는데.

7장

관광의 전형

아테네·나폴리·로마 1

낮섭

아테네는 러시아와 다르게 관광객 돈맛을 본 느낌이 난다. 억센 러시아어를 듣다가 물 흐르듯이 부드러운 그리스어를 들으니 사람들이 더 친절해 보이는 면도 있다. 아테네 국제공항은 작지만 잘 정리되어 있다. 공항 직원들도 친절하고 입국 심사대 직원도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대중교통안내도 알아보기 쉽다.

공항버스 표를 사면 버스 안에 있는 개찰기에 넣었다 빼야 한다. 그럼 승차권에 날짜와 시간이 찍히게 된다. 중간에 검표원이 내 표를 보고 어귀를 찢었다. 나중에 보니 내 표는 기계 깊숙이 넣지 않아 개찰이 되지 않았다. 무임승차인데 어귀를 찢어 다시 쓰지 못하는 표로 만든 거다. 로마에서 낮은 등급 기차를 탈 때도 그랬다. 시간과 좌석이 적히지 않은 표에 편치로 구멍 뚫어 개찰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훼손된 표는 유효하지 못한 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난 개찰과 검표가 분리된 게 낫설다.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미술관에 가든 박물관에 가든 개찰구가 입구를 막고 있는 형태다. 입장할 때 표를 확인하니 그 안에 있으면 개찰구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다 값을 지불한 사람이다. 굳이 안에서 검표를 하기보다는 입구 쪽을 더 신경 쓴다.

그에 비해 이 동네 공항버스는 입구에 신경 쓰지 않고 간혹 검표한다. 늘 입구에 신경 쓰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방법이다. 만약 사람들이 무임승차하지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검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 중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진 모르겠다. 트롬쇠는 버스 안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도 있고 버스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모바일 버스카드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앱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기사에게 화면 보여주는 게 전부였다.

아테네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고 갔다.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온 동네에서 자는 건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다. 늦은 시간이고 비까지 내리니 꽤 으스스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나랑 같은 신발은 신은 발을 보았다. 그런데 그 발이 계속 날 쫓아온다. 점점 정류장에서 멀어질수록 인적이 드물어지는데도 마찬가지다.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가서 따라오지 않아서 안심했는데 결국 숙소 복도에서 만났다. 나랑 같은 발은 길을 잃어버려서 돌아왔다고 한다.

스케치 3

일어나서 모스크바에서 남은 빵으로 아침을 했다. 이걸 다 먹어 치워야 아테네에서 뭔가 먹을 걸 살 수 있다. 스페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장을 보면 먹을 만한 식품들이 적당한 가격이라는 인상이 남아있다. 그리스도 스페인처럼 남쪽이니 스페인 같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적어도 러시아처럼 매대가 비어 있거나 플라스틱 같은 빵을 먹진 않을 거라 보았다.

아테네의 거리에서 스페인 냄새가 난다. 지리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해를 완전히 가리는 덧창은 스페인처럼 일조량이 많아서이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유사한 점도 있다. 벽돌을 쌓거나 돌을 붙인 게 아니

라 칠로 마감한 외벽이 그거다. 옥색은 보이지 않지만 미색은 러시아에서 자주 보던 색이다. 도로의 매캐한 냄새도 러시아와 닮았다.

물론 러시아랑 다른 점도 많다. 일단 날씨가 러시아와 다르게 천국이다. 별도 너무 좋다. 하늘은 정말 푸르고 땅은 정말 초록으로 보인다. 심지어 1월인데도 그렇다. 신혼여행도 그리스로 올 거고 부모님과도 한 번 올 거고 동생도 한 번 데려올 거다. 날씨가 그래서 러시아와 건물색만 비슷하지 모양은 완전 판판이다. 러시아에서 그리스의 테라스는 쓸모가 없다. 러시아에서 보기 힘든 오토바이도 자주 보인다.

골목을 걷다가 길모퉁이를 도니 아크로폴리스가 보였다. 평평한 동네 가운데 깎아지르듯이 툭 튀어나온 높은 언덕 위에 그렇게 큰 구조물이 있을 줄 몰랐다. 내가 있는 곳과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잘 가늠되지 않았다. 우연찮게 얻어걸린 아테네 여행이지만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다. 아크로폴리스에 취해서 주변을 몇 바퀴 돌았다.

실수 1

아테네는 서울처럼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는 동네답게 아크로폴리스 사방에 유적이 놓여있다. 아침에 급하게 가볼 곳 위치만 찍고 나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같은 가이드 투어 무리를 만났다. 설명이야 가이드가 더 잘해주겠지만 그래도 남들 보는 건 보고 간다는 생각에 꽤 뿌듯했다. 물론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가이드 투어를 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면 더 여유롭게 아테네를 둘러봤을 거

다. 아직 시간과 경험 그리고 돈을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게 미숙하다. 그렇다고 전혀 계산하지 못한 건 아니다. 나사 헐거운 여행이란 생각도 있었고 북적북적하게 여러 사람 몰려다니는 것도 가이드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싫었다.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가이드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좀 하고 오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처음 생각처럼 설렁설렁 다니던가 했어야 한다.

고대 아테네 아고라

아크로폴리스를 나와서 아테네에 널린 여러 돌덩이를 보았다. 여기저기 둘러보다 고대 아테네 아고라에 들어갔다. 들어가면 좌측에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복원된 스토아가 보인다. 안에는 다른 박물관처럼 돌로 만들어진 조각과 도자기 같은 오래된 물건이 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아테네 민주주의와 관련된 유물인데 법관을 추첨하는 기구와 위험 인물을 아테네에서 배제하는 투표에 사용한 도자기 조각이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 하면 추첨과 직접이 생각나는데 어떤 도구로 이뤄지는지 찾아볼 생각을 하진 않았다. 여행 중에 우연히 아테네 운영에 사용된 도구를 알게 된 거다. 한참 학교 다닐 때면 우연찮게 안게 참 즐거웠을 거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거저거 부딪쳐보며 경험해야 할 때가 한참이나 지났다. 이 기구와 도자기 조각은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좋아할 내용인데 스스로 찾아보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다.

스토아 반대쪽으로는 헤파이토스 신전이 있다. 그리스에 대해서 뭘 아

는 건 아니지만 대장장이의 신이란 점 때문에 찾아가 봤다.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처럼 생기고 욕정도 부리고 하지만 날씨를 조작하는 거같이 인간답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헤파이토스는 인간처럼 만들기를 한다. 물론 그가 만든 무구가 마법 같은 물건이긴 하지만 말이다. 나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에 눈길 한 번 더 주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다음날 가려고 했는데 또 욕심부렸다. 박물관 근처 대로에는 할아버지들이 생각지도 못한 뼈끼질을 한다. 이 동네에서 나한테 말 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처음에는 적당히 바쁘다 하고 넘어갔다. 그냥 심심한 할아버지들이 시간 죽이려고 말 건다고 봤다. 자꾸 말을 거니 나중에는 왜 자꾸 말을 거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예를 배운 청년이니 어른의 말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일상의 대화로 시작한다. 한국의 지방 도시 이름을 나열하면서 친근감을 높이기도 한다. 어느 정도 말을 텃다 싶으면 결국 자신이 아는 바를 소개해 준다고 한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유적 위에 떠 있다. 파면 유적이 나올 거니 당연할 거다. 유적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다. 러시아에서부터 그랬지만 이번 여행은 눈 호강이다. 여기에도 참 잘 만들어진 물건들이 많다. 그냥 흰색의 대리석 조각이 아니라 덧칠한 색을 복원한 조형도 볼만했다. 크게 관심 없었으면 그리스 조각상을 채색 없이 대리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알고 있을 뻔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즐거움 하나를 찾은 거다.

박물관의 동선도 흥미롭다. 박물관은 사방이 유리로 둘러 있고 실내는 절반이 나뉘어 있는데 한 면은 아크로폴리스가 보이고 다른 한 면은 그렇지 않다. 박물관에 입장해서 전시를 따라 맨 위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건물 외부를 둘러싼 유리 너머로 아크로폴리스가 보이지 않는다. 꼭 대기 층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규모의 내실에는 아크로폴리스에 관한 전시물들과 아크로폴리스 조소에 관한 영상이 있다. 이 내실을 나가면 내실을 둘러서 아크로폴리스 내부 조소가 전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모형이고 몇몇은 되찾은 거다. 모형인 조소에는 영국 박물관에 소재해 있다는 표시가 있다. 이렇게 내실 밖을 돌아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보인다. 나머지 전시는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건물 반대쪽을 내려가며 진행된다.

여행이 끝나갈 즈음 영국 박물관에 들러 아크로폴리스 내부 조소를 보았다. 영국 박물관에 아테네 유물이 있는 건 우리나라 문화제가 일본에 있는 느낌이 들어 마음 찝찝했다. 그런데 영구 박물관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심지어 친절하게 한국어까지 지원하는 걸 보니 더 씩씩했다. 아무리 귀중한 거여도 가까이 있고 늘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다. 어떤 것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거란 생각은 꼭 옳지 않다. 한편으론 익숙하니 더 자세히 보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기도 하다.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일상적이어서 별것 아닐 거 같은 아크로폴리스에 관한 내용을 이 박물관에서 많이 봤으면 더 좋았을 거다.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아테네에서 셋째 날 아침에는 전날 다 돌아다니지 못한 유적지를 좀 더 돌았다. 제우스 신전은 기둥 몇 개와 보만 남아있는데 크기도 클 뿐 아니라 기둥머리 장식이 섬세하다. 멀리서 볼 때는 여러 선이 화려하게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세월이 무더져서 그렇게 날카롭게 선이 살아 있지는 않다. 다른 유적들도 그렇지만 다들 일단 크기에서 먹어준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 쳐도 작았다면 자연의 풍화를 견디기 힘들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일자 무식이면 귀중한지 모를 거다. 일단 크니까 좀 있어 보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든다.

제우스 신전에 왔을 때 비가 왔다. 멀리서 비가 다가오는 게 보인다.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으로 걸어갔다. 걷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길을 걷는 것도 나에게는 꽤 흥미로운 일이다. 거리에는 복권 파는 할아버지들이 있고 양말 노점도 있다. 국립 박물관으로 점점 다가갈수록 그리스 경제가 맛이 갔다는 걸 알 수 있다. 도시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게 보인다. 여기저기 상점은 문을 닫고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도 온통 낙서투성이다. 값이 싸서 이 박물관 근처에 숙소를 잡으려 했다 말았는데 참 다행이다. 하기가 소피아에 가지 않은 것도 비슷하게 다행일 수 있다. 지멘스에서 만든 신호등을 쓴 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그리고 아테네 시내 배수가 잘되어 있지 않다. 비 조금 오니까 온도로가 물바다가 된다.

나름 국립 박물관이라는데 상태가 안 좋다. 정원은 낙서로 너저분하고 치안이 불안한지 여기저기 무장한 경찰이 있다. 전체를 보지 않고 화장

실만 봐도 대강 건물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다. 화장실 소변기는 저격수가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다. 대변기는 커버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제작사와 이름이 앞만 같은 무슨 무슨 스탠다드라는 회사의 물건으로 채워져 있다. 충격 스런 화장실이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괜찮다. 특히 많은 종류의 도기를 보았다. 보는 눈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여행에서 특별히 한 거라곤 박물관 돌아다니는 거였고 눈이 좋은 것들로 폭행당하다 보니 좋은 게 조금 구별된다. 어떤 도기는 일부러 멍청하게 그린 르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대충 만든 게 보였다. 개중에는 정말 미세한 선까지 신경 써서 만든 도기도 있다. 돋보기 아래 전시한 도기 조각 하나는 사람 얼굴만 겨우 보였는데 정말 잘 만들어졌을 거란 상상이 충분히 된다. 고대 선문자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다. 궁금했을 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될 걸 귀찮아하다가 이렇게 힘든 발걸음을 해서야 선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다. 보통 볼 수 있는 유적은 부분뿐이고 전체를 보긴 힘든데 고대 아테네의 실내 공간을 재현한 규모 있는 전시도 있다.

이별 2

리카비토스 언덕은 아테네와 작별하기 좋은 곳이다.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곳이 한눈에 다 보인다. 멀리 바다도 보이는데 못 가 봐서 아쉬웠다.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잘 찾아보고 다녀야겠다. 북악산

팔각정에 올라서 서울을 바라보면 여기저기 분주하게 불 켜진 사무실을 보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테네는 여유로운 걸 넘어서 느긋하다. 모스크바에서 가져온 과자와 올라오면서 산 콜라를 마시면서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아테네에 왔다. 중학생 때 영어 공부를 빙자해서 엠피쓰리 플레이어를 샀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엠피쓰리를 살 때 즈음 과학 선생님은 연수차 아테네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줬다. 한마디로 어설픈 나라라고 했다. 교실도 우리나라가 훨씬 시설이 좋다고 했다. 교사당 학생 수가 적은 것만 나은 점이라 꼽았다. 아주 짧게 스친 인상뿐이지만 어설프단 표현을 왜 사용했는지 살짝 이해된다. 느긋한 느낌을 어설프다고 말한 거다. 한 평이라도 더 찾아 먹고 일 원이라도 더 쥐어짜려는 나사꽁 조여진 긴장이 덜한 건 분명 프로답지 못한 거다. 버스 기사가 한 명 한 명 돈 내는 걸 확인하는 나라에 살다가 승차권도 안 보여주고 버스를 타면 좀 아마추어 같다고 느낄 거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해까지 지니 으슬으슬해졌다. 새벽 비행기이고 공항버스도 24시간 운행하니 시간이 널널하지만 슬슬 걸어 내려왔다. 유난히 사이렌 소리가 많이 들렸고 골목은 러시아 못지않게 밟고 다니는 디젤 택시로 시끄러웠다. 횡단보도는 초록 불 주는 시간이 영 애매하다. 건너는 길이가 아주 짧는데 하염없이 긴가 하면 건너려면 한참 남았는데 초록 불이 꺼지려 할 때도 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의 제한 속도가 120km/h인 점이 생소했다. 또 이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같이 달리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다 보호대를 하고 다니긴 하지만 위태로워 보인다. 이

렇게 또 한 도시와 헤어졌다.

나폴리 가는 길

로마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맥도날드에 들렀다. 난 햄버거가 참 좋다. 어렸을 때 건강해지는 것만 먹어서다. 과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먹는다. 무병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아니고 남들은 먹다가도 안 먹는다는데 기껏 유지한 좋은 식습관을 지금까지 많이 안 먹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망치고 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걸 먹어야 할 텐데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비행기를 타면서 한 번도 꼬리 날개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둔 적이 없다. 이날에서야 비행기 꼬리날개 뒤가 막혀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활주로에 놓인 많은 비행기가 그랬다. 이게 뭐라고 신기해서 공책에 적어 둔 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림까지 그려 놓은 걸 보면 꽤 의미 둔 거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곳이 많은 걸 다시 한번 상기한 경험이다.

로마에 도착했지만 이날은 로마에 볼일이 없다. 바로 페르미니 역으로 가서 나폴리행 기차표를 산 뒤 아침을 먹었다. 아침은 맥모닝! 연속해서 햄버거를 먹으니 세상을 얻은 느낌이다. 그리고 열차에서 먹을 과자와 물을 샀다. 역사는 한참 리모델링으로 분주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늘 그랬지만 경찰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테러에 대한 반응일 거다.

나폴리행 열차를 탔다. 차장은 역에서 개찰한 열차표를 검표하고 편치

로 훼손했다. 로마는 자동차는 우측통행하는데 열차는 좌측통행한다. 과자를 하나둘 주워 먹으며 갔다. 나폴리에 가는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보인다. 그렇게 신물 나게 기차를 탔는데도 뭔가 탈것에 올라 있는 게 참 좋다. 어딘가 가는 게 좋은 거다. 언젠가 한 노인이 나에게 달력을 넘기라고 했다. 넘긴다고 넘겼는데 두 장이 넘어갔다. 시간을 빨리 가게 한 거다. 그러니 그 노인은 젊어서 그런다고 했다. 아기 고양이가 아직 몸을 움직이는 게 서툴러 사료 주는 손을 무는 것처럼 나도 세월을 다루는데 서툰 거다. 한편으론 아직 시간이 빨리 움직이는 게 좋기도 하다. 어서 나만의 영역을 쌓아 올리고 싶다. 게임에서 연구 개발을 할 때 빨리가기 버튼을 누르듯이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오는 세월이 반갑다.

열차가 슬슬 나폴리 도심으로 들어갔다. 열차에 본 나폴리는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버려진 공사장이나 정비되지 못한 도로가 보이기 때문이다. 역 또한 마찬가지로. 역 주변은 별로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아침 일찍 역 앞에 갔을 때는 여기저기 쓰레기로 불을 지핀 잔해가 있었다.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나폴리 박물관에 갔다. 문을 19시에 닫는다. 아테네의 박물관과 유적들이 16시나 17시면 문을 닫는 걸 생각하면 돈맛을 더 아는 동네인 거다. 입장권에는 바코드가 있고 입장할 땐 지하철처럼 개찰기에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는데 아테네 공항버스에서처럼 굳이 직원이 표를 찢어서 훼손한다. 보통 나는 절취선이 있는 입장권을 받아왔다. 절취선은

애초에 찢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다. 내가 가진 표에 뭔가 표시하는 기억은 롯데월드에서 5가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사용할 때뿐이다. 내 표를 찢어 표시하는 건 정보를 저장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아르바이트 출퇴근 시간 찍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위해 한 번 간 박물관에 내가 다녀왔는지 아닌지 기억 못 할 리는 없다. 그리고 표를 찢은 건 내가 할 수 있으니 입장 증명이 되지도 못한다. 그러니 표를 찢는 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박물관에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박물관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꼴이다. 표를 찢는다고 무게가 늘어 내가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표를 찢어 표시하는 걸 보니 다른 문화에 왔다는 걸 새삼 느꼈다는 거다.

이 박물관은 특이하게 층과 층 사이에 낀 작은 층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집창촌의 벽화나 거기서 사용한 도구나 기구 같은 거다. 여러 명의 난교나 다양한 체위를 묘사한 모자이크를 보니 지금이 특별히 타락한 세상이라고 평할 수 없다. 인간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증대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때에 비하면 접하기는 더 쉬워진 건 맞지만 유독 포르노만 그런 건 아니다. 포르노 만들고 찾기 쉬워진 것처럼 다른 지식도 찾고 만들기 쉽다. 같은 관심이지만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걸 보고 만들 수 있다. 한편으론 이런 능력 말고는 사람이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폼페이와 집창촌 유물이 지금이랑 다를 바 없기도 하고 『일리아드』 같은 오래된 서사시를 보면 지금 이야기 못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리 피자

나폴리 박물관을 나서서 어둡한 길거리를 걸어 피자집으로 향했다. 밤의 나폴리는 쇠퇴한 도시가 뭔지 확실히 알려준다. 거리는 어둡고 습하다. 길에 나와 있는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돈 찾기가 무서워서 은행 건물 안에 있는 기기에서 돈을 찾았다. 돈을 뽑을 때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신경 쓰일 정도로 분위기가 스산하다. 마피아들이 총질하다가 경광등이 보이자 시체 한 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면은 딱 이 동네에서 찍으면 된다.

여행 중에 특별히 사 먹은 음식이 거의 없다. 맛있는 걸 찾아먹지 않아서 괜찮은 식당을 잘 찾지도 못하고 학교 근처 충무로나 명동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들의 기억이 강해서이기도 하다. 많은 종류의 한국 음식 사진과 함께 외국어가 쓰여 있는 음식점은 가격도 비싸고 전문성도 없어 보여서 쉽게 발이 가지 않는다. 다른 나라라고 별반 다른 거 없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음식보다 차라리 마트에서 파는 조리 식품을 먹는 게 그 동네의 삶에 가깝다. 별나게 사 먹은 거라곤 나폴리 피자가 전부다. 첫 한입은 정말 맛있었다. 빵은 인절미 같이 쫄깃하다. 몇 조각 맛있게 삼키다 보니 피자가 식었는데 갑자기 맛있게 먹었던 방금 전 내 모습이 바보 같았다. 식으니 타버린 간이 짠 빵이다. 난 정말 식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관광지

내가 공교육을 받았던 지역이 썩 잘사는 동네는 아니어서인

지 반에서 해외여행 조사 같은 걸 하면 손드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온 아이는 큰 관심거리였을 정도다. 그 아이가 폼페이에 다녀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폼페이에 가기 위해 선 나폴리 역은 유럽 여행이 자랑거리가 되던 시절 이후로 관리되지 않고 삭아버린 모습이다. 한편으론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다. 잘 갖춰지고 모두가 보고 싶은 내용으로 가득 찬 관광지였다면 가격 문턱부터 높았을 거다.

폼페이

나폴리에 도착한 다음 날에 폼페이로 가는 사철을 탔다. 사철은 참 생소한 단어다. 수도권 전철 노선도에서 민간이 투자한 노선이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기차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나마 정부 자금이 들어간 회사에서 운영한다. 나폴리 철도는 너저분하다. 늘러붙은 껌과 낙서가 승강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열차 안은 개가 미친 듯이 짓고 한 편에서는 구걸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여행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사람들로 시끄럽다. 가면서 보이는 베수비오 화산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열차 안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 연주했다. 자세히 보니 탬버린을 빼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 동네는 구걸도 참 쉽게 한다. 폼페이 매표소에서 시간을 한 참 보냈다. 잔돈이 없는 직원이 손님에게 잔돈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

이다. 손님에게 잔돈 내놓으라는 장면은 남유럽 사람들을 설명하는 어떤 만화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손님이 왕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해보니 정말 화병 나는 일이다. 어딜 가나 장사꾼의 마음은 같다는 생각에 약간 금이 갔다가 다시 붙었다. 돌무더기 하나 보려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니 이래도 되는 거다. 가능한 많은 걸 얻어 내는 게 장사 아닌가.

반나절만 보고 해가 떠 있을 때 로마로 가려 했는데 욕심을 못 버리고 하나라도 더 눈도장 찍으려 해서 온종일 폼페이에 있었다. 뭘 그렇게 보고 다녔는지 메모도 하지 않았다. 모자이크가 멋지단 말만 있다. 벽화든 모자이크든 여기서 본 복제품들이 나폴리 박물관에서 본 것보다 낫다. 그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공간 안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가구나 창은 화산재에 묻혀 다 타버렸는데 이 빈틈에 석회를 부으면 사라진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 약간 접힌 문과 창을 뜯 석회 덩어리를 원래 자리에 보존해 놓은 집은 비록 나무 같은 원래 재료는 아니어도 충분히 그 시대를 느끼게 한다.

골목의 낙서까지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처리 한 것도 마음에 들었다. 폼페이 발견 초기에는 눈에 필만한 보물만 챙기느라 훼손된 부분도 있다고 한다. 이제 하찮은 낙서도 보존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눈에 띄지 않는 소외된 것들도 신경 쓰는 걸 보여준다. 관람 동선 끝으로 가면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묻혀있는 폼페이를 볼 수 있다. 좀 더 생각하면 폼페이의 지층을 선택하고 나머지 지층을 걷어내는 건 하찮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무시하는 행동이다. 사실 별로 주의 끌지 못할 일로 폼페이 같은 대

규모 발굴을 하진 못 할 거다. 그러나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면 관심받지 못한 불행한 나머지가 생기기 마련이다. 어디에 중심을 놓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 중심이 되는 것에 집중할 때와 하찮은 걸 생각해야 할 때를 선택하고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폼페이를 나오면서 보지 못한 게 있을까 아쉬워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의 감촉이나 벽의 느낌도 혹시 놓친 게 있나 다시 만져봤고 눈에 익지 않은 곳은 되돌아봤다. 물론 다 이미 본 곳이다. 어차피 다시 정리하는 지금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한 걸 보면 아직 나는 욕심이 많다. 좀 좋게 말하면 아직 호기심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폼페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로마에서 폼페이로 온 길의 반대다. 내려올 때 보이던 풍경이 보이는 쪽에 앉았다. 반대쪽에 앉으면 전혀 새로운 풍경이겠지만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듯 같은 걸 반대로 방향으로 보면 새롭게 눈에 띄는 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보이기도 하니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음료

저녁에 다시 로마에 왔다. 숙소에서 무료로 제공된 생수를 다 마셔 물이 없었다. 여행 중에 수돗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돌아다닌 오래된 동네들의 수도 배관 상태가 못 미더웠기 때문이다. 물 사러 가기도 귀찮고 미니바를 사용할 정도로 부유하진 않아서 프린트에 물어보

니 적극 마셔도 된다고 했다. 로마 수돗물은 뭔가 가득한 맛이다. 물이 무겁다고 해야 하나? 무슨 와인 감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표현하고도 웃기다. 여튼 텅텅해서 마실 순 있는데 계속 먹고 싶지는 않다. 하긴 배 주스도 짝 찬 느낌이 장난이 아니었다. 거의 젤리를 먹는 기분이다.

바티칸 미술관

다음날 숙소에서 바티칸 미술관까지 걸어갔다. 거리의 신호등이나 가로등 중 몇 개는 기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은 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특이했다. 보행자 신호에 노란 불이 있는 것도 그렇다. 오래된 도시인지라 넓게 짹짹 뻗은 길을 보긴 힘들다. 큰길도 곡률이 있고 교차로도 딱 90도가 아니다. 인도에 가로등마냥 덩그러니 주유기 몇 개 놓고 영업하는 주유소도 기억에 남는다. 바티칸 미술관 앞은 오전인데도 꽤 북적했다. 가이드를 받으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다고 호객행위 하거나 엽서나 사진을 파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바티칸 미술관은 참 살뜰히 좋은 걸 여기저기서 끌어다 놨다. 전시물은 그림이나 조각부터 시작해서 가구나 묘비도 있고 직물이나 마차 그리고 우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물건부터 스페인의 현대 미술까지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물건이 있다.

보관된 것의 상태는 정말 다양한데 미술관이 오래되다 보니 시대마다 괜찮은 물건을 대하는 생각을 볼 수 있다.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에는 원본으로 복원할 확신이 있으니 여기저기 부서진 곳을 고쳤고 심지어 자신들의 눈에 맞지 않아서 고쳐 내기도 한다. 반대로 어떤 시기는 일단 가지고 온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상하지 않게 보존처리만 했다.

많은 전시물도 있지만 전시하는 공간 자체도 불만하다. 바닥이 정교한 모자이크로 짜여진 공간도 있고 멋진 중정을 둘러 전시물을 놓기도 했다. 천장 변화는 조각과 기둥의 음영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실제라고 헛갈린 적도 몇 번 있다. 옛날 공간을 현대에 맞춰 사용해서인지 중간중간 쓸모없는 죽은 공간이 갑자기 나오기도 한다. 전시물들 사이로 깊숙이 들어간 좁은 공간이 있다가나 화장실 창이 좁고 긴 공간 끝에 놓여 있는 식이다.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미술관을 나와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갔다. 복잡한 동선을 따라 바티칸 미술관을 둘러보았는데 정작 밖에서 안을 볼 기회는 없어 아쉬웠다. 중간에 군밤을 팔던 아랍계? 인도계 청년이 있었다. 군밤을 보면 아련하게 어릴 적에 거닐던 겨울 거리가 생각나곤 했는데 이젠 생똥맞은 이탈리아가 같이 생각날 거다. 옛 추억은 오염당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더 재미있는 기억을 남아 있을 거다.

성 베드로 성당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있다. 정신 나간 사람이 깨부순 걸 복원해서 유리 안에 넣어 놓은 거로도 이름난 조각이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진을 찍고 있다. 인터넷으로 초고해상도 사진

을 얻을 수 있으니 굳이 찍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언제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뭐든 치면 다 나오는 시대이지만 굳이 공부하는 건 널려 있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고 관계 맺는 건 누가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같은 「피에타」를 찍지만 어느 거 하나 똑같은 사진은 없다. 내가 본 시점을 기록하는 건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규모가 큰 성당이다. 천장에 그려진 그림 중 일부는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 모자이크였다. 안에 놓인 잘 만들어진 가구를 보는 재미도 있다. 어느 관광지 성당이 그렇지만 중간중간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관광객이 섞여 있는 모습과 성당 한켠에 제한된 영역을 관람하는 데 돈을 받는 모습은 성스러운 장소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성과 속이 섞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보기 싫지 않았다.

성 베드로 성당 위에 있는 돔에 올라갈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이대로 가기에는 마음이 아쉽기도 했고 성당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너무 궁금했다. 시간이 늦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한참을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서 뱅글뱅글 도는 성당 계단을 충분히 경험했다. 성당 높은 곳은 광장에서 성당을 봤을 때 보이는 공간은 아닌데 마감 이 허술하게 느껴진다. 광장에서 올려 보이는 석상은 앞에서 보이는 곳만 살뜰하게 조각해서 뒤는 평평하다. 돔 위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은 오래된 공중화장실에서나 볼 법한 하얀 타일로 깔끔하지 않게 마감했다. 상단 돔에 올라가면 로마가 다 보인다. 마지막 날 저녁에 오면 참 좋았을 거다. 여기가 로마와 작별해야 할 곳이었다. 바닷가도 아닌데 갈매기가

엄청나게 있던 건 좀 많이 어색했다. 마감 시간이라 그런지 여기저기를 순찰하는 사제들도 보인다.

성당에서 나오니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었다. 타려고 했던 정류장을 지나친 건지 찾을 수 없었다. 다른 버스 정류장은 찾았는데 버스표 자판기가 먹통이다. 이래저래 물어보기도 귀찮고 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던 지도를 따라 걸었다. 로마 밤거리를 걸어 본 셈 치면 짜증 나는 일은 아니라고 봤다. 어디로 가든 지하철역 하나는 만날 거다. “M”자가 쓰여 있는 표지판이 보여 맥도날드 근처라면 역시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맥도날드가 아니라 지하철 표시였다.

주말

길을 잃었던 기억 때문인지 간밤에 비행기 놓치는 꿈을 꿔다. 로마 공항 열차를 놓쳐서 결국 수속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있는 장소가 스페인이었다. 꿈을 꿀 때는 침착하게 놓여진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꿈이란 걸 깨닫고 내 맘대로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심장 쫓려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철석같이 꿈을 믿고 말았다.

트레비 분수에는 아침인데도 사람이 꽤 많았다. 잠실역에 내려서 롯데월드로 가는 길에 있는 분수가 트레비 분수를 복제해 놓은 거다. 어렸을 적에 놀이동산 간다는 설렘은 지하라는 답답함과 시끄러운 물소리 그리고 습습함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햇살 드는 트레비 분수를 보니 즐거운 추억의 시작이 더 밝게 덧칠된다. 이른 시간인데 사람이 꽤 있다. 여기저

기서 “예쁘다!”는 소리가 들린다. 왜 같은 말을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나 싶지만 트레비 분수 사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실천적인 일이다.

로마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판테온이나 포룸 로마눔이나 콜로세움 같은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들 말이다. 강의에서 팔라티움 언덕에서 로마가 시작된다는 설명을 들을 때는 작은 둔덕을 상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거대한 건축물 터가 여기저기에 있을 정도로 크다. 팔라티움(PALATIUM)이 왜 궁전(palace)의 어원인지 남아있는 폐허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아테네도 로마도 일단 거대한 규모에서 먹고 들어가는 면이 있다. 과거에 나는 같은 자원이라면 엉성하고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작게 잘 만드는 게 좋았다. 내 손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테네와 로마를 보니 적당하게 만들더라도 규모를 갖추는 것도 의미 있다는 걸 알았다.

걷다 보니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보였는데 달력을 보니 토요일이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 나는 늘 주말인 상태다. 그런데 이 동네의 주말이 느껴졌다는 건 내 주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표시다.

로마 시절에 만들어진 길인 비아 아피아를 둘러보았다. 스페인에서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을 때 로마 시절에 만들어진 길을 본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거 중에 토목 구조물만큼 규모 있는 것도 찾기 힘들다. 건물이 아무리 커도 고속도로만큼 거대하지 않다. 이 길은 산 세

바스티아노 문에서 시작한다. 돌로 포장되어 있는데 지금도 차도로 사용된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길이라고 특별한 게 있을 리 없다. 걸어가다 중간에 버스를 탔다. 버스가 섰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로마 버스는 뒤로 타야 하는 걸 알았다. 그리고 또 다른 토목구조물인 수표교를 보러 갔다. 내가 수표교를 보기 위해 들른 곳은 골프장과 공원 사이다. 어디에도 수표교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다. 산이나 강처럼 원래 있던 거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거니 주목할 이유가 없을 법도 하다. 나도 스쳐 지났다.

로마에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주말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다. 아쉬움 때문에 스페인 광장에 들렀다. 저녁인데도 사람이 많다. 대단한 곳에 온 느낌보다는 저녁 광화문 앞과 비슷하다. 이곳은 로마와 안형할 곳은 아니다. 성 베드로 성당 상단부에 다시 가는 게 좋았다. 숙소로 오는 길에 타이어처럼 생긴 하리보를 샀다. 정말 타이어 맛이다.

이별 3

새벽에 맞춰놓은 알람이 울렸다. 밖이 아니라 집에 있는 줄 알았다. 비싼 공항 철도를 피해 예약한 공항버스는 선착순 탑승이다. 비수기에 사람이 많아 봐야 얼마나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공항버스 타는 곳은 완전 아사리판이다. 버스 문은 사람 하나 들어가게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밀고 들어오니 꼭 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아치는 각

각의 부재 하나하나가 압축력을 견디면서 전체 형상을 유지하는데 딱 그 꼴이다. 단단하게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아치의 각 부재는 끊임없이 힘을 견디고 있다. 사는 꼴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일 거다. 아무 힘 안 들고 살고 싶어 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로마를 떠났다. 이제 여행은 짧게 다녀오는 게 아니라면 꼭 한 도시에 서 4일 이상 체류해야겠다. 잦은 이동은 힘들기도 하고 정붙일 만하면 떠나는 서운함도 있다. 여행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텐데 떠나는 건 늘 아쉬운 일이다. 헤어질 줄 알아야 어른인데 나는 언제 철이 들까.

8장

철학과

졸업생의 로망

아테네·나폴리·로마 2

철학의 도시

비행기를 놓치고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첫날에는 내가 어디에 왔는지 실감 나지 않았다.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살던 곳에 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빼놓을 수 없다. 특별히 이 세 명에 홀린 건 아니다. 단지 세 명 모두 철학 하면 빼놓은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자퇴하고 철학과에 다시 오게 된 데에는 이 철학자들의 역할을 무시할 순 없다. 글 속에 나오는 아테네는 이미 폐허뿐일 걸 알지만 서둘러서 돌아볼 곳을 정하고 길을 나섰다.

한편으론 아테네에 온 게 오두방정 떨 일은 아니다. 자주 들어서 한 번 와야 할 거 같은 아테네다. 나에게 의미 없던 건데 남들이 다 하면 괜히 관심이 가기도 한다. 무슨 상을 받았거나 전문가의 평가가 좋으면 괜히 좋은 거 같다. 특히 내가 평소에 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면 괜히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는 것처럼 아테네가 그렇다. 내가 학부 동안 본 많은 글은 부정하든 긍정하든 고대 아테네와 관련이 조금씩은 있다.

굳이 직접 오지 않아도 아테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긴 하다. 요즘은 사진도 많고 심지어 가상현실로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아테네에 오지 않아서 이해 못 할 내용이 있을 정도로 미세하게 공부한 것도 아니다. 나는 아테네를 대충 훑어봤다. 책 한 권 빠르게 살펴본 노력이랑 같은 거다. 그래도 마냥 놀지만 않고 뭔가 했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내가 배운 서양은 그리스나 로마에 뿌리를 대려고 한다. 그리스의 『일리아드』나 『오뒷세이아』를 필독서로 꼽기도 하고 로마의 양식을 따라 도시를 설계한 세력도 있다. 로마의 선조 이야기 격인 『아이네이스』가 『일

리아드』와 『오뒷세이아』에 줄 대고 있으니 결국 내 머릿속의 서양은 그리스에 줄 대고 싶어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내가 배운 서양에 그리스 문화 전반이 녹아 있었다면 아테네가 친숙해야 한다. 그런데 모스크바처럼 아테네는 미묘하게 이질적이다. 전체를 동경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쪽쪽 빼간 걸지도 모른다. 심지어 다른 식민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물을 약탈한 걸 보면 닮고 싶은 만큼 잘 대우하지도 않았다.

고정된 시간

아크로폴리스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몇 번 돌았다. 날씨와 아크로폴리스에 취해서이다. 아크로폴리스를 돌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던 명사를 보는 건 신나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공자가 살았던 곡부에 가도 같은 느낌이 날지 궁금했다. 내가 아테네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닐까? 사실 아테네는 비정상이다. 아테네 땅 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딱 내가 알던 고대 아테네의 지층이 선택되고 보존된다. 오랜 시간 동안 고대 아테네만 보존할 가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모든 건 사라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역행하며 보존하는 게 자연스러울 리 없다. 한편으론 선택과 보존 역시 시간을 관통하고 있으니 각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반영될 거다. 예전에는 관심 없어서 뒤로 미뤄 놓았던 유적지가 갑자기 조망 받는 경우도 있고 복원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돌아본 유적과 박물관들이 발굴일과 소장연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고대 아테네만이 아니라 거기에 묻어있는

여러 시대를 느껴볼 수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 해놓지 않아서 아쉽다.

시베리아와 그리스 2

고대 아고라 안에서는 아크로폴리스가 보인다. 평평한 동네에 아크로폴리스만 툭 튀어나와 있으니 굳이 여기서만 보이는 건 아니다. 여하튼 고대 아고라 안에서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데 여전히 처음 아크로폴리스를 보았을 때처럼 뭔가 있어 보였다. 하늘은 정말 파랗고 땅은 정말 초록이고 평지에 툭 튀어나온 지형이 눈에 익은 지형도 아니고 등등. 아크로폴리스는 참 낮설게 다가온다.

날 좋은 날 이런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 말 들을 여유도 생길 거고 수다는 확실히 늘 거다. 거기에 노예까지 부리면 더할 나위 없다. 시베리아와는 확실히 다른 동네다. 한겨울에 시베리아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다고 해도 그거 감상할 여유가 어딴겠는가. 따듯한 곳에 가기 바쁠 거다.

시베리아 철도 위에서 아테네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시베리아 위에서 살기 위한 노력의 무게는 문짝을 열면 그대로 느껴진다고 했다. 매서운 추위를 막기 위해 문이 무겁고 아귀가 딱 맞아서 뻑뻑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아테네는 문이랄 게 필요 없는 동네다. 1월인 지금도 거리에 탁자를 놓고 영업하는 게 보인다. 되려 해를 막을 걱정을 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등이에 비유되곤 한다. 별것도 아닌데 사람을 성가시게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방금 내가 적은 말을 보고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꽤 성가시다. 의미의 의미라니? 알 거 같으면

서 말하기 어렵다.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산다. 사실 안다고 생각해야 살 수 있기도 하다. 내일 해가 뜨는 걸 알아야 오늘을 살지 모르면 뭔가 할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런 나에게 소크라테스는 너가 정말로 아는 게 뭐냐고 묻고 같이 생각해보자 한다.

아무리 날 좋은 곳이라도 소크라테스처럼 등에짓을 계속하는 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남들 다 싫어하는데 혼자 잘난 맛에 계속하는 건 심신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 이상 한계가 있다. 그러니 이름 기릴 만한 일이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알지도 못한 곳에 사는 내가 그를 알고 있다.

등에 짓 좋다. 생각하고 살라는 건 영화 속 건달도 하는 말이다. 어려워서 그렇지 생각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시베리아같이 잘못된 생각하고 실천했다간 한방에 가는 여지없는 곳을 생각하면 일단 남들이 사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조차 쉬운 게 아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자연이 밀고 들어오는 걸 억지로 막아내며 겨우 산다. 진보 없이 숨 붙이며 근근이 사는 게 무시할만한 일이 아니다.

기후 말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여지 없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반이 취약하니 부당한 대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부당한 대우니 당장 항의해야 한다는 말이 당키나 할까? 지금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는다. 소송으로 그동안의 피해를 청구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바랄 수 있는 건 법률구조공단에서 수임료를 가불 받는 방법 정도뿐이다. 억울해서 소송한다고 법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는다.

나는 늘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의견에 끌렸다. 나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이 있기 전에도 그랬다. 그냥 왠지 모르게 배운 사람 느낌이 났다. 보수적인 의견은 그냥 싫었다. 같이 사람답게 살자는 건 좋은 말이다. 이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영한 말이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길 원한다. 그러니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말하는 정치적 입장에 긍정적이다. 기존 걸 그대로 하자는 사람도 나랑 같은 동기일 수 있다. 멍청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어서 기존 걸 그대로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닐지 모른다.

취향

로마를 놓아두고 나폴리로 온 건 폼페이 때문이다. 라틴어 교재에 사진으로 실려 있던 걸 직접 보게 되었다. 별생각 없이 왔으니 머릿속에 든 게 라틴어 교재 속 사진뿐이기도 했다. 지난번에 스페인에 갔을 때 들리지 않아서 후회가 남아 있기도 하다. 폼페이에서 나온 유물은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놓여있다. 숙소에 짐을 놓고 일단 그곳으로 갔다.

오로라 보는 걸 빼면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일정이다. 나폴리는 로마에서 고속철로는 1시간 일반 열차로는 2시간이면 올 수 있고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진 폼페이는 나폴리에서 1시간이 안 걸리니 로마에서 폼페이를 들른다면 나폴리 박물관 가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폴리에서 하룻밤

묵어야 했다. 이탈리아에 있는 중간에 나폴리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나폴리에서 하루 보내고 나머지를 로마에서 연박하는 게 여러모로 편한 데 처음 새워본 일정상으론 나폴리에 도착하는 날이 박물관 휴관일 이어서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폼페이는 여행 가기 전에도 한 번 가본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나폴리 박물관은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폼페이에 대해서 대충 찾아보는데 폼페이처럼 베수비오 화산에 파묻힌 동네의 유물이 나폴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말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폼페이가 행하게 비어있는 건 아니고 옹기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복제품을 놓아둔 것도 있다.

원본을 보고 싶어서 나폴리 박물관에 흑한 건 아니다. 차라리 아주 잘 만들어진 복제품이라면 원래 있던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더 많은 걸 알려 준다. 액자에 넣어서 그림처럼 걸려 있는 진품 모자이크는 미적 대상일 뿐이다. 잘 복제해서 현관 바닥에 놓여있는 모자이크가 더 많은 걸 말해 준다. 박물관에서 본 개 모자이크는 잘 만들어진 모자이크라는 생각 이들 뿐이지만 건물 현관에 복제해 놓은 개 모자이크는 개 조심하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한다. 개 조심 표지라는 쓸모를 알게 되면 개의 표정이 더 사나워 보이고 느슨해 보였던 목줄이 금방이라도 풀릴 거 같이 보인다.

나폴리 박물관에는 중등 유물도 전시되어 있다. 미라가 담긴 관이나 이집트 상형 문자가 쓰인 비석 같은 거다. 이건 순전히 내 상상인데 박물관과 놀이동산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인터넷도 없고 통신의 폭과 속도가

느렸던 시대를 놓고 보면 박물관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물건들로 가득 찬 신비한 곳이다. 지금도 판타지 영화에서 신비한 소재로 등장하는 미라 같은 건 차차하고 이야기로만 듣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유물은 시각적 자극 거리다.

좀 더 나가보면 인터넷에서 하릴없이 재미있는 사진을 본다거나 하는 일과 박물관 둘러보는 일도 시간을 때우고 자극을 찾는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바 없다. 박물관의 일반 관람 동선에서 벗어나 보면 여러 학술적인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곳은 한 번 흥 둘러보는 사람에게는 별로 유의미한 공간이 아니다. 그냥 관람해도 얻는 게 있기가 하다만 그렇게 얻는 거나 심심해서 열어본 웹 페이지에서 생각지도 모르게 뭔가 배운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나는 박물관이 좀 더 고상하게 느껴진다. 포털에서 본 사진이나 글은 시시하고 박물관 돌아다니는 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나폴리 박물관에 간 거다. 있어 보이니까. 뭘 본격적으로 배우겠다고 갔으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갔겠지. 그래도 애매하고 모호하니 있어 보이는 게 뭔지 더 따져 봐야 한다.

호텔 방에 처박혀서 조그마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간 때우는 것보다야 그래도 머리는 감고 박물관에 간 게 더 있어 보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고급 자동차나 정장 광고를 보며 느끼는 순전히 외적인 있어 보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배운 사람이 된 느낌을 받으려고 간 건 아니란 거다.

모르는 도시에 갔을 때 본전 생각에 뭔가 해볼 거리 목록을 만들면 박

물관 가기가 상위에 있다. 나에게 박물관 가기는 눈에 익고 귀에 익은 행동이다. 낯선 동네에 가서 여유가 있다면 작은 길이라도 어느 정도 걸어 보는 편이다. 어떤 건물이 있는지 간판은 어떻게 놓여있는지 사람이 몰리는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공간에 묻은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은 살펴볼 수 있다. 부동산에서 동네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술집에서 살부딪칠 수도 있지만 내가 마주하고 싶은 세상은 그렇게 개인적이고 깊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한다는 말은 아니다. 바둑 기보 하나하나가 사람을 이긴 알파고를 학습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다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게 한 결정적인 기보가 뭐라고 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한 동네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직접 그 동네 사람을 마주하는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하는 것만큼 멍청한 일도 없다. 동네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거, 그러니까 그 동네의 세부사항을 보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만 몇몇 세부사항만 아는 건 되려 잘못된 인식에 이르게 한다. 여행 가서 택시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싸다고 택시 기사에게 덤터기 씌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 사람이 모두 사기꾼이라고 믿는 건 용감하게 무식한 거다. 적어도 그 나라 택시비는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하다.

박물관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걸 정제해 놓았다. 설명과 관람 동선이 있으니 중요한 건 강조되기 마련이다. 거리에서라면 잘 알아차릴 수 없는 것도 잘 정제된 박물관 안에서는 명확히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대표 공함은 그 나라의 현대 박물관이라 해도 된다. 보통 공

항은 이름부터 그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오기도 하고 최선 건축 공법을 사용한다. 건물의 운영도 가능한 잘 갖추려 한다. 예컨대 공항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배려는 안 봐도 알 수 있다. 공항의 안내 표지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니 불친절한 택시 기사 한 명을 만난 것과는 다르다.

벽화와 실상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안에는 벽화나 모자이크가 많이 놓여있다. 모자이크로 만든 것도 있고 그린 것도 있다. 그냥 액자에 넣어 전시하거나 원래 있던 공간을 복제해서 만들고 그 안에 벽화나 모자이크를 전시하기도 한다. 여기 놓인 몇몇 벽화와 모자이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특별전에서 본 기억이 있다. 그때는 정원 그림 그려 놓는다고 방이 커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 싶었다. 또 저녁에 촛불이 벽화를 비추면 참 기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벽에 뭔가가 칠해 놓은 게 익숙해져서인지 전시되어 있는 벽 장식이 공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눈에 보였다. 막힌 벽에 그려놓은 유리창은 정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창 그림이야 실제처럼 빛이 쏟아지지는 않으니 좀 어설피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식물은 반짝이는 부분도 적고 해서 정말 똑같이 보인다. 사진을 넘어서 벽면을 액정화면으로 채우기도 하는데 벽화도 뒤질 게 없다. 카메라로 녹화해서 보여주는 화면도 내가 비슷

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진 않는다. 예르전에 진짜같이 보이던 컴퓨터 그래픽 효과가 지금 보니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것처럼 사진 없던 시대는 벽화가 진짜처럼 보일 거라 본다. 그리고 화면이든 벽화든 생명 유지를 위해 벽으로 안을 만들고 밖이 그리워하는 묘한 일인 면도 있다. 벽화가 시시해 보인다는 생각을 그대로 내 방안으로 가지고 와보면 지금 놓인 벽지도 나중에는 참 우스운 일일 거다.

나폴리 박물관에서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층은 중앙에 큰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의 넓이만큼이나 높은 천장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 올라가는 계단도 충분히 커서 다음 나올 큰 공간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높은 천장에 그려진 창문이나 문틀 그리고 기둥들은 얼핏 보았을 때는 진짜로 보였다. 들어갈 곳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창문을 보고 그리고 나올 곳이 나온 기둥을 보고 그림이란 생각이 들진 않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림인 거다. 그래서 한 번 놀라고 뒤에 또다시 자세히 보니 일부는 정말 창문이어서 놀랐다. 그림이니 위치를 달리하면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비수기에다 폐장시간이 다가와 사람이 없는 약간 어두운 그 큰 공간에서 혼자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헛갈려 한 건 남이 보았을 때 볼만한 구경거리였을 거다.

나는 어렸을 때 사진을 찍으면서 참된 모습이 뭔지 궁금했다. 디지털카메라로 본 세상은 서로 다른 두 값의 연속이다. 디지털 사진을 확대해보면 더 이상 나뉘지 않는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디지털카메라 시장이 막 흥할 때는 얼마나 많은 값을 나타낼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한 사진을 표현하는 점의 개수가 백만 개인지 삼십만 개인지는 큰 차이

가 났다. 색과 명암 표현은 복잡하니 일단 제외하면 표현하는 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사진 더 현실과 똑같아진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점을 추가해도 세계는 늘 더 작은 점들로 나뉘어 표현된다.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을 이루는 광자 하나와 사진 속에 점 하나가 일치하는 사진이라 해도 내가 보는 세계를 그대로 나타낸 것도 아니다. 빛을 초록색과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누고 각각 밝기를 인식해 색을 파악하는 건 더 복잡한 문제다. 카메라야 인간이 눈을 기준으로 만든 거니 모자란 것도 보이고 그런다. 눈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보이는 걸 난 경험하지 못했다. 뭔가 좋은 걸 생각이나 할 수 있어야 내 눈이 거기에 못 미치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려진 창문은 일단 진짜 창문을 따라 한 거다. 정교한 기계인 사진기보다 사람 손이 잘났을 리 없다. 그런데 나는 진짜 창문과 그려진 창문을 혼동했다. 나는 실상은 모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본다. 내 눈에 똑같은 색이지만 어떤 뛰어난 감각으로 보면 다른 색일 수도 있다. 곡선이 직선으로 보이고 같은 길이의 선분이 서로 달라 보이는 거 같은 착시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다. 여튼 그림이 진짜 같은 경험은 그림보다 더 거칠고 영성한 모자이크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은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사용할 수 있다. 사진 보는 방법은 내가 익숙한 모국어 같은 거다. 편안한 사진을 보니 굳이 외국어 같은 그림과 모자이크를 찾아볼 필요가 없다. 심지어 그림과 모자이크도 사진을 통해 본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을 때 모자이크나 벽화가 어설피게 느껴진 거고 여행을 다니며 사진이 아닌 다른 걸 보는 방법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기에 벽화와 모자이크

를 보고 일상과 다른 경험을 한 거다.

「아테네 학당」

바티칸 미술관을 구경하다 보면 전시 공간과 전시물이 일치하는 「라파엘로의 방」이 나온다. 여러 방 안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육 면이 꼭 막힌 공간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답답할 법도 한데 천장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있으니 답답함이 사라진다. 단순히 천장이 높아지거나 창문이라도 있으면 좀 트인 느낌이 난다. 라파엘로의 방은 천창이 있지 않고 천장이 비정상적으로 높지도 않다. 벽화의 이야기가 천장에 곁들여지면서 현실 너머의 깊이를 만든다. 벽화에 그려있는 다양한 모양으로 장식된 기둥과 창은 바라보는 지점에 따라 진짜 같다. 그리고 평면이 아니라 돌출된 장식도 있는지라 어떤 게 평면에 그려진 거고 어떤 게 정말로 깊이가 있는 장식인지 혼란스럽다.

나는 어떤 게 잘 만들어졌는지 볼 때 끝을 보란 말에 동의한다. 끝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기 쉽기 때문이다. 반대로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있으면 잘 만든 거다. 그런데 이 방안에 벽화는 끝을 찾기 어렵다. 분명 공간 자체와 벽화는 다른 거다. 그런데 벽화의 영역은 들쭉날쭉해서 칼로 자른 듯 딱 나뉘지 않고 벽화 속 기둥이나 장식이 실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짜 잘 만들어진 건 끝이 잘 마감된 게 아니라 끝이 없는 거다.

좀 더 가다 보면 「아테네 학당」을 볼 수 있다. 미술관 입장권에 인쇄되

어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히 철학가 가야지 하던 시절에 자주 보던 그림이다. 철학과에 오기 전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보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플라톤의 손짓과 땅을 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짓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다. 졸업했다고 이 그림에 대해서 오디오 가이드보다 뭔가 더 안채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언제 한번 봐야만 할 건 보러 온 거다. 뽀루통한 표정의 십 대들이 부러웠다. 동네 미술관 견학 가듯이 이곳에 온 거니 말이다. 한참을 머물다 나갔다.

규모

관람 동선은 시스티나 성당 안으로 이어진다. 이 성당 안에서 생각한 것도 「라파엘로의 방」에서 생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엄청 크다는 거다. 성당이 특별나게 크다는 게 아니라 성당을 꼭 매운 벽화가 어마어마하다. 이쯤 되면 막 그려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법한 데 잘 그려놓기까지 했다. 원상태 그대로 유지된 건 아니고 나체였던 인물에 천이 걸쳐지거나 90년대 초반에는 크게 보수되기도 했다.

성당 안은 발 디딜 틈이 없다. 한참을 서 있어야 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벽화를 볼 수 있다. 넋 놓고 서서 보다가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많으니 웅성웅성해지는 소리가 점점 커질 때가 있는데 그때 사제가 나와서 이곳은 성스러운 공간이니 다소간 조용히

할 걸 부탁하며 각 나라의 말로 사람들을 축복해준다. 그럼 사람들은 조용해졌다가 시간이 흐르고 웅성웅성한 소리가 커질 즈음이 되면 또 사제가 나와 사람들을 축복한다.

부족한 게 없으면 규모는 썩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모두가 더 원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이룰 수 있게 자원을 몰아줬다는 점은 규모 있는 것의 의미 중 하나다. 규모를 이루는 건 단지 특정 기술에 탁월해서만 되는 게 아니다. 꼭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별로 되지 않는다. 다른 이의 손을 빌 수밖에 없으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을 거다.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조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끌어안거나 너무 잘 해내서 질투 나는 부분을 인정해야 거대한 규모가 이뤄진다. 당장 살면서 나는 남이 조금이라도 잘난 것에 배알이 꼬이고 작은 가시만 박혀도 못 한다. 그래서 규모를 이루는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규모 있는 걸 이뤄보고 싶다.

갑을 관계

내가 바르셀로나로 가는 여정을 기다린 피우미치노 공항 2터미널은 창에 시트지를 발라 놔다. 어릴 적 살던 아파트 발코니 창에 아버지가 발랐던 시트지와 비슷하다. 하얀색 직사각형이 틈을 두고 사방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모양인데 사각형 사이는 투명해서 새가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 가끔 새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가서 사고 나니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승객의 시선을

공항 직원이 의식한다면 보이지 않을 때 대충 하던 것도 좀 더 신경 쓰려 할 거다. 그렇다고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하나 트집 잡아서 겁박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은 늘 실수하는데 모든 일에 하나하나 지적이 들어오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거다. 공항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사고가 나면 승객은 목숨이 위험하고 공항도 영업에 문제가 생긴다. 숨김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니 서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9장

건축공학과 의 기억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은 적이 있다.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은 와보진 못했다. 그 길을 걸을 때 만난 스페인 사람들을 통해 안 건 바르셀로나 축구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마드리드 축구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단 거였다. 스페인은 지역감정이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하나로 엮여 있는 꼴이다. 그 외에 내가 바르셀로나에 대해 아는 건 건축공학을 배울 때 건축가 가우디와 카탈루냐 볼트 공법에 대해 들어 보았을 뿐이다. 그래도 다녀와 본 스페인이라는 생각에서 인지 누런색 바르셀로나 해안이 보이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해외여행 중에 한식은 접하기 어려우니 한국에서 익숙한 맥도날드를 먹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라이언 에어는 착륙하면 팡파르를 울리려고 승객들은 손뼉을 친다. 아마도 버스보다 짠 비행기를 타고 살아 내린 현실에 안도하는 거 아닐까.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건 유쾌한 일이다. 내가 내린 바르셀로나 공항 터미널은 면세구역은 출발층과 도착층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만약 환승한다 치면 나온 곳에서 바로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출구로 나가서 굳이 비싼 공항버스 탈 이유는 없으니 시내버스 타는 곳으로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럽연합 이전에도 유럽 안에서는 국경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입국심사나 출경심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기에 국내선 취급한다고 한다. 그러니 굳이 공항 안에서 동선 분리를 할 필요가 없던 거다.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니 동선 분리가 되어 있다.

버스를 탔다. 생각 없이 “올라”라고 인사했다. 버스 기사도 답해줬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서 중간에 사람을 만날 때면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서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 버스 탈 때도 인사하니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바르셀로나는 시골이 아니다. 나중에 잘 살펴보니 나만 인사한 거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보니 이 동네는 내가 지금까지 다닌 동네와 확실히 다르다. 땅 파면 유적이 나오는 아테네와 로마는 서울과 닮았다. 이 도시들이 바르셀로나와 다른 점이라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리 아픈 걸 해결해주는 대중교통에 있다. 걷든 버스나 지하철을 타든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건 신기한 일이다. 여기에는 계획도시인 바르셀로나와 다르게 땅 파면 나오는 유적과 유물을 쉽게 밀어낼 수 없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상하게 서울의 대중교통은 바르셀로나와 닮았다. 내 기억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도로 같은 거대한 토목공사는 참 많이 있었고 심지어 빨리 진행되었다. 많은 게 공구리에 묻혔을 거다. 한편으로는 아테네와 로마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시대의 지층이 유지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위적이기도 하다.

구엘공원

구엘 공원에 갔다. 체크인 시간이 한참 남았고 무료 개방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한 바퀴 돌아보는데 유료로 갈 수 있는 구역이 너무 눈에 띄었다. 또 못 참고 입장권을 끊었다. 입장권 판매기 앞에 사람이 서서

일일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스페인에 왔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가지고 있던 카드 3개가 다 먹통이었다. 기계가 다른 카드 있냐고 하면 사람이 다시 나한테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는 꼴이 웃겼다. 결국 모든 카드가 안 되니 사람이 있는 매대로 가라고 했다.

구엘 공원 안에 있는 저택을 둘러보려 줄을 섰다. 내 앞쪽에는 한국인 모녀가 있었는데 어머니 쪽이 딸에게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연인이 해외여행 온 경우가 많다고 뭐라고 하자 딸도 자신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 했다. 그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데 구엘 공원에 와보니 엄청난 곳도 아닌데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냥 이름나서 인기 때문일 거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았으면 가우디가 누군지 바르셀로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거다. 나는 다른 이의 가치에 별로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러면 산에서 풀 뜯어 먹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심지어 뭘 풀이 먹으면 죽는 풀인지도 기존 지식에 기대야 한다. 내가 비록 남의 말에 흘려 구엘 공원에 온 건 확실히 인정하고 이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아야 한다. 그게 남들이 좋다고 한 걸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한 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다.

바르셀로나로 출발할 때만 해도 구엘 공원 무료 구역 한 바퀴 돌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로 일정을 마치려 했다. 입장권도 비싸고 곡선과 장식이 많은 가우디의 건축도 썩 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집을 한 번 지을까 말까 하다. 그러니 질 때 살뜰히 질 수밖에 없다. 쓸모없는 공간이나 불필요한 장식은 하고 싶어도 돈

이 없어 못 하는 경우도 많다. 가우디의 건축은 값싼 돼지 앞다리만으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찬장에서 여러 가지 비싼 향신료를 꺼내는 요리 프로그램 같다.

이 생각은 저택에 입장해서 확실히 바뀌었다. 따지고 보면 무료 구역을 구경하다 흘러서 입장권을 끊었을 때부터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말이다. 가우디의 다른 건축도 보기로 했다. 이 저택 안은 참 좋다. 앞서 규모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3칸 방을 살뜰히 지은 집보다는 방 1칸 있지만 이런 저택 같은 집을 선택할 거다. 파란 벽의 좁은 계단을 올라 좁은 참을 딛고 문을 넘으면 나타난 하얀 방이 참 마음에 들었다. 천장은 모난 곳이 없다. 중간중간 자잘한 보가 촘촘히 박혀 있지만 부들부들하다. 삭막한 아파트가 아니라 고래 뱃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고래한테 잡아먹혔다는 게 아니다. 벽과 보가 역지로 천장을 버티고 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마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느낌이다.

스케치 4

구엘 공원을 둘러보다 비가 왔다. 체크인 시간도 되고 해서 천천히 숙소로 걸어갔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골목을 걷는 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관광지를 조금만 비끼면 비로소 내 일상과 비교할 만한 것들이 보인다. 한국에서도 관광지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곳이다. 관광객이 많은 명동을 가도 내가 마주하는 명동과 관광객이 마주하는 명동은 너무 다르다. 편안하게 읽고 들을

수 있는 중국어가 있으니 그 뒤에 놓인 한국어는 신경 써야 보인다. 그러나 차라리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나 불편한 공간으로 오는 게 일상과 비교할만한 걸 찾는 좋은 방법이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쓰레기통 혹은 슈퍼마켓 카트의 모양이나 진열 순서 같은 걸 수도 있고 공사장의 모습이나 신호등, 아이를 나무라는 거리의 소음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동네는 거대 브랜드 매장은 별로 없고 이거저거 파는 장사 안될 거 같은 작은 가게들이 많다. 쇼윈도 앞에 멈춰선 사람도 자주 보인다. 구석진 골목에 가면 꼭 하나는 있는 신앙촌 상회 유리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도 한다.

하필 온 날이 일요일이고 관광지지만 역시 스페인답게 가게도 드문드문 열었다. 먹고 싶은 음식을 팔던 가게도 문을 닫았다. 마트라도 들리고 싶었으나 주변에 있는 건 문을 닫았고 중국계로 보이는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생수를 비싼 돈 주고 샀다. KFC에 들러 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를 시켰다.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재차 확인했다. 받고 보니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시 포장해달라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두고두고 먹었다.

실수 2

이제 곧 오로라를 보러 가야 한다. 다행히 나는 눈도 많은 나라에서 차를 혼자 끌고 다니는 짓을 할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다. 트롬쇠에 서는 3일을 있을 거니 오로라 투어는 날씨를 보고 하루만 신청하기로 했

다. 불행히도 3일 모두 오로라 볼 확률이 적었다. 그나마 비가 오지 않는 날을 택해 오로라 투어를 찾아보았다. 숙소를 예약할 때 많은 호텔이 따로 할인 방법이 없었기에 이 동네는 그냥 정가대로 사고 낸 만큼 받는다 고 생각했다. 오로라 투어도 내가 낼 수 있는 돈에서 먹을 거 조금과 방한복을 제공하면서 가능한 인원이 적은 상품을 택했다.

문제는 투어가 이중 결제되었다는 거다. 첫 번째 결제 후 먹통이어서 다시 결제하고 메일 창을 열었는데 확인 메일이 두 개가 와 있었다. 업체와 중계 사이트에 이메일로 오류로 잘못 결제되었다고 알렸다. 약관을 살펴보니 기일이 다가와서는 환불 불가 조항이 있어서 내심 불안하기도 했다. 사실 저녁이어서 전화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마음 졸이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이다. 이런 상황을 잘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한 실수뿐 아니라 남이 한 실수를 대할 때도 말이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럼 당장 할 건 실수를 복구하는 거다. 되려 초조하면 더 큰 실수를 만든다. 나무람과 반성은 시간이 지난 뒤 해도 된다. 사람이 개도 아니고 바로 혼내지 않는다 고 기억 못할 리 없다.

라 페데라

가우디의 건축인 라 페데라와 카사 바뜨요 그리고 라 사그라 다 파밀리아는 예약한 입장 시간에 입장할 수 있어서 굳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이차원 바코드로 입장권이 휴대전화로 보여주면 된다. 나는 굳

이 입장권을 모아놓지 않기에 이편이 훨씬 편하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침탑은 가이드 투어를 끼워팔기 하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다. 다른 여행기를 찾아보니 끼워팔기도 없었고 가격도 엄청 오른 거다.

라 페데라는 볼 게 많았지만 까사 바뜨요의 입장 시간이 촉박해서 서둘렀다.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했는데 볼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생각했던 게 아쉽다. 라 페데라 옥상은 여러 조형이 서 있고 구불구불하다. 옆으로만 구불구불한 게 아니라 옥상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계단도 그에 맞춰 들쭉날쭉하다. 중앙이 비어있는 형태라 내려다보면 잘게 굴곡이 있어 안이 왜곡되어 보이는 창과 넝쿨 같은 철제 난간을 볼 수 있다. 구불구불한 옥상 난간이나 조형은 반죽을 펴서 마감하거나 크거나 작은 돌과 타일을 붙여 놓았다. 난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연결되어서 인지 어색함이 없다. 그래서 재료들이 만나는 곳을 신경 쓰면서 보았다.

벽돌로 만든 독특한 뼈대가 보이는 지붕 아래 공간에서는 가우디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다. 그가 만든 건축물 뿐 아니라 가구도 전시하고 있다. 가우디는 라 페데라 문의 손잡이나 타일 같은 것도 신경 썼다. 바르셀로나 거리의 타일 중 일부는 가우디를 기념하기 위해 그가 만든 타일을 복제해 놓은 거다. 전시 공간에서 내려가면 당시 모습을 복원해 놓은 주거 공간을 볼 수 있다. 행한 게 아니라 가구도 그대로 놓여있고 침구와 의류와 커튼 같은 직물도 잘 전시해 놓았다. 건물은 주출입구가 있고 집사나 가정부가 오가는 부출입구가 있다. 부출입구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어둡긴 하지만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천장도 계단도 난간이나 손잡

이도 모두 둥글둥글하다.

까라 바뜨요

라 페데라도 그랬지만 까사 바뜨요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라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까사 바뜨요 내부 는 당시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지 않고 텅 비어 있다. 오디오 가이드를 겸 하는 스마트폰을 들어 건물 내부를 살펴보면 증강현실을 통해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까사 바뜨요도 독특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도로 쪽으로 나 있는 큰 창이 참 기억에 나는데 목조로 짠 창틀은 환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있고 건물 외벽에 맞춰 구불구불하다. 창 또한 사각형이 아니고 구불구불하고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들어진 상단이 들어오는 햇빛을 줄여 준다. 창 너머로는 기둥이 보이고 그 너머로 거리가 보인다. 계단을 관통하는 엘리베이터도 범상치 않게 생겼다. 계단에서는 건물 안의 정원을 볼 수 있다. 정원으로 나 있는 창문과 창틀은 구불구불하고 파란색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다. 계단 난간에 있는 울렁거리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구불구불하면서 푸르스름한 타일 벽은 카사 바뜨요를 요약한 모습이다. 각 현관은 푸른 타일 안에 목재로 만들었는데 밋밋하지 않고 다양한 곡선이 있다. 현관에 적인 알파벳 표식도 가우디의 건축처럼 독특하다.

가우디는 현관 표식이나 문손잡이 같은 걸 신경 쓸 정도로 세부사항에 신경 썼다. 그렇지만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한 건 아니다. 자세히 보면 영

성한 곳이 있기 마련이다. 세부사항을 신경 쓴다고 전체가 완성 되는 건 아니다. 문손잡이 하나에 신경 쓸라 치면 건물 하나 지을 만큼 신경 쓸 거리가 생긴다. 아무리 완벽한 문손잡이를 만들고 타일 하나하나를 신경 썼다고 해도 그건 건축의 부품일 뿐이다. 서로 모여 한 건축물이 되었을 때 세부사항도 살필 수 있는 거다. 나는 문손잡이 하나에 집착하다 건축물 전체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뭐가 아쉽다고 까사 바뜨요를 나와 다시 까사 밀라 외관을 보러 갔다. 문손잡이를 완성하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다시 문손잡이 살피러 간 꼴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큰 건물 외관의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걸 알 수 있다. 가우디는 말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설에 집중하느라 물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전차에 치였는데 부랑자인 줄 알고 전차 기사가 뺑소니를 친다. 거리에 쓰러진 행색이 좋지 않은 환자를 여러 병원이 거부하느라 치료가 늦어졌다. 나중에 신원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려 했으나 이미 성이 난 가우디는 병원 옮기는 걸 거부하며 죽어갔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에 묻혔다.

건물 외부처럼 내부도 여러 사람이 참여한 게 보인다. 좀 독특한 건 전기 냄새가 난다. 지금까지 여행에서 내가 본 성당과 다르게 조명이 현대적이다. 스테인드글라스가 해야 할 역할을 조명 앞에 그려진 그림이 하

기도 한다. 대장이 죽었으니 길을 잃는 건 당연할 거다. 큰 일개는 있어도 작은 거 하나하나를 모두 생각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아무리 정확한 도면을 들고 건축해도 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작게 짓거나 가상으로 지어보기도 하지만 건축하며 생기는 모든 현실을 기술하는 건 똑같은 건물 짓고 다시 짓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진품과 가품이 섞인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런데 규모 있는 일은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같지가 않다. 섞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나는 내가 아닌 걸 먹고 살아간다. 잡스러운 게 안 섞인 자동차를 샀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때도 타고 꾸겨지기도 하고 고장 난 부품은 대체되기도 한다. 어디 완벽한 게 있을까. 다른 걸 안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편을 나누려 하는 건 어머니가 세상인 전부인 시절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꼴 밖에 안된다. 실패 한 번 했다고 세상이 끝날 거 같이 구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오점 없는 무결한 삶은 이야기 속에나 있다. 쉽진 않은 일이지만 망한 거 같아도 다 끝날 때까지 꾸준해야 한다.

이별 4

사그라다 패밀리아를 나와 마트에 들러 장을 두둑이 보았다. 노르웨이 시내버스가 오천 원 정도 되는 걸 알게 된 뒤로 노르웨이에서는 되도록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 스페인은 그나마 이 여행에서 내가 가

장 익숙한 곳이다. 예전에 보았던 음식들이 있어서 기분 좋게 매장을 돌아보았다. 가방이 터지려 했지만 같이 산티아고까지 걸었던 사촌을 위해 팔뚝만 한 과자도 하나 챙겨 넣었다.

버스 터미널에 들어가 마드리드행 버스를 기다렸다. 어제와 오늘은 가우디에게 강도 당한 날이다. 아테네와 로마가 조상 덕에 관광객을 강도질하는 것과 다르게 이 동네는 한 귀인 덕분에 수월하게 강도질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귀인은 바르셀로나의 삭막한 처우 때문에 죽었다. 세상일이란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역시 스페인이다. 30분 출발 버스인데 31분이 되어도 기사가 탈 생각을 안 한다. 느긋느긋 오는 사람까지 다 태워주고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 표도 이차원 바코드로 나오는데 주먹만 한 스캐너로 확인한다. 이차원 바코드 스캐너가 많이 공급된 동네다. 버스에 타면 비행기처럼 땅콩도 쥐여주고 물도 주고 이어폰도 준다. 버스에 작은 화면도 있어서 인터넷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다.

10장

스침

마드리드

차이

마드리드로 온 건 오슬로행 항공권이 싸서다.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까지 심야 우등을 탔고 가격도 숙박비보다 싼으니 나한테 좋았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오를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탈 것 타는 게 참 좋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우등버스니 굳이 바르셀로나에서 머물다가 돈 더 주고 오슬로행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었다.

같은 스페인이지만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 택시 색부터 다르다. 검은색 택시를 보다가 갑자기 하얀색 택시가 보인다. 비행기를 타야 해서 마드리드를 돌아보진 못했다. 버스 내린 곳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들어갔다. 마드리드 공항 음수대 물은 로마 수도물 보다 먹을 만했다. 보안 검색 구역에서 바구니를 롤리에 실어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구니 하나를 들고 엑스레이 투시기를 오가는 걸 보니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스페인이다. 바구니를 포개서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씩 옮긴다.

공항은 누군가 떠나면 영영 잡지 못할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버스 터미널과 비슷한 느낌이다. 이제 누군가 공항에서 떠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 공항에 갔을 때 느꼈던 긴장스런 낯선 어디 가야 느낄 수 있을까? 잠시 지나간 마드리드에서도 바르셀로나와 확연히 다르게 눈에 보였다. 지천으로 널린 게 새로운 건데 내가 무더진 건 아닐까.

11장

오로라를

마주하다

트롬쇠

선진국

노르웨이는 이미지 속 선진국이 맞다. 도착에서 비행기 창 너머로 수화물 내리는 게 보였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 중국산 탑승교를 건너 오슬로 공항으로 들어오니 나무 향이 난다. 가구도 꽤 좋다. 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책상도 듬성듬성 놓여 있다. 공사장에서 헬멧과 손전등 그리고 A3 파일에 도면까지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자니 비용에 눈이 멀어 부실 공사는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 공항은 파이널 콜이 없다. 비싸서 사람도 없지만 면세점에 정신 팔린 승객 찾아 돌아다니는 항공사 직원도 없다. 시간 되면 비행기 문 닫고 떠난다.

트롬쇠행 비행기를 타는데 앞에 큰 배낭을 메고 있는 애를 안은 사람이 있었다. 동작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저기서 승객들이 아이에게 인사해 준다. 아테네와 다르게 여유로운 동네다. 자리에 앉으니 옆에 앉은 사람도 인사했다. “하이! 하이!”하며 인사하는데 “이”의 끝을 빠르게 올리는 억양이 유쾌하게 들린다. 노르웨이지안 에어 탔는데 기내 안전 안내 표에 아이용 구명조끼 착용법이 나와 있다. 나는 처음 본 그림이다.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오슬로에서 내릴 때도 그랬지만 비행기를 탑승교에 대고 뒷문에도 계단 차를 대준다. 빠르게 내릴 수 있어서 좋다. 뒷문으로 나왔는데 찬 바람이 엄청 불어 북극 근처에 있는 게 느껴졌다.

공항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다. 엄청 넓고 안에 개수대까지 갖춰져서 우리나라 허름한 가게에 있는 그런 남녀 공용 화장실은 아니다. 돈만 충분하면 공공화장실은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면적과 변기 수 문제로 논의하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줄 서는 것도 아주 공평하다. 여자 화장실은 미어터지고 남자 화장실은 한적한 비효율도 피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버스 승차권을 카드로 샀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노르웨이 크로네를 환전해서 들고 다닐 이유가 없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할 때는 긴 터널을 통과한다. 트롬쇠는 산을 두고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싸는 형태다. 눈이 오면 산도 넘기 힘들고 그래서인지 가운데 있는 산을 크게 십자형으로 질러 냈다. 터널 안에 로터리가 있어서 다른 터널로 갈아타는 식이다. 시내에 내려 숙소로 향했다. 스페인에서처럼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고 신호등 아래 터치 버튼을 조작하면 금세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다. 도로는 제설차가 수시로 다녀 눈이 별로 없고 보도는 쓸지 않고 자잘한 자갈을 뿌려서 미끄러움을 방지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숙소에도 기억나는 게 있다. 모든 전기기기에 타이머가 달려있다는 점에 놀랐다. 전열기는 타이머를 눌러 전기가 통하는 시간을 지정해야 작동한다. 과열되어서 화재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라고 본다. 전등에는 24시간 타이머가 달려서 불 켜지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다.

오로라

오로라 투어가 시작하는 관광안내소 앞으로 갔다. 강한 바람을 맞으며 서성이고 있으니 기골이 장대한 여성이 투어를 신청했냐고 물

었다. 통성명하고 승합차에 올랐다. 안에는 승객이 볼 수 있는 속도계가 있었다. 갓 대학에 입학한 거 같은 중국인 이십 대 연인과 자신들은 중국이 아니라 홍콩에서 왔다고 말한 같은 나이 대의 연인 그리고 영국에서 홀로 온 사람 한 명과 두세 명이 더 탔다.

방한복을 덧입고 오로라를 볼 장소로 가는 동안 가이드는 트롬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 동네는 집에 사람이 없어도 커튼을 열어 놓고 불을 켜놓아서 밖에서도 환히 안이 보인다고 한다. 도둑 걱정도 별로 없다고 했다. 밤에 산속에서 불빛이 하나 내려오는 게 있으면 유령은 아니고 스키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한다. 평일에도 퇴근을 하면 스키를 지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온다고 한다.

그렇게 가다 차에서 내렸다. 바람이 심하게 분다. 방한복이 윈피스여서 팔을 펴면 하늘다람쥐처럼 바람을 탈 수 있다. 가이드는 한켠에서는 사진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오로라 촬영을 위한 조리개나 셔터스피드 설정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야 관심 없으니 한쪽에서 하늘다람쥐 놀이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빙하가 만든 좁은 만과 높은 산들이 낮은 한 편 마음에 들었다. 달력을 두 장 넘긴 것과 비슷한 이유다. 아직까진 부드럽고 적당한 거보단 강단 있고 확실한 게 좋다.

오로라를 보지 못해 자리를 이동했다. 가이드는 이동하는 내내 오늘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냥 우린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로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수치를 보여줬다. 또 구름이 많아서 못 볼 거 같지만 구름에도 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와중에 차가 언덕에서 눈에 빠졌다. 사람들이 다 내려보고 밀어도 보고했지만 꼼짝도 안 했다. 제설차가 지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차를 줄로 묶어서 빼주려 했다. 나는 중장비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싫으니 길 건너 멀찍이 떨어졌다. 영국 사람도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내 근처로 왔다. 종이봉투를 나에게 권해 뭐냐 하고 보았는데 술병이었다. 한 모금 얻어 마시고 있다 보니 차가 빠져나왔다.

다음에 내린 곳에서도 오로라는 보이지 않았다. 가이드는 삼으로 썰매도 타자고 하면서 사람들의 지루함을 달래려 애를 썼다. 검은 하늘을 낮 놓고 보고 있으면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구름이 개면서 하늘이 맑아지고 푸르스름한 빛이 보일 거 같다. 하지만 사진기를 들이대보면 그냥 검은 하늘일 뿐이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다. 정말 오로라를 보고 싶으면 트롬쇠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았을까.

혼자 우울하게 공상을 떠나 즐겁게 노는 무리와 동떨어져 있었다. 가이드도 내가 공상떨고 있으니 마음에 걸렸는지 몇 마디 건넨다. 굳이 오로라를 못 봐서가 아니라 원래 난 모르는 사람이라 있는 걸 어색해한다. 난 별로 이런 내 모습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디 외딴 나라까지 와서 이려고 있으니 썩 내가 싫어진다. 혼자 공상떠는 내 모습을 싫어하는 날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러다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말도 붙이고 할 거다.

의미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낯섬을 마주하는 건 여행의 의미 중 하나다. 새로운 외부환경에 반응하는 잘 생각하지 않던 내 모습도 낯선 거다. 또 극점 근처에 온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낮에 해가 뜨지

않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똥맞은 곳에 조용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좋다. 비록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결국 내 여행은 싸구려 신파가 되어가는 중이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목적인 걸 못 이루고는 결국 내 맘대로 되는 건 없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분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오로라도 보이지 않고 밖은 출기만 해서 차에 다시 들어왔다. 아까 얻어먹은 술 때문인지 감기 기운이 돌았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차로 돌아왔다. 가이드도 돌아왔다. 이미 약속된 가이드 시간도 지났다. 이제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상황도 아니다. 사람들은 오두막 아래서 모두 해안 쪽을 바라보다 돌아온 건데 오두막 반대편에 있던 운전기사도 돌아오고 있었다.

(차에 들어오기 전에 희미한 오로라를 보고 차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확실한 오로라를 본 걸 수도 있다. 오로라에 흘려서 기록을 세세히 하지 않았고 기억도 흐릿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기사 덕분에 오로라를 보았다고 모두가 손뼉 친 기억은 확실하다. 이를 생각해보면 내가 적은 대로 흐릿한 오로라를 보고 기다리다 오로라를 제대로 본 게 맞을 거다.)

운전기사가 오두막 반대편에서 오로라가 보인다고 했다. 구름 틈새로 아주 잠깐이지만 어둡지 않은 하늘을 보았다. 오로라라고 말해주고 카메라로 오래 노출해 찍어 보여줘서 안 거지 몰랐으면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거다. 어찌 되었든 오로라를 못 본건 아니게 되었다. 가이드가 좀 더 있어 보자고 했다. 그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 반대편에 구름이 걷히고 오로라가 보였다. 가이드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차

를 빌리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관측 지점에 가려고 했다. 그렇게 했으면 엄청난 오로라가 나타난 게 아니라면 오로라가 나타났는지 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올 뻔했다. 가이드가 방향을 말해주고 어디 근처에 있다고 말 해줄수록 오로라는 점점 선명해졌고 알아차릴 수 없었던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다.

적외선이나 자외선 사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적외선과 자외선이 사진에 나오듯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비슷하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색을 설명하는 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오로라가 딱 그렇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빛을 보는 건 놀라운 경험이다. 하얀 건 구름이고 푸른 건 하늘이니 구름은 어디까지가 구름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처음 본 오로라는 어디까지가 밤하늘이고 어디까지가 오로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내 머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고장 난 느낌이다. 보고도 저게 맞는지 사라졌는데 잔상이 남은 건 아닌지 얼마간 의심했다. 오로라 익숙해지니 움직이는 것도 보인다. 오로라가 움직이는 건 정말 굉장한 광경이다. 말 그대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 앞에 있는 건 맞지만 단순히 보는 거 이상의 경험이다.

스케치 5

비가 온다. 어제 너무 늦게 자서 피곤하다. 몇 폰 아껴보자고 2박 예약했던 숙소를 1박으로 줄이고 더 싼 숙소를 예약한 게 후회스럽다. 이대로 그냥 쪽 자고 다음 날 런던으로 떠나고 싶는데 씻고 몸을 추슬러야 한다. 시간 되면 문 닫고 출발하는 오슬로 공항을 경험하니 1분만 늦어도 레이트 체크인 비용을 받을 거 같았기 때문이다.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날도 어두웠다. 트롬쇠는 아주 작은 동네여서 특별히 오랜 시간 버틸만한 장소가 나오지도 않았다. 비 피하고 쉴 곳이 필요해서 들어간 곳이 도서관이다. 여행까지 와서 도서관에 짱박히다니 한심한 일이다. 그렇지만 책 냄새가 편했다. 다른 곳에 온 느낌이 아니라 늘 오던 곳에 온 느낌이다. 대규모 체인 호텔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도서관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트롬쇠의 도서관이나 동네 도서관이나 똑같이 편안한 느낌이다. 체크인 시간에 딱 맞춰 일어나지 않고 더 있었다.

도서관이 가장 편안한 건 다른 걸 잘 못 해서일까 아니면 이게 정말 편안해서일까. 사실 나는 전자라고 생각한다. 다른 걸 못해서 이려고 글도 쓰고 있고 그나마 책도 읽었던 거다. 그나마 편안한 걸 찾았고 다른 건 씹히고 싶지 않았으니 온 힘을 다해 내가 읽고 쓰는 걸 해야 한다고 정당화했다. 다른 일은 하고 싶지 않으니 미약하게 하고 싶던 일이 더 강렬하게 하고 싶게 된 거다. 그런데 다 이런 거 아닌가? 어디 처음부터 강렬히 원하는 게 있을까? 그리고 남들보다 나에게 수월하고 편안하다는 건 꼭 뛰어나지 않아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다.

3시도 되지 않았는데 밤이 되었다. 북극에 가까운 게 새삼 느껴졌다. 보이는 풍경도 빙하가 만든 깎아지른 산과 깊고 좁은 만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더 하다 일어났다. 미끄러운 눈길인데 차들이 참 잘 다닌다. 거지도 부러워지는 동네다. 그리스의 날씨만 있었으면 정말 최고의 동네일 거다.

숙소

이번 여행 중 처음으로 개인 혼자 운영하는 숙소를 찾았다. 살인적인 노르웨이 물가 덕분이다.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다. 주택을 개조한 집이었다. 난 안전 때문에 모르는 동네에 와서는 처음부터 숙박업을 위해 건축하고 운영되는 인가된 규모 있는 숙소가 좋다고 생각한다. 개인 집 방 한 칸을 빌리거나 소파 하나를 빌리는 것도 현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여행을 망치거나 최악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버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해서 환전한 100 노르웨이 크로네를 사용하려 했는데 주인장이 결제 시스템을 잘 다루지 못했다. 결국 전부 카드로 결제했다. 호텔 중계 사이트는 미리 결제하면 적립이라 쿠폰 할인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숙소도 그렇고 이곳도 그렇고 어떤 혜택도 적용되지 않았다. 취소 기한도 돈을 먼저 내나 나중에 내나 같았기 때문에 굳이 미리 결제할 이유가 없다. 주인장은 와플이 포함된 아침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노르웨이치고는 아주 싼 거라고 했다. 나는 아침이 포함되었

다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 별말 하지 않았다.

방 안에 이상하게 와플 굽는 기계가 있었다. 옆에 와플 그림의 스프레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와플 반죽인 줄 알았다. 역시 선진국 노르웨이는 별천지구나 했다. 한번 뿌려보니 와플 기름이었다. 주인장이 문을 두드렸다. 아침이 포함된 건데 자신이 실수했다고 한다. 주스와 와플 반죽과 잼과 치즈를 주니 알아서 해 먹으란다. 와플 기름만 꼭 잘 뿌려서 구우라고 당부했다. 따뜻한 음식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인데 맛도 괜찮았다.

미련

아침에 주인장이 차 끌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말이 아침이 출근 시간에서 한참 먼 10시 정도 된 시간이다. 체크아웃하려는데 프런트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왔고 주인장 너는 없으니 나는 가는데 방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고 잘 자고 간다고 공책 한권을 찢어 적어 놓고 키를 얹어 두고 왔다.

트롬쇠 공항 면세 구역에 들어가니 현악단의 연주가 한참이다. 서점에서 100 크로네를 주고 99 크로네짜리 공책을 샀다. 100 크로네는 트롬쇠 시내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몰라 인천에서 환전해 온 돈이다. 공항도 작고해서 은행 자동화 기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낭패일 거 같아서다. 그런데 오슬로 공항에서 공식 사이트에 보니 트롬쇠 공항 편의점에서 일회용 버스카드를 살 수 있다. 트롬쇠 공항에 내려 버스카드를 사러 가니 카드

도 되었다. 난 타지 않았지만 공항버스는 아예 버스 안에 카드 단말기가 있다고 했다.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찾아야 한다. 관광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건 가이드 한둘이 할 수 없다. 단체나 국가가 만들어 낸 이야기를 가이드가 풀어내는 거다. 내가 보통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지역 관광청 같은 공식 사이트에 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인터넷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인하거나 세부사항을 알아보며 공식 사이트의 정보가 맞는지 재차 확인할 때 사용하면 된다. 다음부터는 허투루 다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기념으로 줄도 없는 공책을 99 크로네 주고 산 거다.

비행기가 오슬로 공항에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 터키에서 한 번 비행기를 놓친 기억도 있고 여기서는 비행기 놓치면 호텔을 잡아주는 호사 같은 건 없을 거란 생각에 엄청 뛰었다. 출경 심사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유럽연합으로 들어온 거로 이거저거 물었다. 들어올 땐 별말 안 하던데 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게이트 앞에 도착하니 탑승이 시작되었다. 이제 여행이 거의 다 끝나간다.



<그림 5> 트롬쇠 도서관



12장

익숙함

런던

히드로 공항

영국 하면 생각나는 건 아직도 책장 한켠에 놓고 읽지 못한 휴과 해리포터다. 제일 처음 런던을 접한 건 아마 돌리 영어 학습 2비디오 일 거다. 어금니가 영어로 뭘지 맞추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몰라”라고 대답하는데 정답이었던 장면이 있는 만화다. 버킹엄 궁전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근위병 앞에서 간죽거리다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근위병이 동전을 밟고 움직이지 않는 장면이 런던에 대한 처음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런던은 정말이지 컸다. 조명이 들어온 축구장이 많이 눈에 보인다. 히드로 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대로 갔다. 승무원이 입국 신고서를 나눠주지 않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줄에 있었다. 저 앞에 공항 직원이 뭐라 말하고 몇몇 사람이 줄에서 잠시 멈춰 뭔가 적었는데 곧 나도 뭘지 알게 되었다. 한 직원이 짜증스럽게 국적을 묻고 귀찮은 듯이 입국 신고서를 나눠 줬다. 안하무인한 놈이지만 투닥거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했다. 입국 심사관은 꽤 친절했다. 다음 여정이 어디냐고 물어 내 가정이라고 했다. 이제 여행이 다 끝나가는 걸 실감했다.

일반 지하철을 타러 갔다. 피카딜리 선이다. 이 동네는 지하철 노선이 번호가 아니다. 피카딜리 선은 당연히 피카딜리 서커스 역에 선다. 난 런던 한복판에 서커스가 있나 했고 서울의 피카딜리 극장도 왜 서커스 이름을 딴 건지 의문스러웠다. 이튿날 이 역에 가보고 서커스는 곡예단뿐 아니라 광장이란 말로도 쓰다는 걸 알았다. 좌측통행하란 표지를 보고 런던이란 걸 실감했다. 공항 역사 안에서는 역장이 계속 노란 선 밖으로 몰려서라고 소리를 지른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덕 사감이 생각나서 혼

자 피식거렸다.

아무리 입국심사관이 친절했어도 안하무인한 놈을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대부분 국가는 스스로 억울함을 푸는 걸 금지한다. 내가 맞았으면 국가에게 때려달라고 해야지 내가 직접 때리면 나도 같이 쇠고랑 찬다. 구제 방법은 민사와 형사 소송이 있을 거다. 민사 소송이야 정말 억울하고 힘없어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내가 뛰어 다녀야 하고 검사가 원고석에 앉는 형사소송도 검사가 집에 와서 이야기 듣고 소송해주는 건 아니다. 둘 다 여간 귀찮고 돈 들어가는 일이다. 법이 일상에 딱 맞춰 이뤄진 것보다 좋은 건 없지만 국회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형태로는 변화하는 현실을 잘 맞출 수 없다. 합의 과정 중에 이미 현실은 변한다. 모두 공정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 비용이 낮아져야 하는 건 맞지만 일상의 모든 일이 법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해도 일상만큼의 법원이 있는 건 같은 크기의 모형 건물을 짓고 다시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은 꼴이다. 이상적 정의에 딱 맞는 현실은 없다. 그러니까 안하무인한 그놈은 그냥 잊기로 했다.

지하철

숙소에서 나와 지하철 역으로 걸어갔다. 어제 본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생선을 얼음 위에 깔고 파는 게 한국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선 가게 앞에는 차 몇대와 좌판이 있었는데 생고기를 냉장설비 없이 차에서 그대로 팔았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역사 안 노란 안전선에는 틈을 조심하란 문구가 있고 열차가 멈추기 전에 여러번 방송한다. 서울 지하철도 열차와 승강 사이가 넓으니 조심하라고 하고 걸음을 조심하라는 영어 방송을 한다. 걸음 조심이나 틈 조심이나 결국 안전히 타라는 목적에서 나온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영국식 안내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수학에서 답을 같게 나오지만 다른 해법을 안 기분이다.

피카딜리 선 열차 의자는 상당히 폭신하다. 팔걸이도 있어서 옆 사람과 닿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앞 사람 무릎을 조심해야 한다. 앞 의자에 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표지가 있을 정도로 폭이 좁다. 열차 출입할 때 문에 뭔가 끼면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표지도 많다. 비슷한 내용을 방송 하는 서울 지하철이 생각났다.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유가 공동체적 질서를 생각나게 한다. 남을 해치지 말라는 규칙은 남일 신경 안 써도 사회를 이루고 살려면 꼭 필요한 일이니 런던에서 이런 표지를 보는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터널이 작으면 지하철 건설비용이 낮아진다. 런던 지하철은 공중에 전선이 없어서 터널이 딱 열차 하나 들어갈 정도면 된다. 열차도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했는지 출입구 쪽은 터널 곡선에 맞춰 낮아진다. 열차로 송전은 바닥에 놓인 3번째 궤도로 한다. 승강장에서 떨어지면 열차에 치이는게 아니라 송전용 궤도에 감전되어 죽는다. 성장과 발전이 중시되던 때 만들어진 서울 지하철이 무슨 연유에서 비싼 공사비가 드는 공중가선 방식을 택했는지 의아했다.

영국은 좌측통행이니 걸을 때는 우측 통행하는 서울과 모든 게 정 반대

일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선다. 좌측 통행이니 왼쪽이 걸어갈 사람이 맞는 거고 서울이 이상한 거다. 아니면 서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서는게 기본이고 영국은 걷는게 기본이라 생각해서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 일방통행 도로 횡단보도에는 건널 때 확인해야 할 방향을 바닥에 적어 놨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게 조작해야 하는 장치는 오른쪽에 있다. 좌측통행이라 왼쪽에 있어야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차와 그나마 멀리 떨어질 수 있어 안전한데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 작동 단추가 있는 게 편할 거다.

영국 박물관

영국 박물관에 도착했다. 밖에서는 별로 크다는 생각을 못 해서 안을 다 보고 어디 갈지 걱정했다. 간이 천막에서 짐 검사를 통과하고 입장했다.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러 가며 오늘 다 보긴 글렀다는 걸 알아차렸다. 영국 박물관에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데 대한항공 덕분이다. 루브르 박물관에도 대한항공이 협찬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데 중국어도 없는데 한국어가 된 기억이 난다. 오디오 가이드를 켜면 환영 인사가 나오는데 지적 호기심에 이끌려 박물관에 왔을 거란 말이 기억에 남는다. 환영 인사가 끝나면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그레이트 코트를 설명해 준다.

바티칸보다 살뜰히 여기저기서 잘 만들어진 걸 가지고 왔다. 굳이 여행 안 다녀도 어지간한 동네 물건은 여기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전

시물이 있다. 지금이야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를 눈요기하지만 특별히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에는 기껏해야 여행기를 읽으며 상상하거나 삽화를 보는 게 전부였을 거다. 그럴 때 박물관에 온다는 건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의 여행기와 사진을 보는 거나 구글 스트릿을 통해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걸 지적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많은 전시물이 있지만 거대한 문을 통째로 가지고 오거나 한 공간 안에 있는 부조나 벽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 전시해 놓은 곳에서 오래 서성였다. 아주 잘 만든 거 하나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한 물건은 여기저기 살피는 건 지루해지기 쉬운 일이다. 물건 하나가 보는 즐거움을 줄 때까지 살피는 건 뻑뻑한 식빵 테두리를 꾸역꾸역 먹는 기분일 때가 있다. 그렇게 찬찬히 보다 보면 부드러운 가운데 부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규모가 있는 전시물은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게 나오기에 부드러운 가운데 부분을 계속 먹는 느낌이다. 또 크게 한 바퀴 살피고 다시 세세히 살필 때 못 보았던 게 보여 새로운 느낌도 있다.

통째로 가지고 온 거 중에는 파르테논 신전 부조도 있다. 오디오 가이드는 원래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하는 부조들을 여기서는 눈높이로 볼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 씹쓸하게도 아테네에서 보다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부조 속 인물부터 그 인물들이 무슨 상황에 처한 사건까지 설명해준다. 전시된 건 오래된 돌 뿐이지만 원래 어떻게 칠해져 있는지도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는 아테네의 반환 요구 같은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취득 경로의 일부를 말해줄 뿐이다.

영국 박물관에서 본 걸 말하자면 끝도 없다. 어디 아프리카 국가의 장식부터 모아이상도 있고 한국 가옥의 축소 견본도 있다. 오래된 미라부터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영국 드라마의 소품이 놓여 있기도 하다. 처음에는 꼼꼼히 보다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 서둘렀다. 다음날도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살피고 기억에 남은 건 자세히 살피는 게 좋을 거라 여겼다.

박물관에서 나와서 소설 속 셜록 홈스의 사무실 주소인 베이커가 221B에 왔다. 지금은 셜록 박물관이다.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대의 의상을 한 직원이 입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기념품 가게에 들러 셜록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컵을 하나 샀다. 박물관은 입장료를 내야 하기도 하고 난 셜록에 별 관심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 않았다. 단순히 소설에 관한 박물관이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한 번 흘깃 보고 가는 내 입장에서는 영국 박물관의 설명도 소설이다. 그럴듯하니까 믿는 거지 사실이 어쩐지는 확인해봐야 아는 거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안에서 왜곡된 역사 인식이 있는데 영국 박물관이라고 다른 나라를 완벽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진 않을 거다. 어떻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살피는 측면에서는 허구의 소설을 다루나 실제 대상을 다루나 크게 차이가 없다.

실수 3

숙소에 도착해서 인도에서 필요한 로밍 신청을 했다. 데이터

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정액제 로밍이 시작되는 서비스를 선택했다. 런던에서는 현지 통신사 유심을 넣고 있어서 문자 온 걸 확인하기 위해 유심을 갈아 끼었다. 문자를 확인하고 긴 문자를 확인하려 데이터를 켜는데 그대로 데이터 로밍이 신청되었다. 가슴이 쓰렸다.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상담원은 조금 쓴 걸론 청구되지 않으니 안심하라 했다. 여행 내내 가벼운 실수를 계속했다. 유심 트레이를 빼는 구멍과 마이크 구멍을 헛갈려서 엄한 구멍에 핀셋을 꽂아 넣는 건 예삿일이었는데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마이크가 고장 났을 거다. 여행하는 중간중간 기 문자를 확인하려 데이터를 켜고 그 와중에 다른 앱들이 데이터를 사용해 로밍비가 조금씩 나가기도 했다.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잔실수가 마음에 들 리 없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1원, 1초도 아깝게 생각해야 한다.

자연사 박물관

런던에서 마지막 날이다. 이날도 영국 박물관에 가려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번 여행에서 늘상 한 일이 박물관 돌아다니는 것이었고 루브르는 이틀에 걸쳐 갔다는 걸 생각하면 특이한 일이다. 그렇지만 루브르에서 두 번째 날은 일찍 나왔으니 다음날 마음이 변한 건 시간이 조금 땡겨진 것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박물관이 편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나와 더 맞는 뭔가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행이 억지로 한 꼴이 되어서 슬퍼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박물관을 가지 않은 건 아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자연사 박물관도 영국 박물관처럼 기부 형태로 운영되는데 유난히 기부함 앞에서 기부해달라고 말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전날은 평일이고 이날은 주말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박물관 내부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다 소 있었고 깨진 창은 테이프로 고정해 놓은 정도니 기부가 정말 필요해서 직원이 나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방부액에 넣은 여러 생물 표본이 있는 자연사 박물관 내부는 기괴했다. 그리고 방부액에 절였다는 표현은 기괴함을 더했다.

내부는 아이들을 위한 전시물이 많았다.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여기도 공룡들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무역센터에서 방학이면 하던 공룡 전시가 생각났다. 단연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은 티라노사우루스 혹은 티렉스 앞이다. 공격적으로 생긴 싸움 제일 잘하는 육식 공룡이다. 이름에서 그렇듯이 공룡의 왕이다. 그런데 어렸을 적 난 티라노보다는 방어적으로 생긴 초식동물인 트리케라톱스가 더 좋았다. 공룡 전시에서 이 초식동물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을 묵묵히 막아내고 티라노를 몰려서게 한 기억 때문이다. 남들 우르르 몰려 있는 거 따라 좋아하기 싫은 이유도 한몫했다.

스케치 6

점심 즈음 박물관을 나와 영국 빨빨거리면서 시내를 쏘다녔

다. 런던 절반은 우박이 내리는데 나머지는 해가 째깍한 걸 보니 영국 날씨 이상하단 소리가 확실히 이해되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지금까지 여행 다녔던 곳 중에 가장 사람 밀도 높은 동네다. 무질서하지는 않았다. 러셀의 「귀납에 대하여」란 글에서 예시로 나오는 트라팔가 광장은 주변을 시뻘건 현수막으로 둘러놓고 영국 시장이 후원하는 중국 설 기념행사 무대가 가설 중이었다. 중간에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보여 들리기도 했다.

런던 길거리는 만들어 낸 볼거리가 많다. 슈렉 테마파크라든가 미스테리한 선박 속에 들어가 보라던가 하는 것들. 이야기로 덧씌운 구경거리들. 박물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영국 박물관은 지적 호기심이 날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지금이야 슈렉 테마파크가 더 눈요기가 되겠지만 볼게 별로 없던 시절에 아프리카 어느 동네에서 가져온 가면보다 더 눈요기되는 건 없을 거다. 심지어 사람까지 끌고 와 전시하기도 했다. 공작이 사람들의 눈을 흘린다고 서울에서 멀리 치워버린 조선과는 다른 동네다.

13장

악!!!

뉴델리

과실

나는 싼값에 눈이 멀어 에어 인디아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다. 런던에서부터 인도 경험을 한 셈이다. 정말 한 마디로 개판이다. 발권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다. 직원은 환승 항공권을 출력하지 못해 다른 직원을 불러왔다. 내가 인도 비자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출국 심사를 하고 다시 체크인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어차피 비자는 있으니 비자 잘 챙겼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기내도 불만하다. 내부 관리는 하는지 모르겠다. 밤 비행기여서 대부분 자고 있는데 덧창을 열어 미리 태양 맛을 보여준 승객은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경우다.

뉴델리 공항에 내렸다. 화장실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주는 기호가 없다. 대신 당황스럽게 남자와 여자의 사진이 아주 크게 붙어있다. 환승 통로에 에어 인디아 창구가 보였다. 발권해준 직원이 못 미더워서 창구에 가서 내가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환승 항공권이라 안된다고 한다. 응대가 아주 가관인데 전화받고 휴대전화 켜고 옆 직원과 대화하고 내 뒤에 사람이 내가 있는데도 새치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까지 다 들어주면서 나랑 대화한다. 어디 믿을 수가 있나 다시 나갈 수 있는지 물었는데 발권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

뉴델리 공항은 입국 심사대를 넘는 것만 3시간이 걸렸다. 나와서도 문제다. 은행 자동화 기기에 돈이 없다. 도착층에 있는 모든 기기에서 돈이 안 나온다. 환전상에 카드가 가능하다고 쓰여있지만 받지 않았다. 영국에서 남은 5파운드는 잔돈이라고 하며 환전이 안 된다고 한다.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다시 출국 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출국 층 기기에서는 돈

이 나왔다.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니 뉴델리 공항은 들어오면 못 나간단다. 이미 발권 직원과 환승 통로 직원에게 불신이 가득했던지라 나갈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라 한다. 에어 인디아 창구로 가니 날 내보내 줬다.

뉴델리

짐 보관소가 있었지만 도저히 이 동네에 믿음이 안 생겨서 맞기지 않았다. 공항철도 승차권 자판기는 높은 단위의 지폐를 받지 않아서 쓸모가 없다. 열차에 타서야 좀 안도했다. 열차 내부는 이상하게 사진 촬영 금지다. 창밖으론 소가 개처럼 돌아다니는 황량한 풍경만 지나간다. 열차를 내릴 때가 되니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교착되어서 한동안 꼼짝도 못 했다. 역사 내부 곳곳은 먼지로 허영다. 정말 생지옥이다.

거리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 많은 사람 틈바구니로 차도 다니고 인력거도 다닌다. 화장실은 그냥 밖에서 보이고 따로 지린내가 진동한다. 그 옆에는 음식 파는 노점이 있다. 사람이 하도 많으니 격렬한 콘서트장에 온 거 같다. 어렸을 적 기차놀이처럼 서로 어깨에 손을 짚고 다니는 무리도 보인다. 런던도 사람은 이만큼 있었다. 그런데 다 신호등도 지키고 통행 방향도 지켰다.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고 예쁘게 붙어 다니는 연인도 눈에 보인다. 내 눈에는 생지옥이지만 이 안에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을 거다. 뉴델리

에서 얻은 건 이뿐이다. 전쟁 난민들을 보며 자신의 삶에 불평했던 걸 반성해야 한다는 등 내 삶은 충분히 좋다는 등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별문제 없다는 걸 확인한 거다. 어찌 되었든 나는 금방 돌아왔다. 몇 시간뿐이지만 뉴델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비자 값 만으로 인도를 경험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결별

공항에서 쓰지 않은 루피를 환전하려 했다. 환전상은 “과자나 사 먹으”라고 했다. 정말 1루피도 내 몸에 지니고 싶지 않았다. 면세점에서 선물로 술과 담배를 샀다. 직원이 면세 기준을 담배 3보루로 높여 말하며 더 사도 된다고 말했다. 이미 당한 게 있으니 재차 물었는데 같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직원의 말을 적당히 걸렀다. 남은 돈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로 다 처리하려 했다. 아쉽게 잔돈이 조금 남았다. 그런데 맥도날드 직원이 잔돈을 주지 않았다. 직원에게 항의하니 그제야 실실 웃으며 자신이 까먹었다고 말했다. 인천에 돌아와서 뉴델리에서 잔돈이라고 안 받아줬던 5파운드는 원으로 환전했다.

발권할 때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발권 시간이 되어서 카운터로 갔는데 아직 앞 비행기 체크인을 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어서 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에어 인디아 직원이 친절하게 어디 가느냐고 묻더니 나를 다른 카운터로 안내한다. 물론 그 카운터 직원도 휴대전화하고 전화받고 내 뒤에 있던 사람 말 듣고 옆에 직원이랑 통화한

건 당연하다. 나에게 다시 방금 내가 기다리던 카운터로 가라고 했다. 이 쯤 되니 화도 안 나고 그러려니 했다. 러시아에서는 말이 안 통해도 일이 되었는데 여기는 말만 알아듣지 일이 안 된다.

아직 끝이 아니다. 비행기에 타서도 승객이 짐을 잃어버렸다고 50분이 연착되었다. 시간 되면 문 닫고 출발하는 노르웨이로 순간 이동하고 싶었다. 기내 서비스도 바랄 게 없다. 대피 안내 같은 안전 관련 영상도 끊어먹는다. 채식 식단 중 엄청 매운 고추가 있었다. 매워서 딸꾹질이 날 정도였고 객들이 물이나 우유를 달라고 하는데도 승무원이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천하태평했다. 홍콩에 도착해서 일부 승객은 내리고 기내를 정리하는데 홍콩 사람들이 일하는 게 이렇게 빠르고 꼼꼼한지 처음 알았다. 홍콩 국적기를 탔을 때 승무원들이 무던하다고 여겼던 나를 반성했다.



<그림 6> 뉴델리 공항 화장실 입구



14장

도착

마지막 비행

인도 사람이 싫다고 해서 미워해 봤자 나만 손해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주변에 신경 써봤자 내 시간이 더 편안해지지 않는다. 이 순간도 조금만 지나면 아주 간절히 원하게 될 거고 쉽게 다시 얻지 못할 시간이란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사라지는 한순간이라도 소중한 여기고 꼭 쥐어야 한다. 성질나는 이 상황도 조금만 물러나서 생각하면 독특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다.

비행기 안에서 가벼운 코미디 영화를 봤다. 김혜수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학생의 아이를 데려온다는 내용이다. 기내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자꾸 멈춰서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내가 원하는 걸 찾았다는 생각에 학부 동안 철학에 관련 없는 이야기를 멀리한 게 지금 딱 막힌 내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글을 익힐 때 본 한글 카드는 전문적인 저술을 하는 데 전혀 쓸모없다. 하지만 한글 카드로 한글을 익히지 못했다면 저술은커녕 자기 이름도 쓸 수 없다. 내 목표와 전혀 상관없어 보여서 시간 낭비 같은 일이라도 불필요한 게 아니다.

세관 신고서를 받았다. 여행을 며칠을 했는지 몰라서 날짜를 썼다. 지난 여행에서는 분명 하루하루 며칠 차인 지 알고 내가 쓴 시간과 남은 시간이 머릿속에 있던 걸 보면 이번 여행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다. 제대로 시작이나 했는지 의심스러운 여행이 이제 다 끝났다.

목적지

도착은 언제 하는 걸까. 만약 국적이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도착했다고 할 수 있고 외항사면 인천에 비행기가 내려 탑승교를 건널 때 도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집에 도착했을 때로 도착을 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다고 전혀 터무니없는 걸 도착이라고 하진 않는다. 여행을 나설 때 도착했다고 하진 않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을 때 도착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내 도착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면세점에서 돌아올 곳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술과 친구의 담배를 살 때라고 본다.

성공한 여행의 도착지는 결국 출발지다. 바다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난파당하면 그 배의 어부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행 중에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해도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되돌아오는 순간 그 수많은 경험에 정착액이 뿌려지며 고정된다. 되돌아와야 여행이 완성된다. 내가 되돌아와야 할 곳은 내가 출발 했던 우리 집이다.

인천 공항에 내려 기분 나쁜 인도 면세점 종이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여행을 시작할 때처럼 되돌아가는 길이 특별하지 않다. 한 달은 긴 시간이긴 하지만 학교가던 길이 낯설어질 만큼 긴 시간은 아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깼다. 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까먹었다. 동생이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중국사람이 떠드는 소리인 줄 알았다.

여행 다녀온 다음 날이라고 특별할 리 없다. 버스회사와 항공사의 스펀

메일이 내가 여행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맞는 말

반성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기 전날 나는 여행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정신이 빠져있었다. 여행 당일까지 숙소는커녕 이 여행에서 가장 많은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드는 오로라 보기에 관한 준비도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인도 비자 신청을 위한 사진도 공항 가는 길에 찍었다. 환장할 노릇이다.

이 모든 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했다. 그렇다고 사람의 본성은 착하니 어딜 가나 도움받을 수 있고 어디에도 날 해치는 사람이 없다고 소박하게 생각한 건 아니다. 되도록 쉽게 이득 보려는 사람 마음은 어디나 같을 거라고 본 거다. 돈 벌 기회인 수수한 여행자를 내쫓을 이유가 없고 위험을 감수하고 강도질할 만큼 내가 부티나지도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정신 나간 생각이다. 사람 사는 거야 같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한다. 먹고 자는 것만으로 보면 사람 사는 게 단순하지만 어디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던가? 나는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낸다. 일상의 요소들은 동네마다 참 다르기도 하다. 옷차림은 차차 하고 하찮게는 변기 모양까지 다 다르다. 여기서는 당연한 게 저기서는 용납되지 않을 일들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좌측통행인 나라 고속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우측통행을 하면 저기서 저승사자가 반겨줄 뿐이다. 그나마 그동안 여러모로 경험하고 배운 게 있어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돌아온 거다. 참 다행인 일이다.

마지막으로 먹고 자고 이동한 거 그리고 통신같이 여행 중에 꼭 필요

한 걸 빼고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볼 거다. 돈이나 시간은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비슷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여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욕심부리고 빨빨거리면서 그 동네를 돌아다녔다. 그 상황에 처해서 결정한 건 충동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론 이거저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 끌린 대로 한 거다.

시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오로라 보는 걸 빼면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유적지에 가고 동네를 배회하는 데 쓴 게 주가 된다. 특이하게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도 있다. 혼자서 박물관이나 돌아다니는 여행은 지루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다니지도 않고 사람들과도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했다. 나는 낮도 많이 가리고 시골에 살아서인지 사람으로 북적북적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바티칸 미술관의 긴 줄을 서거나 관광객들이 모여서 고개를 빼 들고 감탄사를 늘어놓는 곳에 있던 건 배운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배운다는 생각이 들면 많은 일이 용납된다. 버스 탈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도 버스 타는 법을 공부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많은 곳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들면 괜찮다. 관광하러 가서 도서관에 들어간 것도 마음 편한 장소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부수적으로 지출한 내용은 다음 <표 1>에 있다. 돈도 시간 쓴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로라 보는 데 쓴 돈을 빼면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유적지 입장료가 주가 되고 인사치레를 위한 선물을 산 게 그 뒤를 잇는다. 차 한 잔과 피자 한 판 산 게 내가 생존을 위해 먹지 않은 음식에 쓴 돈 전부다. 그리고 줄 없는 공책 한 권 산 게 있다. 돈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만 전자상거래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굳이 그 동네에서 꼭 사와야 할 물건도 없고 가는 곳마다 기념품을 사서 내 추억을 담지도 않으니 딱히 선물 말고는 살 게 없었다. 결국 난 보고 배우는 데 대부분 돈을 썼고 특이하게 적기 위해 공책 하나를 샀다.

여행을 가기 전이나 돌아온 후나 똑같은 걸 보면 가슴 졸이고 안 하면 죽을 거 같은 열정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시기는 내 삶에서 딱 철학과에 입학할 준비하던 반년과 학부 시절 2년뿐이다. 하루하루 가슴 벅찬 삶이 어디 일상일 수 있을까. 무기력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즐거움이 생기고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어려움에 처해도 묵묵히 하다 보면 해법을 찾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제 그만 투정하고 묵묵히 할 대상을 굳히고 꾸준히 해야 한다. 물론 그 대상은 내가 의미 있다 생각하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가 선택했기에 긍정할 수 있는 게 될 거다. 그렇게 꾸준히 해서 누구와 함께 우리 안으로 여행기인 『마흔살 여행기』도 만들 거다.

날짜	금액	내용
0106	200 RUB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입장
0113	350	성 바실리 성당 입장
0114	500	크렘린(무기고) 입장
	700	크렘린(성당과 전시들) 입장
	400	국립 역사 박물관 입장
	380	선물 구입
0116	30 EUR	아크로폴리스 통합 입장

	5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입장
0117	5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입장
0118	12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입장
	4	피자 구입
0119	11	폼페이 입장
0120	16	바티칸 박물관 입장
	7	바티칸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이용
	8	쿠폰라 입장
0121	12	포룸 로마와 콜로세움 입장
0122	8	구엘 공원 입장
0123	23.5	라 페데라 입장
	22	카사 바뜨요 입장
	15	라 사그라다 입장
	1095 NOK	오로라 투어 참여
0126	99	공책 구입
0127	6 GBP	영국 박물관 오디오가이드 이용
	12	선물 구입
0128	1.85	차 구입
0129	67 USD	선물 구입

<표 1> 여행 중 부수적으로 지출한 내용